113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호 1월 31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근로지 一九四九년 제二호 로동신문사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2호 (24)

1949년 1월 31일

내 용

레닌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다.

레닌의 위대한 교의는 사회발전과정과 인민들의 력사적운명에 대하여 보다더 강력하고 더욱더 중대하는 영향을 주고있다 레닌주의의 기치밑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새롭고 또 새로운 수천만의 투사들을 단결시키고있다 레닌의 위대성은 어데있으며 레닌주의의 타승할수없는 생활력은 어데있는가? 레닌의 위대성은 그가 우리시대의 가장 절실한 과업인―자기 일생을 끝마친 자본주의의 혁명적전복,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확립 및 계급없는 새로운 공산주의사회의 창건의 과업에대한 천재적 표현자 라는점에 있다 레닌은 맑쓰주의앞에 제기된 사회발전과정과, 세계로동운동 및 로씨야의 사회주의적혁명의 과정에 대한 제문제에 천재적인 대답을 주었다。

레닌은 맑쓰이후에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였다。

농업문제와 로씨야에있어서의 자본주의발전에 관한 레닌의 저작들과 특히 그의 고전적 저작인『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는 맑쓰주의 정치경제학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이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현단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낡은 산업자본주의의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에로의 전화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제국주의는 부르죠아사회의 모든 모순의 극단한 첨예화 자본주의의 부후(腐朽) 모든 로선에있어서의 반동의 장성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시대의 자본주의 독점단체들의 압박은 근로대중의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의 상태를 참지못할만하게 만들고있다 제국주의―이는 썩어져 가는 자본주의이며 사회주의의 전야이다―레닌은 제국주의의 분석으로부터 이러한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있다

그에 의하여 개명된 새로운 법칙에 의거하여 특히 독점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의 법칙에 의거하여 레닌은 최초에 약간의 또 개별적인 일국가에 있어서도 사회주의가 승리할수있다는 가능성에 관

한 교의인—프로레타리아혁명의 새로운 리론을 창조하였다 력사의 운명과 로동계급의 운명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그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다른발견(맑쓰의 발견 이후에있어서)을 지적할수있는가? 레닌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론이없이는 쏘베트국가의 로동계급과 볼쉐위끼당은 올바른 과학적인 방향표정(方向標定)을 가질수 없었을것이었다。

레닌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에의한 가장 적절한 형태로서의 쏘베트국가형태의 발견이다 로동계급의 독재 및 쏘베트국가의창건은 전세계력사의 새로운 기원(紀元)을 의미하였었다。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로서의 쏘베트민주주의에 관한 레닌의 교의는 사회과학의 위대한 전과(戰果)이다 쓰딸린은 사회주의국가에 관한 레닌의 교의를 그후에 승리적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경험의 리론적보편화로써 풍부화시키고 이를 발전시켰다 레닌은 무한한 천재를 가지고있였다 그의 과학적·관심은 원자구조로부터 로동계급 및 전인류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또 전기화문제로부터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철학문제로부터 국가구조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분야에 펴져있었고 모든것이 레닌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과 승리적 공산주의의 유일한 목적에 종속되었었다。

자연과학 부야와 물리학 부야에 있어서의 一九세기말부터、二〇세기초기의 위대한 발명의 철학적보편화에 의거한 변증법적유물론의 일층의 발전에 대한 위대한 공로는 레닌에게 속하고있다 특히 레닌은 관념론의 새로운 류행적 형태인—마하설(說)—(一八三八년—一九一六년)과 물리학적 관념론에 치명적 타격을 가져왔다 레닌은 자연과학의 최신발명이 현대적 변증법적、유물론을 반박하지않을뿐만아니라 그대로 확인하고있다는것을、증명하였다『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라는 자기의 유명한 저서에서 레닌은 쓰기를—현대 물리학은 혁명을 체험하고있다 그는 자연발생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탄생한다 이『탄생』은 관념론의 사상적동요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물리학자들은 변증법적유물론을 알지못하면서 부르죠아지 관념론철학의 찌끄러기를 리용하고있기때문이다—고하였다 레닌은 물리학이 제회(際會)하고있는 위험으로부터의 출로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는 쓰기를—물질운동의 제형태와 물질적세계의 제법칙은 무한히 다종 다양하다—고하였다 현대물리학의、발전은 전부 레닌의 이 천재적 예언을 확인하였다 관념론은 말만으로 사람을 고상하게한다。사실에 있어서 이 증오할 위선적(僞善的) 철학과 그의 설교자들은 인간의 리성과 그의 인식능력을 저하시키고있다 자본주의가 과학과 관념론의 인식(認識)앞에 내세우고있는 한계는 절대적이고 극복할수없는것으로 전화하고있다 레닌은 관념론의 이 환상(幻想)을 무자비하게 분쇄하였다 그는 생생하고 유익하고 진정하고 강력하고 전능(全能)하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인식(認識)의 산 나무를 찬양하였다(전집 十三권 三〇四페지)아 행(行)은 레닌의 이 저서와 함께 자본주의가 교살하고 압박하고 기형으로 만들고 제한하고 또 관념론의 신비설의 독물(毒物)로 독살하고있는 진보적과학과 진보적인류와 그의 리성 및 능력에대한 진정한 찬미가이다 정치와 과학에있어서 레닌은 전략가였었고 위대하고 열렬한 투사였었다 레닌은 착취자계급의 리기적 리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철학 과학 예술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적 객관주의를 반대하여·투쟁하였다 철학은 정치경제학과 같이 당적 과학이다 레닌은말하였다 과학은 그가、늘 로동계급의 투쟁의 실천경험에 의하여 풍부화되고 검열되고있을때에만 혁명적행동과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있다 리론이 보다더 정확하게 사회발전의 요구와 전세계적—력사적실천을 반영하면 할쑤록 그는 사회—정치적 발전의 촉진에 있어서 커다란 역활을 하고있다 생활에 뒤떨어진 리론은 사회발전의 장애로 전화되는 것이다 우익 사회민주당원들을 비판하면서 레닌은 이 구라파의 소시민들이 로씨야의 혁명에 뒤이어 불가피하게 일어날 장래의 혁명은 비상적이고 새롭고 특유한것을 가져올것이라는것은 꿈에도 생각치못하고있다는것을 썼다 레닌은 사회민주주의의 기회주의적령도자들을 그들의 과거에 대한 노예적 모방과 부르죠아지로부터 퇴각하려는 공포에 대하여 비난하고있다。

제二차 세계전쟁후에있어서의 중부 및 동남구라파 제국가의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의 승리와 로동계급 및 공산당의 령도하에 지금 이들국가의 인민들이 수행하고있는 사회주의에로의 커다란 걸음은 반동국가와 우익사회당원들의 진영사이에 미친듯한 증오를 초래하였다 그들은 중부 및 동남구라파 제국가에

레닌주의는 백전백승의 위력이다

—레닌서거 二五주년기념에 제하여—

기 석 복

제반학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으로써 검토된다。

인류사회를위한 제반학설의 정당성 생활력 및 의의는 사회발전의 법칙을 규정하는 사회생활의 실제적 행정으로써 검토된다。

인류사회의력사가 존재한 이래 수다한 각종 사회적 학설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학설들중에서 사회발전의 동력의 하나로되며 인간을 새로운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인도하는 학서 또는 맑쓰—레닌주의라는것이 사회발전의 행정으로써 규정되었다。

맑쓰와 엥겔쓰는 인류사회의 발전의 제반 과거의 력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였고 그의 발전의 법칙들을 발견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자본주의제도가 자체내의 내부모순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결국 그는 멸망될것이며 필연코 고상한 공산주의적제도로 교대되리라는것을 명시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혁명적수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공산주의사회로 혁신할사명을 가진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역할을 창시하였다。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학설의 정당성과 충실성은 세계의 제반 력사의 중요한 사변으로써 론증된다。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승리, 제二차세계대전에서의 쏘련군대가 팟쇼독일과 일본제국주의를 진멸한 제반승리는 레닌주의리론에 기초하여 볼쉐위크당의 기도밑에서 쟁취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이 창시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는 三一년간에 자본주의세계의 침공을 수차격파하였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였으며 그의 사회주의적승리를 보장하였다。

지구의 六분지一을 차지한 쏘련국가는 맑쓰—레닌주의적리론을 지침으로삼아 인류의력사에서 처음으로 발전하고있다。

수립된 국가형태는 그들의 정치적리론과 앙글로—싹손적전형(典型)에 적합하지않고있다는것을 외치고있다

그러나 왜 세계인민들은 이 파산된 전형을 따라가야되는가?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석실한 추복들은 자기일생을 끝마친 낡아진 자본주의적 생활형태를 보존하기위하여 세계를 뒤로 끌어가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반동적인 제도를 부식(扶植)하고있고 파시즘을 재생시키고있다。

레닌주의는, 세계인민들을 공산주의에로 전진시키고있다 팟쇼적 압박을 체험한 구라파인민들은 진보적발전의 새로운 길을 자신을 위하여 구하고있다。

레닌주의의 조국인 쏘련은 그들을 위하여 고무하여주는 실례이다 레닌의 천재적인 전우인 쓰딸린에 의하여 더 발전된 레닌의 위대한 교의는 반동파의 투쟁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세계인민들을 위하여 고무와 력도의 원천이다 레닌은 선견에 대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본질을 리해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一〇년이나 장래를 통찰(洞察)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발전의 전과정과 력사적 필연성의 힘에 의하여 자극을 받은 전로동계급이 과학적 사회주의에 의하여 지적된 투쟁의 길로 궐기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는날 세계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강력한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증명자가된다 레닌주의는 현재에 있어서 모든 진보적인류를 위하여 투쟁의 기치로 되었다 레닌은 사회주의건설의 방향 법칙 및 도정을 가르켰다 레닌주의는 볼쉐위끼당의 활동의 리론적기초가 되고있다 레닌은 쏘베트사회주의사회의 미증유의 발전 쏘련의 경제발전의 미증유의 템포, 새로운 문화의 개화, 무수한 인민적재능의 발전, 사회주의경쟁의 새로운형태의 발전, 쏘련인민의 위력과 불패성(不敗性) 및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을 예견하였다 위대한 조국전쟁에있어서의 쏘베트인민의 승리는 전세계 로동계급의 위대한 스승이며 령도자인 레닌의 예견을 완전히 증명하였다 위대한 쓰딸린에 의하여 령도되는 쏘련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무한한 사랑을 쟁취하였다 전세계의 훌륭한 사람들과 진정하게 생각하고 자각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사람들은 사회주의국가를 평화와 진보와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 및 독립의 성색으로 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창의에 하등의 관련이 없이 맹목적 자연생장적 법칙에 종속되였다.

그러나 맑쓰―레닌주의에 기초한 쏘련국가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 발전은 행복한 사회를 창조하는 근로대중의 자립적 력사적창조와 인간의 자각적활동을 위한 막대한 가능을 열어놓았다.

레닌과 쓰딸린은 자본주의적포위의 조건에서 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적사회 창설의 가능성을 리론적으로 창시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의 학설로부터 출발하여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환하는 학설을 창조하였다.

이학설은 이미 세계의 六분지一을 차지한 사회주의적국가인 쏘련의 제반사회주의적 혁신으로써 론증되었다.

프로레타리아트독재가 로씨야에 수립된지 八년만에 우라지미르●일리츠●레닌은 서거하였다.

쎄●쎄●쎄●르는 자기의 존재 三一년간 레닌이 없이 그의 사업의 위대한 계승자인 쓰딸린의 지도밑에서 레닌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쓰딸린은 레닌주의 기치를 지구상에 높이 들고 근로계급과 제반근로대중을 승리의 승리로 령도한다 새로운 국제적 또는 국내적환경에 적응하여 레닌주의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조건에서만이 또 레닌주의적학설의 순결성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만이 레닌의 유언의 실천을위한 투쟁을 진행할수있다.

우리는 이러한 레닌주의의발전과 부를 쓰딸린의 저명한 저서들에서 보고있다.

그러므로 쓰딸린의 이름은 레닌주의의 발전에있어서의 새로운 계단과 유기적관계를 맺고있다.

볼쉐위크당의 지도밑에서 쏘베트국가는 자기의 원쑤들을 격파하며 수다한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공산주의를 향하여 계속나아가고있다.

외국 제국주의 국가에 예속되어 반식민지적 노예국가로 있던 락후하고 반(半)농노적 로씨야는 레닌주의의 기치밑에서 만능적 공업―꼴호즈적 강국으로 또 위력한 다민족 사회주의국가로 변하였다.

사회주의의 승리의 기초위에서 두개의력량―인민과 공산주의의는 결속되었다.

쏘베트사회와 국가제도는 제二차세계대전에서의 위대한 시련을 경과하였다.

여기에서 쏘베트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제도로 나서게되었다.

그러므로 쎄●쎄●쎄●르의 위신과 면모는 어느때보다도 지금에있어서 국제무대에서 가장 높다.

이에따라 전세계 근로대중에게 주는 영향은 나날이 장성하고있다.

쏘베트국가는 포악한 제二차세계전쟁후 사회주의적 제도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전쟁의 피해를 단기간내에 완치하며 신임있게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이와같은 경제 정치적 성과에서 전세계 근로대중과 쏘련인민은 레닌주의의 만능적위력을 보고있다.

전세계는 쎄●쎄●쎄●르에서의 공산주의가 실제에있어서 실천되고 있으며 계속장성되는것을 보고있다.

공산주의는 어느때보다도 오늘에있어서 가장 강유력한 위력으로되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부인하던 까우츠끼 바우엘일파 및 히틀러도당들은 실패로 돌아가고말았다.

그들은 벌써 력사의 쓰레기통에 담기어졌다.

이와같은 운명이 북미합중국의 월가의 주인들과 불룸의 일파의 『사회주의자』와 레이보리스트우파들에게도 닥쳐올것은 의심없다.

레닌주의의승리는 세계의 자유애호인민과 쏘베트인민들에게 새로운 력량을 부여하며 그들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나선 제반 원쑤들과의 투쟁에 고무한다.

그러므로 쏘베트국가와 볼쉐위크당의 창시자인 레닌의 유언과 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적 력량으로 격려된 볼쉐위크와 전세계 근로인민들은 쏘련에있어서의 공산주의사회의 건설과 세계에서의 민주의 완전한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력량을 발휘하고있다.

쓰딸린은 지구의 六분지一에서의 사회주의가 승리한 시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새시기에있어서 국가에대한 중대한 문제에대하여 레닌주의를 앞으로 더발전시켰다.

다시말하면 공산주의에있어서의 국가에대한 문제를 리론적으로 분석하여놓았다.

『우리는 계속하여 앞으로 공산주의로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공산주의시대에가서도 역시 우리에게 국가가 보존되겠는가? 그렇다 만일 자본주의적 포위가 청산되지않고 만일 외계의 군사적 침공의 위협이 퇴치되지않는다면 물론 국가가 보존될것이다.

여기에있어서 내부적 및 외부적 환경의 변천에따라 우리국가형태가 다시 변경될것은 명백한 일이다.』

(쓰딸린)

레닌주의의보고에 쓰딸린은 새로운 보물을 넣었으며 볼쉐위크공산당과 쏘베트인민 및 전세계근로대중을 국가에대한 새로운 사상적무기로 무장시켰다.

현시기―사회주의건설의 완성시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시기 인민의 모든 길이 공산주의로 향하는 지기에있어서의 결정적문제의 하나로는 전세계근로대중에게 레닌주의적교양

을 주는사업이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적진영 반민주주의적진영이 쇠약하여가고 민주주의적진영 반제국주의적진영이 나날이 강화하여가는 오늘 국제적환경에있어서 새 인민민주주의적제도의 성과적창설을 위한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로되는 사상교양에대한 사업을 대중속에 널리전개하여야한다。

그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민주주의적제도를 수립하는 그속도가 그국가의 대중의 자각성과 사상적리론준비의 여하에관련되기때문이다。

만일 어느국가든지 그국가의 인민들의 자각성이 미약하고 리론적수준이 박약하다면 물론 그국가가 락후한 국가로 될것이며 마치 모래위에 건축된 건물처럼 되고말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물론 어떠한 국가든지 강하게되려면 그국가의 인민의 자각성과 애국성을 제고시키어야 하며 선진과학적리론—맑쓰레닌주의를 배양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의 전망을 자체로서 판정하며 제반 난관들을 극복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우리당은 맑쓰—레닌주의를 광범한 대중속에다 깊이 전파시키는 선전사업을 전개하고있다。

× × ×

제二차세계전쟁후 쏘베트동맹이 팟쇼의 기반에서 현대의·문화를 구제한 이때에있어서 민주의 력량은 어느때보다도 더욱위대하다。

이와같이 제자본국가들에서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대중의 새인민민주주의적제도를 수립하려는 지향은 나날이 장성하고있다 다시말하면 민주주의는 새지지자들을 자기편에많이 쟁취하고있다。

구라파의 제자본주의국가 불란서 이태리 영국 및 기타 나라들에서는 세계적패전을 강요하는 미국제국주의에 자기의 민족적독립을 상실하면서까지라도 자본주의를 보전하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변절적 반역적 행동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자기의 인민들에게 말하지않는다 그것은 그들자신도 자본주의의 잔명을 알고있는동시에 자기들의 감행하는 행동이 범죄적인 것을 인식하기때문이다。

인류의 력사에서의 가장 포악한 제二차 전쟁이 끝나자 얼마 안되어 세계의 패권을 강요하는 제국주의는 새전쟁을 다시금 외치고있다。

그러나 지금 구라파와 아세아의 수억만인민은 지난 전쟁이 인민에게 가져온 참상이 얼마나 포악하였으며 또 제국주의가 이러한 전쟁과 인민을 걸인화(乞人化)시키는 공황을 발생시킨다는 레닌의 명제를 절실히 리해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제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자본주의제도의 영원불멸에 대하여 선전하는 부르죠아지의

사상가들은 적으만한 개혁으로써 인민을기만하며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연화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부르죠아지의 리론가들의 이러한 약(藥)화제는 점점더 심각하여가는 경제적 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원할수가 없을것이다。

자본주의제국가들에서는 근로대중에게 더참혹한 빈궁과 고통을 가져오는 인프레가 계속 됨에 따라 제국주의는 인민대중의 복리에 광분적 공격을 하고있다. 즉 로동자들의 임금은 나날이 축소되며 무직업자들은 계속 자성하며 근로대중의 생활수준은 점점 저하되며 인민대중은 빈궁의 도탄에 빠지고있다。

전쟁후시기의 이러한 조건에서 제二국제당의 진영에속한 기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번영에 대한 각종 비사회주의적 리론을 선전하고있다。

제一차세계전쟁의 결과에 혁명적위기가 조성된 시기에 까우츠끼와 끄리헤리칭 바우에로와 렌옐 마도날드와 레노델리등이 소위「사회주의적」말공부로 대중을 기만하면서 자본주의제도를 구제하려고한 것과같이 오늘에있어서 블룸과 애틀리 슈마헬등도 부패하여가는 자본주의적제도를 구제하려고 그들처럼 범과적으로 갖자「사회주의」를 선전하고있다 오늘 우경사회민주주의자의 수령들은 민주주의의 리해를 근본적으로 반역하는길로 나가고있으며 자기국가의 민족적독립과 전체인민의 리해와 로동계급의 리해를 배반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노복으로 더살아보려고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갖자「사회주의」로 자기들의 반사회주의적 활동을 은폐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한 발악적투쟁은 그들이 아무리 흉악한 갖은 술책을 감행한다할지라도 전세계의 정의의무대에서 폭로되고있다。

제二차세계전쟁의종결후 자본주의의 전반적공황은 점점 더심각하여간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적성벽인 쏘베트동맹은 공고강화되고있으며 자본주의적 체계로부터 새국가들이 떨어져나왔으며 식민지국가들에서의 해방투쟁은 나날이 장성되고있다。

이와동시에 자본주의체계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적 공포가 횡행하고있으며 또 새로운 경제적 공황이 점점 더심각하여가는 이때에 제국주의자들은 새전쟁에서 자기의 출구를 찾고있으나 그와반대로 레닌이 가르친길로 나가는 쏘베트동맹에있어서는 제반사회생활과 인민경제각분야에있어서의 급격한 상승을 달성하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으로부터 떨어져나온 새민주주의적국가들은 사회주의적길로 나아가고있다。

우경사회주의자 애틀리와 블룸 모리쏜과 슈마헬

들이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한 저들의 연설은 자기 자신들이 사회주의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는것을 폭로할뿐이다 그렇기때문에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과학적사회주의인 맑쓰—레닌주의외에 다른사회주의가 전혀있을수없다。

이 위대한 과학적리론은 최근 백년동안의 인류사회발전과 우선 쎄•쎄•쎄•르에서의 사회주의의 전세계사적승리로써 확증되었다

그렇기때문에 맑쓰—레닌주의외에는 세계의 어느 국가의 사회적현상을 해석할수도없으며 또 제국주의에있어서의 근로대중을 착취하는 원인과 전쟁과 공황의원인에대하여 완전한 과학적대답을 줄수없다 다만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학설만이 제국주의로부터 발생하는 인류사회의 제반 불행을 청산할수있는 길을 가르치었다 즉 이 길은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그 대신에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길이다。

력사의 교훈은 다만 맑쓰—레닌주의적리론으로 지도하는 인민만이 자기의 행복한생활을 전취할수있다는것을 전세계인민대중에게 말하여주고있다。

우경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기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레닌주의를 반대하여 수십년동안이나 싸워왔다 그러나 이결과는 어떠하였던가? 전세계인민들은 쎄•쎄•쎄•르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레닌주의기치밑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전세계자적승리와 사회주의적사회를 창설하였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우경사회주의자들이 되치는『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기만적 부르조아지의 민주주의적 조건밑에서 독일과 압스트리아 나라들에서는 파시즘이 장성하여 구라파의 전인민들에게 무서운 참상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애틀리와 불룸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는 한그람의 사회주의도없다 역시 까우츠끼와 제二국제당의 기타 도배들의 『사회주의』에도 한그람의 진정한 사회주의가 없었던것과같이 아무런다름이없다。

이 모든 『학설』들은 사회주의적학설을 부르죠아적으로 악화한 가면적 사회주의라는것을 다시금폭로할뿐이다 우경레이보러스트 불락서 압스트리아 이태리 우경사회주의자들의 소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개선』하려는 낡아빠진 예전개량주의적 시도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본주의적 노예로부터 벗어나올수있는 어떠한 전망이든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줄수없으며 도 주지못한다 도리어 그는 자본주의제도의 공고와 미제국주의의 침략적계획에 노복할뿐이다 그렇기때문에 제자본주의국가의 근로대중은 우경사회주의자들을 배반하며 레닌주의의 위대한 학설을 무장한 공산당 대렬에 가입한다 왜 그러냐하면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세계의 피압박인민들에게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여준다 그는 근로대중에게

승리에 대한 신념과 력량을 공고화시키며 승리에대한 제반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준다。

레닌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위한 과학적사회주의리론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씀하였다。

『혁명적로동자들의 새로운 세계사적 풍부한 경험으로 밝혀진 맑쓰주의의 리론은 발생하는 제반 법칙들을 인식할수있도록 우리에게 방조한다。

그는 자본주의적노예제도의 전복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프로레타리아트들에게 자기의 투쟁목적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이미 예정된 길로 신임있게 나아가 승리를 튼튼히 쟁취하며 승리를 확고히 하도록 방조한다』이세계사적 풍부한 경험은 새력사적 환경에서 맑쓰주의를 발전시킨 레닌 쓰딸린의 탁월한 저서에 종합되었다。

쓰련을 선두로한 제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적 진영의형성은 새전쟁방화자들과 대양을 건너온 제국주의가 구라파와 아세아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 견고한 평화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위한 투쟁의 기초위에서 집결된 제반 진보적 민주주의 력량의 단결이다。

자본제국가들에서의 수억만 근로대중은 자본주의적노예화와 파시즘의 재생과 새전쟁의 방화를 반대하여 레닌쓰딸린의 백전백승의 기치 밑에서 싸우고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더 광채로운 승리는 반드시 레닌주의에 있을것이다。

인민교육발전과 전반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에 대하여

남 일

一 머 릿 말

해방이후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교육은 북조선에 이루어진 빛나는 민주건설의 승리적 성과를 기초로하여 일찌기 우리 력사상에 볼수없던 격세적인 발전과 장성을 가져왔다 교육내용의 사상정치적 변혁, 인민을 위한 교육의 량적 장성과 그 속도, 준비된 민족간부를 수많이 양성한 점,

또한 민족문화의 새로운 개화(開花) 발전을 촉진한 점등으로 보아 우리의 민주교육은 타에 그 비류를 찾기 어려울만치 우수하며 三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몇세기에 해당하는 놀라운 비약적 향상을 전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다른 정치 경제 각분야에 있어서와 같어 위대한 쏘련의 진정한 우의적 방조밑에 우리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수상의 올바른 령도를 받들어 전체 인민들이 총궐기하여 민주교육 창건을 위한 애국적 열성을 경주함으로써 쟁취한 것이다 一九四六년 二월八일 김일성동지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성대회에서 진술한 「우리 국가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적 개혁에 적응하여 국민교육을 개조하며 새학교를 건설하며……우리 인민을 민주주의 정신으로 교양시킬 독적으로 민중들사이에 광범한 문화계몽사업을 전개시킬것」에 대한 예견은 오늘날 정확히 실현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三十六년간의 조선 식민지 통치시기에 있어서 조선민족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씨도하였으며(내선일체, 황민화운동으로) 삼천리강토를 지옥으로 만들며(폭압, 빈궁, 문맹, 질병의 질곡속에 얽매여) 三천만인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전대미문의 야만정책을 감행하였었다 그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철저한 식민지노예화교육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에게서 초보적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하였으며 우리민족의 우수한 언어와 문자의 사용을금단하고 조선력사를 의곡하여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간악한 술책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화를 여지없이 락후하게하였다 학령아동의 과반수는 소학교의 문밖에 축출당하였고 근로인민과 녀성은 대부분이 문맹의 비유에 빠졌던것이다。

그 교육내용은 철두철미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적 기도와 지배계급의 리익에 복무하는 놈들의 충복(忠僕)을 만들기에 급급하였으니 극단한 일률적 형식주의 탄압주의로써 교육과 정치의 분리, 생활과 학교와의 분리를 가져오며 학생들에게 과학적 실제적 지식을 주는 대신에 무리한 육체로동과 강제적 교련(敎鍊)을 과하며 학생의 개성(個性)을 사정없이 유린하였다。

레닌서생의 표현을 빌어 「교육과명 그리고 지식은 강탈당하고」 있었으며 「생활밖에 정치와 분리되고 있는 학교라는것은 허위이며 또 위선이다」라고 한 「허위」와 「위선」에 가득찬 극악무쌍의 암흑교육이었다 이와같은 악착한 사실은 영용한 쏘련군대의 결정적 역활로말미암아 조선이 해방된 후 북조선의 모든 민주개혁과 민주주의적 건설의 성과위에 전기한 바와 같이 인민적 교육문화가 개화된 오늘날 몸서리나는 잊혀지지않은 악몽(惡夢)처럼 민족적 증오와 격분으로 회상할수있게 되였다 오늘날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화교육제도를 철저히 소탕하고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새로운 인민교육체계로 개혁하였다 일채의 교육기관을 인민들의 손에 반환함으로써 근로인민을 위시한 전체인민들에게 누구나 다 공부할수있는 가능을 부여하였다。 결과로 일제통치하에 소학교 중학교 기타 총계 一、四九六교에서 불과 九一만명이 공부하였던것이 오늘날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학교 교육 체계에 의한 학교만이 四、二五五교로 장성되어 一、七三七、三五八명의 학생이 민주교육을 받고있다 이밖에 一、四九一교의 성인학교 一六一교의 성인중학교와 속성성인학교 직장 기술학교 통신대학 야간학교등 성인교육 직장교육 통신교육체계에 의한 학교에서 一〇〇만여명이 수학하고있다 한글학교에서는 해방후 三년간에 二、三七七、七三四명의 문맹을 퇴치하였다 이와같은 교육기관에서 누가 교육을 받았으며 또 받고 있는가。

해방직전 평양고등보통학교 학생 九七一명중 로동자와 빈농민의 자제는 한명도 없었고 그 四七%가 상인의 자제이며 나머지는 지주와 자본가 일제의 기관에서 복무하는 자들의 자제였다 평양시

문녀자고등보통학교 학생 六四七명중 로동자의 딸은 단一명이고 빈농민의 딸은 겨우 二명에 지나지않았다 평양의학전문학교 학생三一三명 중 그 六二%는 일본인이 차지하였고 나머지 一一九명이 조선인학생이었는데 그중 三九·六%가 지주 자본가 一二·二%가、상인 二九·三%가 일제에 복무하는 사무원의 자제들이었으며 로동자 빈농의 자제가 단一명이 들어 있을 기적(奇蹟)조차있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기한바와같이 급진적으로 장성된 학교망에서 인민개학(人民皆學)의 철칙아래 교육의 민주화에 노력한 결과 현재 각급학교학생의 가정성분은 다음과 같이 개조 순화되었다 로동자 二五九、○三七명(一五·○%) 빈농 九三三、八七八명(五三·○%) 중농 二四○、四○九명(一四·○%) 사무원 一四○、七七九명 (八·二%) 부농 一三、七二四명(一·四%) 전지주 六、七○三명(○·四%) 상인 七二、二六二명(四·四%) 수공업 八、八八八명(○·五%) 기업가 七、四五三명(○·五%) 자유직업 一九、三六一명(一·一%) 기타 二五、○六七명(一·五%)으로 된다 로동자 빈、중농민 사무원의 기본성분이 전체의 九○·二%를 차지하고 있으니 가히 민주교육의 거대한 승리와 건전성을 표시하고도 남음이있다 지어 성인교육기관 직장교육망 및 통신교육기관에 망라된 학생은 일하면서 배우는 순 근로성분의 학생인것은 누말할필요조차 없다。

一 교육내용의 전반적혁신

북조선의 인민교육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의 도구로부터 해방된후 커다란 질적 변혁을 이룩하였다 일제와 지주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 시키는 강제적 허위교육의 잔재를 숙청하고 부강한、민주주의자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적극 헌신할 진정한 애국자로 길러내는데 모든 힘을 경주하고있다 이를위하여 학생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적 실제적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자각있고 교양있는 사람으로 육성하여 과학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우선 교육내용의 혁신을 기하고저 교과녹 과정안을 개혁하였으니 一九四五년 一二월 민주교육 림사조치요강에 의하여 다음으로 一九四七년 九월 각급학교규정에 의하여 다시 一九四八년 九월에 전면적 개정을 단행하여 민주주의적 교육교양의 쇄신을 기하였던것이다 일제통치하의 교과목 내용과 그 교수·시간수는 례를 국민학교에 든다면 전학년간 一

주일에 일본어 八○시간 소위「수신」一二시간 일본력사 四시간 도합 九六시간으로 이는 전교수시간 一八二시간의 五三%에 해당하는 시간을 미신적인 신화와 일본화 교육에 강제 허비하였으며 과학에 관한 리숫과 시간수는 불과 二二%에 해당하는 一주일간 四○시간이었으며 음악체조기타에 二五%이었다 해방후 인민학교에서는 인눈과 계통에、四二% 과학방면에 三三% 음악 체조등에 二五%의 교수시간을 확보하여 과학적 실제적 지식의 수여에 주력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교육의 질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과목 과정안을 국가적으로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교수요강 또는 강령을 작성하였다 또한 이에 의거하여 우리말로 편찬된 교과서 三四二종 一천九백여만부를 발간 배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놈의 발호하에 신음하는 공화국 남반부의 교과서중에는 일본인의 저작으로된것과 최남선등의 저서를 그대로 가르침으로써 일제적 노예화교육과 봉건적 반몽교육을 계속강화하고있다 그러나 그나마 교과서 기근(饑饉)으로 국민학교용은 소요수의 二○분의一 중학교용은 五○분의一밖에 간행하지못하고있다 소위편수국장 최현배는「강원도 산골학교는 교과서 한권도 못본데가 있다」고 천연스럽게 짖거리고있다。(一九四八년一월二八일과 二월一九일 서울신문에의함)

또한 북조선에있어서는 교수의 내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상적 정치적 교양에 있어서 민주도덕교양에 있어서 또 교수 교양사업의 방법에있어서 선진국가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개선하기위하여 계획적 조직적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며 또 올리고 있다 특히 교양사업에 있어서 국제주의 사상에 안받침된 애국적 교양에 주력하며、조선인민과 쏘련인민과의 영구불변의 친선을 강화하며、세계평화애호인민과의 우호를 두터이하는 진보적 인류사상을 함양하며、「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의 헌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근로애호정신의 교양에 특별한 고려를 돌리고있다。

학생의 학과실력을·향상시키며 과학적 세계관을 발달시키고 학생들의 창발성과 창조성을 길러서 진정한 과학적 생활 지식과 과학적 태도를 양성, 함으로써 오늘 조국이 요구하는 과학지식과 기술로 무장된 인재를 길러내기에 힘쓴 결과 실로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一九四八년 六월—七월에 실시한 국가졸업시험 및 진급시험의 결과 전과목 四계단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학생이 인민학교에 있어서 四二% 초급중학 二三·五% 고급중학 三一% 사법전문 四二·五%를、차지하는 훌

륭한 성과를 거두었던;이다。

三、인민교육의 량적발전

우리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인민교육의 이와같은 질적 변혁은 다음과 같은 량적 발전에 상응하여 너욱 교육적 성과를 비약적으로 확대강화하고있다。해방이후의 조선인민의 교육적 욕구(欲求)는 마치 막혔던 분류(奔流)처럼 비등하였다 륵히 一九四七년도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부흥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교육부분을 계획적으로 초과완수하는 과정에서 그 치열한 교육열은 줄기차게 뻗치어 눈부신 업적을 전취하였다 인민학교에 있어서는 해방전 一면(面) 평균 一·七교밖에 없으므로 입학시험을 치르고 돈과 권세있는자의 자녀만이 기초교육을 받을수있었던것이, 오늘날 다음 제一호표와 같이 一면당 四·一교로 확장되어 어떠한 궁벽한 농、산、림、어촌에도 교육망이 보급되어 근로인민의 자녀가 자유로이 수학할수있게되었다。

제一호표

년도	학교수	학·생 수	학령아동수에 대한 취학률
一九四四	一、三七二	八七七、八九四	五八%
一九四六	二、四八二	一、一八二、七一七	七七%
一九四七	三、〇〇八	一、三四一、〇一八	八九%
一九四八	三、二四五	一、三七八、五三六	九四·三%

앞으로 새二개년 인민경제 발진 계획에 의하여 一九四九년도에 학령아동총수의 九七—九八% 一九五〇년도에 一〇〇%를 취학시키는 의무교육제 실시가 예견되어 이에 대한 만반준비가 튼튼히 이루어져있다。

꼭 같은날 같은시에 해방된 공화국 남반부의 교육사정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매국역적 리승만도당들의 식민지화 망국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일제통치 이상의 황페와 퇴보의 일로를 더듬어 비참한 문화적 락후성을 초래하였다 실례로 그들이 발표한 통계에만 의하여도 서울시내 학령아동총수 六八、三七一명중에서 현재 국민학교에 五五、六五〇명밖에는 수용못한다니 오늘날 서울장안에 一二、六二一명의 미취학 아동을 남기고였다는 엄숙한 사실에는 놀라지않을수없다。(서울신문一九四八、六、一三)이 취학률은 불과 八一·五%로써 전기한바와 같이 북조선에서는 어떠한 궁촌에서도 이와같은 락후한 현상을 찾아볼바이없으며 서울이 이 모양이니 지방 농촌의 락후상을 생각할때 우리 민족문화의 장래를 위하여 통탄을 금할수 없다 이러한현상인데 불구하고 서울시 당국에서는 학교운영자금이라하여 三억六천만원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였고 (이액은 전 북조선의 인민학교

세(稅) 전액보다도 많다) 이외에 월사금 후원회비 학급비 기타의 명목으로 징수하여 근로인민의 취학의 길을 막고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중등교육은 인민학교의 확충에따라 一군(郡) 평균 〇·五교로부터 一군당 八·七교로 가일층 발전되어 다음과 같이 장성되었다。

제二호표

년도	학교수	학생수	학생의증가률
一九四四	五〇	一七、〇三〇	一〇〇%
一九四六	二一七	七〇、三一一	四一三%
一九四七	五九四	二一五、九一四	一、二六八%
一九四八	七七二	二七五、六二七	一、六一九%

이밖에 一九四七년도부터 새로운 인민교육체계에 의하여 특이한 존재로써 발족한 고급중학교는 현재 一四〇교에 四一、三二三명의 학생이 고등 보통교육을 받고있다 중등교육의 이와같은 약진과 충실은 국민의 중견(中堅)의 질을 제고시키는 가장 믿음직한 자래 발전의 담보로 되는것이며 의무교육제의 중등교육까지의 인상을 기하는 복선적 조치인것이다 이에 반하여 남반부의 현상은 중등학교수가 一九四六년도에 三八五교이던것이 一九四七년도에는 三七六교로 줄고 一九四八년도에는 겨우 四二八교로 되는 무원칙한 퇴보 또는 지지한 상태이며 국민학교 졸업생수 一七四、〇四二명에 대하여 중학교 一학년 수용력이 불과 五四、八四〇명으로 그 수용률은 三一·五%인 의연 三대一이상의 좁은문을 이루고있다。(조선경제년보 一九四八년판) 이제 평양특별시와 서울시내의 중학교 이학시험에 나타난 명랑상과 우울상 (좁은문의)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제三호표

시	학교명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서울	경기중학	一、三八二	二〇〇	一四·四%
〃	룡산중학	二、〇九五	二〇〇	九·五%
〃	경기고녀	六五〇	二〇〇	三〇·七%
평양	一중(광성고보)	五六四	五四〇	九七·五%
〃	三중(평고)	三九四	三九四	一〇〇·〇%
〃	三녀중(서문고녀)	四〇〇	三八九	九七·三%

이로써 남조선의 현황은 왜정하의 시험지옥 그대로이며 이 평정한 향학열에 대하여 하등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않은것이 명료하다。

공화국북반부의 학교망의 분포는 특히 근로인민의 취학에 막대한 고려를 돌리어 균점을 기도하고있다 이제 一九四八년모 학교망의 전년도에 대한 도시 농촌별 발전상을 보면—

제四호표

학교별	도시	농촌
인민학교	一〇七%	一〇八%

초급중학	一一七%	一三二%
고급중학	一一二%	二三六%

이와같이 농촌의 발전이 고률이며 토지개혁이후 농촌경리의 발전에 따르는 농촌문화 향상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여준다。

또한 일제의 이지러졌던 교육의 잔재의 하나인 녀성교육의 발전에 특별한 고려를 돌리어 거대한 장성을 가져왔다。

인민학교의 례를 들면

제五호표

년도	남학생	전학생에 대한비률	녀학생	전학생에 대한비률
一九四四	五八九、三六三	六七%	二八八、五三二	三三%
一九四六	七九二、三八二	六七%	三九〇、四二五	三三%
一九四七	七六八、一三〇	五八%	五六二、八六八	四二%
一九四八	七六六、二二七	五四・九%	六三三、三一九	四五・一%

과거 일제통치하에 있어서 조선민족에게 민주적정치사상과 고상한 과학기술의 교육을 금단한 식민지노예화 교육의 편파성과 불구성을 퇴치하기위하여 해방이후과학기술교육 진흥에 제반시책을 다한 결과로 나날이 량적 질적으로 부단한 발전을계속하고 있다 수많은 학교를 개편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교사 설비 실험실습시설의 충실과 교과목과정안 교수요강 및 교과서의 제정간행을 촉진시켰으며 행정적으로기술적으로 관련이 깊은 관계각성(省)에 이관시켰다 또 장학금제도를 창설하여 근로인민의자녀인 전문대학생이 국비로 공부하고있으며 결정서 四四호와 一五七호의 국가적 결정에 의하여 기술전문 및 고등교육의 획기적 개선을 기하는등 강력한시책을 써왔다。현재 一八교의 초급기술학교와 五五교의 기술전문학교가 있는데 그중 전문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미 작년도에 七七四명의 졸업생을 냈으며 앞으로 속속 유능하고 청신한 중급기술자를 우리 인민경제기관에 보낼수있게 될것이다。

제六호표

종별	학교수	학생수
공업전문	一八	六、六八二
철도전문	一	八七四
체신전문	一	四七九
농업전문	一二	五、七七五
의학전문	六	一、八五七
경제전문	四	一、二九三
예술전문	三	三七六
사범전문	一三	一〇、四一五

해방전 북조선에 하나도 없던 대학이 오늘날 우리민족의 자랑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一二 대학이(로어학교까지 합하여)높이 솟았으며 근로인

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따뜻한 국가적 보장밑에 최고 과학기술을 전공하며 민족간부로 자라고있다

제七호표

종별	학교수	학생수
종합대학	一	二、四一六
공업대학	二	二、〇八二
농업대학	一	八〇九
의학대학	三	一、四一四
사범대학	一	六一〇
교원대학	三	一、四〇〇
로어학교	一	二五〇
계	一二	八、九八一

전에 성분별숫자로 게시 한바와같이 이대학생중의 절대다수가 근로인민의 자녀이며 이중의 녀자대학생이 一、一九五명에 달한다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민정조직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선진적인 사상정치수준을 제고시키며 학력의 제고와 창조력의 발전에 힘쓰고있다 왜정하에 있어서는 一九四二년에 단 하나밖에 없던 소위 경성제국대학에는 일본인학생이 四二二명인데 조선인학생이 三六五명밖에(반수도못됨)없었으며 그중에 녀자는 단四명이었다。현재 남조선의 고등교육은 전연 파멸마비된 상태에 빠지어 대학의 폐쇄 휴교가 속출하며 진보적 교수 학생은 축출당하고 학교모리배와 불량테로배의 조량에 내맡겨지고있다 학원의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투쟁한 서울대학학생들은 약五천명이 퇴학당했으며 또 재원 四二九명중 三八〇명의 교수와 강사가 추방당하였다。

북반부에 있어서는 이밖에 야간대학과 통신대학에서 수많은 씩씩한 젊은이들이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애국적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직장을 고수하면서 고도의 과학기술교육을 받고있으며 직장기술학교와 직장전문학교 또는 단기양성소에서 가장 힘차게 고도의 기술교육이 실천되고 있다。

성인교육체계에 의한 수많은 각급 성인학교에서는 일제에서 물려받은 무식과 천식(淺識)을 일소하고 공화국 공민다운 영예를 지니기위한 문맹퇴치사업과 성인재교육사업이 치렬하게 전개되고있다 해방이후의 문맹퇴치실적이 一九四六년도에 三二만명 一九四七년도에 八四八、四六五명 一九四八년도에 一、二〇九、二六九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북반부에서 한사람의 문맹도 남기지않을것을 목표로 방금 최후돌격운동을 전개하여 一四二、七四二명을 한글학교에 취학시키고있다。「한사람도 남김없이」문맹을 퇴치하는 문화투쟁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세기적 승리는 앞으로 의무교육제 실시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신성을 갖게한다。

학령전 아동교육에 대한 교육적 고려의 성과는 현재 유치반 六五一개소에 三四、七八三명의 六세

아동을 수용하고있으며 八九개소의 유치원에서 五、四○五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一六개소의 국립애육원에 一、三二○명의 고아를 수용하여, 학교교육 또는 보육을 받게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우리공화국의 북반부에서는 인민정권의 올바른 시책밑에 이미 근로인민의 자녀에게 자유로운 취학을 보장하는 튼튼한 교육적 조건이 이루어졌으며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와같은 기반을 닦기까지에 북조선인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치렬한 투쟁은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해방후 三년동안에 새로이 인민의 손으로 二、四九六학교 八、○九九교실의 교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으며 특히 一九四八년도 신학년 준비사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거대한 물질적 토대를 축성하여놓았다。

또한 학생을 옳게 교육교양할수있는 교육간부의 양성과 현직교원의 재교양사업에 대하여는 해방직후부터 두터운 관심을 돌리어 사범교육, 기관을강화발전시켰으며 특히 새로운 선진적 교육리론과 기술로 무장한 인민학교교원 一一、○七九명과 중등교원 六、二八四명 고급교원 一、一六○명을 각각 양성배치하였고 통신교육망에 수많은 교원을 입학시켜 그자격향상을 기도하며 현직교원들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교양하여 급속한 시일내에 인민학교교원을 사범전문졸업정도로 초급중학교원을 전원교원대학졸업정도로 고급중학 및 전문학교 전체교원을 사범대학졸업정도로 인상할것을 목표로 전진하고있다。

기타 교수요강 교과서편찬간행 학용품 교편놀 특히 실험기구 운동기구 피복 신발의 계획생산등 확고한 기반을 닦았고, 또는 닦아나가고 있는것은 해방직후부터 의무교육실시를 지향해온 북조선인민들의 빛나는 승리이며 북조선에 이룩된 민주건설의 승리적서위이며 초등의무교육 실시의 가능을 담보하는 튼튼한 조건들을 증시하는것이다。

四、의무교육은 조선인민의 력사적숙망

이상의 고찰로써 우리공화국 나반부의 교육면의 암흑상, 파멸상에 대비하여 북반부에 있어서는 인민교육의 비약적 발전이 능히 의무교육제를 실시할수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미 축성된 충분한 토대,에 기초하여 자신성을 갖고 계획적으로 이 거족적 사업을 완수할수 있다는 명료한 전망을 가질수있게 된다 그러면 이와같은 교육적 토대를 축성하기까지에 이른 의두교육제 실시에 대한 시책들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의무교육제실시는 악독한 일제의 통치하에서 태양을 잃은 암흑과 기아와 굴욕의 생활속에서도

우리민족의 갱생과 조국의 광복을 위한 민족적 갈망이었으며 세기적 숙원이었다。 야수같은 일제의 탄압하에서도 조선의 민족문화를 수호하며 전인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전반적 의무제 무상교육의실시를 전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었다。

특히 해방전 만주지대에 있어서 김일성장군의 반일유격대가 일본제국주의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또한 一九三五년에 반일 력량을 총집결시키기 위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인「재만조선인 조국광복회」를 조직할때에 있어서 十대강령중의 제八강령으로「노예동화교육의 철폐 강제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이다。」라고 내세워 우리민족의 세기적 숙망을 달성할것을 명철하게 예견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쏘련군대의 승리로 우리조국이 해방을 얻은 그날부터 다시말하면 북조선에서 모든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된 그날부터 이여명한 민-적 쓸로강은 구체적으로 실시하려는 단계에 들어섰다 벌써 一九四六년 一월 二二일에 교육국에서는「전반적 초등교육 실시 계획안 작성에 관하여」조사와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며 一九四六년 三월 김일성장군이 발표한 二○개정강에 다음과같이 명백히 제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시책을 다하여왔다。

「一六、전반적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광범하게 국가경영안 소 중 전문대학교를 확장할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의한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것」

一九四六년 一二월 一九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一三三호와 一九四七년 四월八일 결정제二五호로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인민교육체계를 개혁확립하여 일제의 낡은 식민지적 교육체계를 소탕하고 북조선인민교육의 무한한 민주주의적 발전의 골격을 이루었으며 一九四七년과 一九四八년의 량년간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초과완수함으로써 전기한바와같이 질적 변혁과 량적발전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一九四八년 九월八일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공화국 헌법이 채택실시됨으로써 그一八조에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있다。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써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이 헌법에 기초하여 김일성수상께서 발표한 우리공화국 중앙정부 정강에는 「一九五○년도에는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것이며 미취학아동을 학교에 최대한도로 수용하고 초중고중의 지학률을 향상시키기위하여 학교망을 대대

적으로 완수할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우리민족의 다년간의 숙망이던 의무교육제 실시가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수상을 수반으로하는 통일적 중앙정부에 의하여 결실되게되었으니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수없다 해방직후로부터 五년이라는 짧막한 기간을 경과하여 또 김일성수상께서 재만조선인 조국광복회의 一○대강령에 규정되었던 때로부터 一五년후에 이영예스러운 조선인민의 력사적 숙망을 달성하게된것이다。

이에 一九四八년 一二월 一六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 제一一차회의에서는 「一九五○년도부터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를 위한 一九四九년도의 준비사업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이거족적 사업의 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김일성수상께서는 새해 벽두에 그의 신년사에서 「一九五○년도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할 제반준비사업들을 완수하여야하며 인민학교와 중학교들을 많이 신축하며 사범대학 교원대학 사범전문 및 강습들을 통하여 각급학교의 교원들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여야하겠읍니다」라고 호소하였다 이결정과 호소를 높이받든 우리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총궐기하여 이영예스러운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기위하여 학교건설을 위한 애국미헌납운동을 일찌기 불수없던 광범한 규모로 열렬히 전개하고 있다。

五、의무교육실시의 의의

우리공화국 중앙정부의 진보적 교육시책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제는 전 공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하게부여한다 가정의 생활형편에는 전혀 관계 없이 또한 남녀간의 불평등이 없이 모든 인민들이 취학할 가능성을 얻게되었다 모든 공민은 오직 그가 가지고있는 재능여하에 따라 낮은 교육정도로부터 높은 정도에까지 진학할수있게되었다 의무교육은 다만 량적으로 학령아동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一○○%취학시킴으로써 곧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부르죠아국가군(群)에서도 흔히 의무교육 실시를 떠들어대면서 인민들을 기만하고있다 문화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자랑하는 미국본국내에 수다한 미취학아동이 실존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것은 미국의 교육비예산이 전체예산의 불과 一·五%에 불과하며 군사비예산의 몇十분지一에 지나지않는데서도 여실히 알수있다(영국도 三%에 불과하다 오직다 쏘련만이 一四%를 초과하며 어떤 가맹공화국에서는 三○—三五%) 또한 그들의 의도는 음흉한 잔인성을 띤것으로써 우리들이 실지 체험한 실례에 비추어본다면 일본제국주의가 패망에 립박한 무렵 一九四四년부터 조선에도 소위 의무교육제의 실시를 단행한다고 횡설수설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우리민족의 우수한 아들딸을 놈들의 침략전쟁의 육탄(肉彈)으로 병창공(兵廠工)으로 대용하자는 잔인누쌍한 도살교육을 말하는것이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실시하려는 민주주의적 의무교육은 이러한 허위성·잔인성과는 본질적으로 천양지차가 있다 진실로 학령아동의 전원을 그 빈부 남녀별 지능정도 가정여하를 불문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一○○% 취학시키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一○○%달성함으로써 매개공민을 민주주의적으로 완전히 교육하는것을 의미한다 즉 조국의완전 통일을 보장하며 문명하고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위하여 전체인민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민주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유능한 준비된 민족간부를 일층 대중적으로 양성하는것을 지표로한다 이와같은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국가적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첫째로 해방이후 교육문화발전의 빛니는 총화로 되며 민주교육의 양적 질적발전을 촉진하는 획기적 교육시책이며 우리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교육에 대한 공민의 권리를 전체 공민에게 부여하는 국가적 조치인것이다 전체인민을 민주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함으로써 자각적 헌신적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앞으로 발전하는 인민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산업기술자를 비롯한 기술인재와 민족간부의 기본부대를 양성하며 그인재적원천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는 우리조국의 통일자주독립의 문화적 기지를 공고하는것으로 된다 조선의 문화는 전인민의 가지는 문화의 질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치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한없이 또한 광범히 제고시킴으로써 조선문화의 전면적 향상을 가져오게하는 민주통일조선의 문화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것이다 문화권외에 서게될 인민을 문화의 참가자가 되게하며 더 나아가 문화의 창조자가 되게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다 一九三○년 쏘련 공산당 제一六차당대회에서 쓰딸린대원수는 교육문화 발전에 대하여 「이제 주요한것은 초등교육이의무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내가 주요한 것이라고말하는것은 이와같은 전이(轉移)는 문화혁명사업에있어서의 결정적인 일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중의 문화적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실로 문화적 혁명기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의무교육제 실시는 조선의 문화혁명을 가져오는 중대한 전기를이루는것이며 조선문화의 식민지적 봉건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고 민족문

화의 급진적 향상에 결정적 계기로 되는 것이다。

셋째로 이는 우리공화국의 민주역량을 다시한번 시위하는것이며 이 거족적사업을 완수함으로써 그 승리를 통하여 전체인민들이 더한층 공화국정부와 김일성수상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조국의 완전통일을 촉진시키며 투쟁력량을 더욱 강화할것이다。

그와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욕을 더욱 제고시키는것이며 그와반대로 미제국주의와 그주구인 매국역적 리승만도당들의 망국적 기도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것이며 놈들의 죄악상을 뚜렷이 현실적으로 폭로하는것이다。

넷째로 우리조국이 세계민주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 진출하여 선진국가 쏘련을 비롯한 제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외교 및 경제관계를 설정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전진하며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 엄숙한 력사적 계단에 있어서 전체인민들을 특히 민주교육 창건의 중책을 지닌 교육자 교육행정일군 및 가정에 있어서의 교양자로서의 부형 모자들을 서진리론과 과학지식으로 무장시키며 교육의 질적 변혁을 보편화하고 국민의 의식개변을 완수하는 사업에 총궐기시키는것은 민주교육의 무한한 발전과 완전통일을 촉진시키는 중대한 모멘트로 된다 이리하여 전반적 초등 의무교육실시는 조국과 인민이 절실히 요청하는 전민족적 중대과업이며 이미 구축한 교육적토대위에서 능히실시할수있는 가능을 담보하는 국가적 요구로 제기되는것이다。

六 당원들의 과업

이상과 같은 정치적 중대의의를 가진 초등의무교육제를 전반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당단체들과 매개당원들은 전체애국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조선의 문화혁명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교육 준비사업의 새승리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살리어 성과있는 사업들을 조직 전개하여야할것이다。

첫째로 계획수립과 검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령아동조사협조사업의 정확과 분류 집계하는 통계사업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하겠다 이를위하여 통계사업에 경험있는 동무들을 동원 배치하여 조사원의 해설공작과 조사의 정확 그리고 조사후의 통계사업을 책임적으로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할것이며 기유통계와의 대비 및 통계상에 나타난 숫자와 현황과를 대비하여 분석 연구하는 사업까지 완료하여야하겠다 그리고 학령아동조사의 주대의의를 전체인민들에게 침투시키며 조사원 및 통계원의 기술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차후로 매년 二회에 걸쳐 실시할 학령아동 조사사업과 그 뒷처리

사업을 정확 원활히 할수있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둘째로 정확한 학령아동수와 그년도별 증가정형을 고찰하며 교육적 견지와 그지방의 문화적 발전조건과 지리적조건을 고려하여 학교구역을 적절히 재배정(再配定)하는 사업을 보장하여야하겠다 이사업 수행의 정확여부는 그지방의 문화적 발전에 지대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만치 국가적 인민적 견지에서 엄밀히 집행하여야할것이다 지방인민의 요청을 충분히 청취하는것은 좋으나 지방활거의 리기적 조치에 기울여지지않도록 엄격히 경계하여 이사업의 적정(適正)을 기하여야한다。

셋째로 학교건축에대한 일정한 국가적 규격(規格)을 설정하며 기본설계도를 작성하여 학교건축에 있어서의 비과학성과 일제잔재를 완전히 숙청하여야하겠다 학교건축의 규격은 무엇보다도 교육학적 리론과 학교위생학과 건축기술면과 현지의 기후(氣候)적 지형적 립지조건에 적합하도록 깊은 연구와 엄밀한 검토위에 작성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건축기술자 기타 이에 연구가 깊은 당원들의 자진적 연구와 적극적 성원이 있기를 요청한다 령하 二十도이하의 혹한지방에서 일본식의 불면 날아날 지경의 최경구조건물에 난로를 한대피워놓고 신발벗기를 강요하며 마루와 창과 벽짬으로 찬바람이 그냥 들어오는것을 방관만하고 있는것은 가장 랭혹한 비교육적 태도가 아닐수없다 치운지방에는 그곳에 적합하도록 난로의 불완전한 설비대신에 뻬치카를 설치하며 (스팀은 못놓더라도) 二중창(二重窓)二중마루를 고려할것이며 신발신고 들어가도록 교실구조를 고쳐야할것이다 또한 규격화한다고하여 건축자료의 지방적 원천과 수송관계를 고려하지않고 랑림산맥 중복에 소재하는 학교를 쎄멘 콩크리트조로할필요는 없을것이다 금후로는 과거의 학교건축사업과 같이 필요에 응한 림시적 무계획적 영조(營造)를 타파하고 반드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어느 것이나)은 사전에 허가 등록을 하고 준공후에는 반드시 교육적 위생적 건축기술적 국가검열을 맡은 후에 우리후대의 보배인 학생을 수용할것이며 이렇게함으로써 인민들의, 정성어린 금품을 보람있게 쓸수있을것이요 또한 인민정권기관의 위신을 높일수있을것이다。

책상 걸상 칠판등 학교비품도 이것을 국가적으로 규격화하여 계획 생산을 기하여야할것은 물론이며 종전과같이 각지방 임의대로 제작함을 엄금하도록 보장하여야할것이다。

넷째로 ·학구결정 학교규격의 제정을 기초로하여 학교건축계획을 더욱 세밀히 재검토할것이며 이에따로는 건축자재확보와 그 수송을 제때에 보장하여

야하겠다. 이 거족적 숙망인 준비사업의 성패는 이 건축자재문제의 해결여하에 크게 달렸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당단체들과 매개당원들—특히 건재생산 건재의 배급수송의 기관에 복무하는 당원들의 헌신적 협조투쟁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또한 지방적 자재원천과 유휴자재의 활용 또는 목재의 자가생산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중앙에만 의존하는 결점들을 퇴치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로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들의 대량적 양성이 요구되며 현직 교원들의 철저한 재교양사업이 긴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때문에 각급당단체들에서는 군중속에 묻혀있는 청년한 인재들과 교육경험자를 교원양성기관에 수많이 취학시키도록 보장할것이며 특히 중등지식이상을 소유하는 가정녀성들을 광범히 동원하는 사업에 당적 협조를 가강히 하여야하겠다 또한 교원들의 이동이 극히 빈번하며 동요하고있는 교원층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당적 주의를 돌리어 그 고착화를 위한 대책을 백방으로 강구하며 그 재교양에 만전을 다하도록 보장할것이며 九二호내각결정에 의하여 인민교원들의 사회적 물질적 대우를 향상하는 시책이 반드시 있었야할것은 물론이다。

여섯째로 교과서 편찬간행 실험기구 교편놓 운동기구 학용품 피복 신발등의 생산 및 배급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적극노력하여야하겠다 이 일련의 교육자재의 원활한 공급없이 교육의 질적 제고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의무교육제의 완전 실시는 곤난에 봉착한다 특히 관계각당원동무들의 헌신적인 협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특히 교과서의 내용정리와 원가저하 및 실험기구와 학용품 피복 신발의 생산 추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일곱째로 이상과 같은 거대한 사업들은 전체인민들의 자발적인 교육열성을 일층앙양시켜 자발적 총참가 총궐기에 의하여서만 완수할수 있는것인바 우리당은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력사적 의의와 국가적 중대성을 군중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키는 선전해설공작을 광범히 또한 강력히 조직전개하는데 막대한 고려를 경주하여야할것이다 특히 학교 신중축을 하기위한 애국미헌납운동이 북조선 전지역 방방곡곡에서 열렬히 일어나도록 각종 보도기관 선전망을 총동원하여 군중속에 광범한 선전선동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활과 군중단체들의 적극적인 발동을 조직하여야한다。

인민들의 자발적헌성에 의하여 거출된애국미 기타물자는 반드시 그지방의 학교건설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할것이며 수납된 금품의 처리는 교육성령 제二호 제一六조 실행세칙에 의하여 국가

재정기관에서 엄정히 처리되어야하며 때때로 인민들앞에서 그들의 검열을 받도록 보고 또는 정탐의 조직을 하여야한다。

여덟째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 준비를 위한 이상의 제반사업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조직하기위하여 결정된 각급준비위원회들과 학교건설위원회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도록 각급당단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방조가 있어야할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제반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하게 추진시키기위하여서는 일상적으로되는 검열지도사업들이 반드시 실시되어야한다 一九四八년도 신학년도 준비사업의 경험이 이사업의 강력한 집행을 절실히 요구한다 그러므로 각급당단체들에서는 학령아동조사 학구결정 건축자재 확보 수송 처리 교원양성 애국미등 인민들의 재물의 처리등 제반사업을 적극 협조하여야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민족의 세기적숙망이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一九四九년도 준비사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도록 적극 보장할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를 높이들고 구국투쟁에 총궐기한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

김 광 일

一九四八년 八월二十五일에 실시된 남북조선인민들의 통일적 민주주의 선거에 의하여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최고립법기관인 조선최고인민회의와 통일적 중앙정부를 가지게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들은 진정한 인민의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되였다。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들은 이 통일적 총선거에 있어서 전유권자의 절대적인 다수가 참가하였다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매국노들의 살륙、탄압、위협、기만을 뚫고 남조선인민들은 그 유권자의 七七・五%가 참가하였고 북조선에 있어서는 세계선진국가들에서도 극히 드물게보는 전유권자의 九九・九七%가 참가하였다。

이와같은 남북조선인민들의 절대다수 참가하에서 진행된 통일선거의 결과로써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한 국가이며 이 국가가 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집중한것은 기정의 사실인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위대한 모든 민주주의개혁들을 자기의 손으로 완수하고 모든 민주주의적 건설들을 불타는 애국심으로 진행시키면서 공화국의 튼튼한 민주주의적기지를 닦아놓고있는 북조선인민들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강과 시책밑에 조국창건의 대사업에 헌신하고 있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뿐만아니라 미제국주의자와 그주구 리승만 도당들의 경찰테로제도하에서 온갖 학살과 온갖 기만을 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도 우리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공화국헌법을 남조선에서도 실시하고 공화국중앙정부의 정강을 남조선에도 실현시키기위하여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적통치로부터 해방된후 새로운 침략자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의 망국적반동정책을 반대하여 영웅적 구국투쟁들을 계속전개하여왔다 一九四六년 十월인민항쟁을 위시하여 三・二二총파업、二차에걸친 쏘미공동위원회의 사업을 성공시키기위한 투쟁들、二・七구국투쟁 및 그후 각처에서 일어난 단선등록반대투쟁 五월十일 단선반대구국투쟁、통일선거를 위하여 진행한 투쟁 등등 실로 헤아리기에 곤난할만큼 수많은 투쟁들을 대중적으로 또는 용감하게 전개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모든 투쟁에서 단결이 더욱 굳어지고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주의사상이 튼튼히 뿌리잡힌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후에도 자기들의 애국적투쟁을 조금도 쉬지아니할뿐아니라 공화국의 기빨밑에서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의 쟁취를 위하여 더욱 치렬하고 더욱 용맹하게 자기의 애국적투쟁을 진전시키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은 리승만을 괴수로하는 친일과 민족반역자 반동분자들의 매국적반동정권을 하도 분쇄치않고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이 완성될수없다는것을 분명히알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완전한 철퇴가 수행되지 않고는 조국의 남반부는 미제국주의자의 「토ー치가에서 또는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적 시장에서 구할수없다는것을 명백히 알고있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은 리승만 매국괴뢰정부와 그 장전들이 자기들의 머리위에 새로운 식민지적노예의 멍에를 내려씌워 민족산업을 파괴하고 농업을 황폐케하며、민족문화를 말살시키려는것을 확실히알고있다 만약 미국인들의 정책과 그 주구들의 괴뢰정권을 무찌르지않고는 조국을 새로운 위기에서 구출하지못할뿐만아니라 자기들의 생활이 총파멸의 구렁에서 벗어나지못할것을 분명히 알고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기의 손으로 건설하는데 남조선인민들은 중요한、역활을 놀뿐만아니라 이 기빨을 높이들고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의 온갖 망국적음모를 배격하여 영웅적인 구국투쟁에 궐기하고 있는것이다。

실로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에의하여 새로운 학살과 탄압이 끊임없이 감행되며 인민에대한 대중적학살과 탄압을위한 악법들과「결의」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만들어내어지고있다 이러한 새로운 학살과 탄압이 나올때마다 더욱 고

도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투쟁방법으로써 인민들은 원쑤들에게 거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새로운 전술들이 발전되며 높은 애국심이 발휘된다 젊은 근로청년들이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적수공권으로써 원쑤들의 무장을 탈취하며 무력항쟁을 조직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용감한 아들딸들은 수많은곳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고있으며 인민들속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강과 정책을 선전하고있다 전인민들의 대중적투쟁들은 최근 시위의 형태로서 끊임없이계속되고 원쑤의 아성에서 공화국기빨이 휘날리고있다。

삐라만 뿌려도 총살하고 오후六시가되면 출입을 엄금하는 혹독한 계엄하에서도 대중적투쟁은 더욱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루차에걸친 대중적검거는 수만十천의 애국자들을 감옥속에 집어넣었으되 이러한 반동들의 탄압은 조금도 인민들의 투쟁심을 약화시키지못할뿐더러 인민의 투쟁력량은 나날이 확대강화 되고있다。

이제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의 망국적 식민지화정책을 반대하여 또한 공화국의 국토완정과 독립완성을 위하여 얼마나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가를 보기로하자!

一、남조선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에대하여

주지하는바와같이 남조선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은 二·七구국항쟁이후 각처에서 극히 소수의 용사들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二·七항쟁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원쑤들의 학살과 체포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 대부분은 인민들속에서 비합법적 지하투쟁을 계속 하게되었고 그 소수의 일부분이 무장적유격투쟁으로 나가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유격투쟁은 아직 현저한 자리를 차지할수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의 용감한 항쟁에도 불구하고 五월十일 단독선거가 원쑤들에의하여 결정적으로 강행되게되매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파탄시키기위하여 더욱 각종각양의 투쟁방법을 생각하게되었다 남조선에있어서도 원쑤들의 학살과 탄압이 가장 가렬하고 잔혹한 제주도인민들은 자기들이 처하여있는 테로환경에서 五·十단선을 분쇄하는데는 다른 투쟁방법보다 무장적투쟁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가장 정당할것으로 생각하였었다 여기에서 제주도인민들은 무장투쟁에 단호하게 일어났다 四월三일오전二시 제주도인민들이 일시에 제주도내 十三경찰지서를 무장으로써 습격한것은 실로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돌진시키는데 결정적인단계를 만들었던것이다 그후 이 무장부대는 한라산을 중심하여 새로이 새로이 모여드

는 수천명의 경찰 및 국방경비대를 [illegible]하여, 九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될뿐만아니라 날이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간다 절해고도에서 일어난 이 무장투쟁은 원쑤들에의하여 강행된 五·十단선을 가장 효과있게 가장 성공적으로 파탄시키어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매국정권이 조작된후 수개월이 못되는동안 매국노들은 자기의 상전 미국인들과 여러가지 매국적 조약을 체결하였다「한미군사협정」—「재산 및 재정에관한 한미협정」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계속주둔하는것을 소위 조약으로 보장하며 합법화시키었고 남조선인민들을 영구히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적노예로 만들게하였었다 이위에 매국노들은 미국인들의 일본제국주의재생을 위하여 결정적인 조건이되는 소위「미곡매상안」을 통과시키었다 이러하는한편 매국노들은 저들의 경찰테로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들에대한 학살 탄압을 더욱더욱 강화하였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계속되는 거 제주도형제들의 유격전술이 전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있어 자기들의 환경에 적합되는 방법의 하나인것을 날이갈수록 더욱깊이 인식하게되었다。

여기에서 남조선본토에서도 제주도식 유격전투가 조직되었으며 이것이 곧 려수폭동사변을 계기해서 진전된 유명한 지이산주변지역의 유격전투인것이다。

1、려수폭동사변과 그후 유격전투

려수폭동사변은 十월二十일 려수주둔 소위국군제十四련대병사들의 폭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려수는 제주도와 가장 단거리에 처하여있는 소위 국군근거지의 하나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려수에있는 소위 국방군에게는 제주도애국인민 특히 제주도유격부대를「토벌」하기위한 준비가되고 이것을 위하여 그병력이 확충되었으며 모든 무기가 증강되었었다。

十월十九일 려수、소위 국군제十四련대의 一부 병사들에게는 예기하였던 제주도인민토벌에대한 동원령이 내리고 二十일새벽 제주도로 향하여 출발할것이 강요되었다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강정책을 남조선에서도 실시하기위하여 투쟁하는 제주도인민들을 학살시킬목적으로 강요되는 이 명령은 소위 국군제十四련대병사들의 반항심을 치렬하게 조발하였다 十四련대의 병사들은 드디어 十월二十일새벽 매국노들의 이 반동적명령을 반대하고 일어섰다 병사들이 일어선것을 알게된 려수전인민들은 일제히 호응하여 궐기하였었다。

二十일새벽 경찰서를 위시하여 모든 행정 및 주요시설은 병사와 인민들의 손에 장악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빨은 창공높이 휘날리게되었다 二十일오전 려수인민들에대한 무장은 광범하게 실

시되였다 폭동에 참가한 병사의 수는 약三천명이었었고 이에 무장한 인민을합하면 그 무장세력이 五、六천명에 달하였었다 폭동한 병사와 무장한 인민들의 一부는 二十일새벽 순천을향하여 기차로 째 진격하고 약五백명의 폭동병사를 포함한 다른 一부는 려수에남아 정치공작을 담당하였었다 二十일부터 二十六일까지 려수는 완전히 인민들의 손에 수복되었었다 이 七일간의 려수는 실로 남조선 전인민들의 지향과 소원을 여실히 반영하였었다 二十일새벽 려수 전시가는 벌써 가가호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빨이 날리게 되었다。

二十일오후一시 려수읍 광장에서는 려수인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인민대회는 남조선 반동신문에서도 려수가 생긴후 처음되는 거대한수의 인민들로 조직되었다고하며 약四만이넘는 인민들이 참가하였다한다 이대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빨로써 장식되고 대회는 열성적인 인민들의 환호로 진행되었다한다。

대회는 六개의 조항을 결의한바

첫째 려수의 모든 정권은 려수인민위원회에서 장악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를 절대수호한다

셋째 리승만괴뢰단독정권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넷째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

다섯째 매국정권의 일체 법령을 완전폐기한다

여섯째 친일악질경찰과 및 반동악질분자 들을 철저히 숙청한다

의 등등이었었다 인민대회는 즉시 시가시위로 들어갔다 이 시위행진은 려수시가의 끝에서 끝까지 련속한바 려수인민들의 조국애가 인민의 대렬속에서 끓어넘치었다。

十월二十一일부터 려수인민위원회는 완전히 자기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로동당려수군위원회를 비롯하여 전평려수지방평의회 철도종업원려수평의회 려수농민위원회 민애청려수군위원회 녀맹려수위원회 학동려수위원회등등이 인민들앞에 나서서 용감하게 자기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매국노의 접단인 한민당을 위시하여 독촉 대청 족청 서청등 테로단체의 악질간부들과 친일과 악질경찰들은 체포되었다。 이자들은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심사하에서 그 수괴만이 처단되었다 이 처단된자중에는 경찰서장과 한민당지부장이요 十八여의 부자인 매국노

김영준을 포함하여 그수 불과 十수인이였었다 식량으로서 백미三홉씩배급되기 시작하였고 민족반역자의 소유공장과 적산가옥들은 종업원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로동자의 손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미곡매상은 전폐한다는 선언이 발표되자 농민들의 환호는 더욱 크게되었다 이것이 二十三일까지 려수안민들의 활동이였었다。

十월二十四일에 이르러 매국정권은 려수북방 률촌면으로부터 기계화부대를 선두로하여 맹렬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상기한바와같이 려수에는 폭동병사로서 약五백명밖에없었다 려수는 로동자 농민학생 기타인민들로써 수비되었었다 二十四일 전투에 경찰과 소위 국군련합토벌대는 우수한 장비와 몇배되는 병력에도 불구하고 二백七十여명의 사자를 내고 격퇴되었었다 十월二十五일 적은 드디어 미국인장교의 지휘하에 륙상부대와 및 이와 호응하여 소위 해상부대의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공중으로부터 비행기의 기총소사가 뎡렬하였다 인민들은 이 근대무기의 소위 립체작전을 다만 일본식 장총으로 대항하였다。

려수시가는 적의 함포사격과 기총소사에의하여 염염히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수비는 약화되지아니하였다 적의 장갑자동차가 一차 시내까지 돌입하였으나 격퇴되고 말았었다 그러나 인민들에게는 이 량일의 전투에 탄환이 거의 떨어졌다 여게서 인민들은 새로 증가되는 적의 공격을 막을수없게되었다 十월二十六일 인민들의 주력은 一부 광양방면으로 철퇴하고 다른一부는 돌산도로들어갔다。

이 주력이 퇴각함을 옹호하기위하여 소수의 청년부대가 려수시가에서 수十배의 적과 놈들의 맹렬한 화력을 막게되었다。

그당일 려수공격에 참가한 적의 륙상공격대는 「국군」만하더라도 제十二련대 제四련대 제三련대 제五련대의 련합부대로서 장갑자동차를 선두로 시가에 돌입하였으나 수비의 임을 맡은 청년부대는 최후一인까지 최후의一탄까지 이원쑤들을향하여 용감한 영웅적투쟁을 강행하였다。

반동신문기자들이 보도한바에 의하여도 인민무장군 속에서는 한사람의 투항자도 아니나고 최후의 一인까지 용감하게 원쑤들과 싸웠다한다 二十六일 드디어 려수시가는 적의 경찰과 소위국군의 련합부대에게 빼앗기었다。

간단히 이상이 려수를 중심한 인민들의 투쟁과정이다 려수누장인민들의 이러한 백절불굴의 투쟁심은 실로 남조선 전인민들의 의사와 기개를 대표한것이다 오늘날 이 려수무장인민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빨을 굳게지키어 매국노들과

들에게 피붓게되었다 놈들은 려수 순천에 들어서자 남녀 로소를 가릴것없이 인민들에대한 잔인하고 참혹한 학살을 시행하였다 반동테로단의 손가락질한번에 인민들의 생명은 여지없이 빼앗기었다 수만명의 인민들을 체포하여 벌거벗겨 학교마당에 몰아넣고 닥치는대로 잡아내어 총살하였다 실로 무고한 인민들이 놈들의 손에 수천명이 쓰러졌다 그후 놈들은 계속하여 소위군법회의를 광주 순천 대전등지에 설치하고 다시 수천명의 사형자를 냈고 계속하여내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압무도한 만행은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량을 약하게만들수는 없는것이다 유격대에대한 인민들의지지는 더욱강화되고 경찰과 토벌군에대한 증오는 더욱 증가된다 이것은 반동놈들 자신의 고백에서 충분히 알수있다 국회의원 배헌(裵憲)은 十월二十七일 소위국회에서 『전남지방에서는 일반민심이 공포속에있어 토벌대의 밥 한그릇도 지어줄것을 거절하는 형편이라』하였고 十一월二일 소위 지금 국회조사위원의 一인 한민당원 한자는 『금번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놀랜것은 우리가 가장신뢰했던 사람들이 반도(叛徒)에 가담했다는 것이다』이 하나의 사실로써도 인민들이 인민유격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반동토벌대를 사갈(蛇蝎)같이 미워함을알수있다 또한 인민들은 유격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반동토벌대에게는 정보를 주지아니할뿐아니라 그작전을 불리하게하기위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고있다 十一월十일 김지회부대가 남원부락동리에있다는 정보가 三련대 함소령이란자에게 들어왔다 함은 즉시 자기의부대로써 그곳을 공격하였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는 빈주먹쥐고 돌아오던중 김지회부대가 령원사(지이산속)에있다하여 三부대를 동원하여 령원사를 포위하였으나 역시 허보인것이 판명되였다 이와같은 례는 종종있는것이다 그러면 왜 인민들이 유격대를 이렇게 지지하는가 이것은 다름아닌 유격대의 전투목적이 실로 조국의 통일완성과 독립완수에 있는까닭이다 애국적이며 인민의리익에 一치되는까닭이다 곧 유격투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예로운 기빨아래에서·진행되는 인민들의 구국항쟁의 순수한 一부분인까닭이다。

·이와같이 근거를 확립한 지이산중심의 유격대는 그후·자기활동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최근정세에의하면 지이산주변 함양 하동 순천 구례 남원등에서 十五개경찰지서를 완전폐쇄케하고 자기의 유격전구를 단양의一부에까지 확대하였다고한다 려수 라주 고흥 보성 광양 벌교 장성등지에는 봉오리마다 유격대가 점거하여 그세력이 증대되고 있다고한다 전남지역은 전면적으로 농촌자위대가

그상전인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던 그러한 영웅심과 조국애를 남조선 전체애국적인민들은 그들의 가슴속에 가지고있으며 도처에서 이러한 애국열과 영웅심이 폭발되고있다 려수시가가 원쑤의손에 빼앗겼다할찌라도 이것은 려수인민들의 이 애국열과 영웅심을 빼앗은것이 아니요 이 려수인민들의 영웅성은 전체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쟁사와 미제국주의와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분격심과 증오심과 결의를 북돋아주는 불길로 되었던것이다。

려수폭동은 물론 려수를 영구히 장악함에 그목적이 있은것이 아닌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다 폭동한 병사들이나 무장한 인민들은 남조선매국정권과 장기적이요 조직적인 항쟁을 전개하기위하여 지이산을 중심하여 광범한 유격전구를 창설함에 그계획의 중심을 두었던것이다。

여기서 무장인민들의 대부대는 벌써 二十일새벽 순천진격과함께 지이산 방면으로 향하게 되었던것이다 이진격부대는 광주로부터 오는 약三백명의 경찰을 순천역두에서 전멸하고 다른 三백명의「국군」부대와 순천에서 합류하여 二十일 一거에 순천을 장악케되었다 이날 즉시 순천에서도 인민재판이 설치되고 인민 대회가 소집되었다。

순천에서도 려수에서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기는 전시가의 가가호호에 날리고 인민공화국중앙정부만세는 인민의 입과 입마다 힘차게 부르게되었다 순천에들어가 무장인민들은 새로운 청년무장부대로 가강되어、약천명의 부대로써 벌교(筏橋) 고흥 보성방면으로 유격전구를 확대하고 다른 一부대로써 구례 곡성 남원방면으로 북상하고 또다른 한부대로써 광양방면에 진출시키고 약二천명의 주력은 순천에서 백운산과 지이산에 유격근거지를 설정하는공작에 활동하였다 적은 이 여러방면으로 진출한 무장인민들의 전술에 완전히 넘어가 무장부대주력의 방향이 지이산에있는것을 포착치못하고 광주 서울등지로 진출하는줄로 생각하였었다 그러한까닭으로 려수와 순천에서 산악지대로 모든 준비(식량 무기 피복 의료품 이불 취사도구등)가 이동하는것을 방해치못하였다 적은 완전히 무장인민들에게 전술적실패를 보였었다 二十三일 순천에서 산악근거지준비태세가 거의 완료되자 무장인민들의 주력은 순천을 퇴각하여 一부대는 백운산으로 一부대는 지이산으로 들어갔다 수배의인원과 최신 미국식무기도 무장인민들에게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못하고 도리어 경찰 소위토벌국군만이 수천명의(대한일보에서는 사자三천三백二十八명 중상자一천二十八명 경상자三백八十명이라고 보도하였다) 사상자를내게된 분풀이를 평화롭게 거주하는 인민

조직되어 농민들 자신의손으로 친일악질반동을 숙청한다고한다. 지이산지구내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창설되어 완전한 행정권을잡고 인민들손으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한다 적들은 날마다 허위의 보도를 장황하게 신문에 보도하고있으나 이것은 사실과는 하등의 공통점이 없는것이다。

十一월말경 구례읍에 八백명의 폭도가 내습하였고 十二월초 광양에서는 소위 군경연합부대七〇〇명이 二十四시간동안 무장유격대와 교전하였다고 남조선신문들은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들은 완전히 유격대의 세력이 강화되어 대부대로써 작전을 진행하고있는것이 증명되는것이다 전남의상태는 경찰과 국방군이 유격대를 토벌하려는 목적으로 수만수천씩 배치된것이아니라 인민을 략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겨우 유격대의 도시습격을 방비하기위한것뿐인것이다 그러므로 한부대가 토벌지령을 받더라도 백주에 산하에 이르러 몇발의 총을놓고 밤이면 저들의 생명이 그날 용하게 유지된것처럼 생각하고 도시로 돌아오는것이 소위토벌대의 일인것이다 실로 전남일대의 유격대의 무장세력은 인민과 완전히 일치되어 남조선 반동의 력량으로는 어찌할수없는 강력한 실력을 소유하고있는것이다 이유격대는 제주도유격대와함께 가장 유력한 유격대로서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의 강력한 일부분인 것이다。

2、경북을 중심한 유격투쟁

二·七구국투쟁후 경북에는 조그만큼씩한 유격부대가 경주 충남린접지대등지에 이미 존재하였었다 十월인민항쟁의 영웅적도시 대구를중심하여 인민들의 투쟁력량은 실로 거대하다 경북지방의 유격전투는 현금에 이르러 나날이 확대되어가는바 이것은 十二월二일 대구국방군 제六련대의 一부병사들이 소위국군을 반대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산으로 들어간후부터 본격적인 유격전이 조직되어갔다 금천 칠곡 달성 팔공산 례천 봉화 경산 밀양 하양 경주등 각지 산간을 근거로하여 인민무장대와함께 활발한 유격전을 개시하고있다 이부대들은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자기의 무장을 확충하고 새로이 청년들을 무장시키고있다 경북유격대는 十二월六일 대구련대의 일부가 지이산유격대토벌계획도중 달성에서 또다시 무기를 휴대하고 산으로 들어간데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부대들은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발밑에서 리승만매국정권을 타도분쇄하는것을 자기의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부대들은 이 겨울추위에 산속에서 로숙을 행하면서 조국의 국토완정과 통일완성을 위하여 싸우고있다 저들에게 수十배의 적의 무력도 추위도 주림도 그 애국적열정을 꺾을수

없으며 그용감한 기개를 꺾을수없다 경북의유격대는 아직 그 수에있어서는 그다지 큰것은 아니나 날이갈수록 그들의력량은 증대되어 또한 가까운장래에 커다란역활을 놀것이다。

3、오대산방면 유격전투

五·十단선을반대하여 일어난 인민들의 투쟁은 강원도방면에있어서도 상당히 치렬하다 五월초 강릉군 사천면 지서습격과 강릉통연사주둔 형사부대를 박멸시킨때로부터 오대산방면에 강력한 유격부대가 활동하고있는것은 주지의사실이다 十一월五일 오대산유격부대는 삼척군 말로지서를 습격하여 다수의무기를 탈거한것을 계기하여 이부대의 활동은 급격하게 강화되었다 이부대가 서북으로 이동하여 평창 원주방면으로 진출하려하는 태세를취하였는데 적은 상당히 당황하여 강릉 원주 춘천등지의 전경찰력과 소위국군을 동원하여 이부대의 앞길을 막았었다 그러나 이부대는 녕월방면의 탄광 및 중석광산과 남조선최대발전소 녕월화력발전소등 공업지대로 진군함에 그주요목표를 두었던것이 원쑤들을 더욱당황케하여 급거 이부대를 견제하려하였으나 이부대는 유유하게 오대산과 태백산을 중심하여 녕월 제천 봉화 단양 영주의 일부지대를 자기의 전투권내에 넣고있다。

이부대는 야간에는 인민들에게 정치적공작을 행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강과 정책을 교양해설하고있다 이부대는 아직까지 그다지 큰세력을 이루지못하고있으나 제주, 전남 경북의 유격대와함께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항쟁의 일부분을 이루고있다。

이부대들 이전에도 수많은 소크룹의 활동대들이 가있다 이러한 유격대들은 남조선 근로청년들이 고장 선진적인 부분으로써 백설이 쌓인 산봉오리위에서 박한의 장비도 가지지못하고 온갖 고난을 겪어가면서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정책과 그주구 매국노의정권을 타도분쇄하기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것이다。

二、十一월三十일 총파업에대하여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중 특히 지적할것은 十一월三十일 소위 망국적「국회」에서「미군남한재속주둔요청」안을 결의하고 망국적인 리승만 괴뢰「정부」에서 이결의안에의하여 미국정부에 미군계속주둔을 애걸하는 망국적조작들을 반대하여 나선 남조선로동계급을비롯한 근로인민들의 二시간총파업과 학생들의 맹휴투쟁이다。

리승만 매국정권은 조작된지 수개월도 못되는기간내에 망국배족의 온갖범죄를 자행한중 추악하고 간흉한것이 이「미군남한계속주둔요청안」이다。

특히 오늘 조선민족의 해방자인 위대한쏘련군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요청에

의하여 성의있는 답변과함께 전체조선인민들의 절대적지지와 감사에 끓어넘치는 환희속에서 一九四八년十二월二十六일까지 자기군대를 철거하였다 이와같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조선인민은 미군도 역시 남조선에서 자기군대를 즉시 철거할것을 견규하면서있다 그러나 미국군대는 자기네들의 충실한 주구이며 조선인민의 반역자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등 매국노들을 추겨 자기군대를, 남조선에 장기주둔시킴으로써 조선을 영구히분할하여 남조선을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다。

남조선의 현정세는 미국군대의 힘에 의거함이없이는 반동매국노들의 생명이 연장될수없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실로 미군계속주둔은 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새멍에를 집어씌우는것이며 이는 조선인민들이 가장 배격하는 문제인동시에 털끝만치도 용허할수없는 문제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조국을 외국의 간섭없는 민주주의적자유와 통일적독립국가로 부흥발전시키는 문제는 그 첫째 조건이 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즉시 철퇴시키는 문제인것이다 만약 미국군대가 조선에서 철거치아니한다면 남조선인민에게는 자유와 행복이 영구히 말살될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후 수명을 지속하려는 리승만 매국정권은 이 강점자의군대를 괴뢰「정부」의 명의를 참칭하여 우리강토내에 계속주둔시키려는것이니 그들이 범한바 민족적죄악은 천추만대에 길이저주받을 씻을 수없는 죄악인것이며 추악한 행동인것이다。

이와같이 조선인민의 의사를 유린하고 미국군대를 주둔시키려는 반동매국노들의 매족적 발악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전체조선인민의 력량앞에 분쇄당하게될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아니다。

과연 十一월三十일을기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전남조선적으로 二시간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총파업에 호응하여 농민은 시위집회를 조직하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아직까지 전남조선적으로는 그상세한내용을 충분히알수없으나(매국정권에서 이파업에대한보도를 절대 금지한까닭으로) 서울 인천 대전 청주 부산 대구 단양 제천등 八개군시의 파업과 및 투쟁상황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수있다 이八개군시의 파업에참가한 공장 및 기업소의 수는 三〇四개로서 파업에참가한 로동자의수는 五〇、〇三一명이요 동맹휴학에참가한 학교의 총수는 一〇四교로서 이에참가한 학생의총수는 六〇、六九五명이다 그리고 시위장소는 三四三개소로서 총인원수는 十五만三천四백十二명이다 삐라산포에동원된 수는 一천九백四명이요 산포된 삐라의총수는 실로 二백十一만三천五백五十매에달하였다 이상과같이 룽

화 기습투쟁총계를합한 八개도시의 총 투쟁인원수는 二十六만四천七백三十八명이다 삐라만 산포하여도 즉석에서 총살하는 남조선의환경하에서 이와같은 대중적투쟁이 전개된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진행되는가를 증명하고도 넉넉한바있다。

우리는 이파업로동자들이 어떠한 구호를내세우고 자기들의 강철같은 단결의 위력을 얻었는가를 보기로하자。

첫째 매국정권의 미군계속주둔요청을 절대반대한다

둘째 미군은 즉시철퇴하라。

셋째 조선사람의일은 조선사람에게 맡겨라。

넷째 리승만 괴뢰단정을 절대배격한다。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등등이다

이구호는 실제에있어 파업로동자들의 구호일뿐만 아니라 시위와 집회를 조직한 농민들의 중심적구호이며 동맹휴학과 시위운동에나선 학생들의 구호인것이다 이구호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정부 정강을 받들고 남조선에있는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정책과 그앞잡이 리승만 매국도배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는것을 충분히 알수있다。

다음 서울지방의투쟁중 그중요한것을 종합하면、서울지방철도종업원수는 五천一백명인데 그중 이번 파업에 참가한자는 四천五백十명으로 경인선과 경부선열차는 그운행이 정지되었고 당인리행기차도 역시 정지되었다 서울의발이라고 일컫는 전차는 당일 각선에 배치된수가 一백十一대였는데 오후 一시에 들어서자 이 一백十一대는 한대도 빠짐없이 완전 총정지하여 반동의괴수들이 모인 서울에서 로동자의단결의위력이 얼마나 크다는것을 분명하게 보이었다 서울지방의 체신관계의 로동자의 총원수는 二천七백二十六명인데 이번파업에참가한자의 총수는 二천二백三十一명이고 전남조선을 통하여 전선과 전화가 전부 중단상태에빠져 원수들의 심장을 서늘케하였다 조선최대의공장지구의하나인 영등포지방에있어서는 조선피혁로동자 七五〇명중 그전부가 대한방적공장내 로동자수 五백명중 그전부가 동방방적공장내 로동자수 一천五백명중 그전부가 종연방적공장내로동자수 一천八백명중 그전부가 경성방적공장로동자수 一천三백명중 그전부가 참가하여 一九四六년이래 테로단 대한로총파 서북청년회등등으로 로동자의단결을 파괴하고 반동의영향을주려던 온갖 반동의 잔악한행위는 실패라는것이 증명되었다 영등포로동자들의 이와같은 일치단결한 파업투쟁은 로동자의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을 여실히 보인것이다 여재 서울지방투쟁의 총계를보면 로동자총파업참가공장 및 기업소의수는 二

백十九개소로서 참가로동자의총수는 二만七천三백六十八명이요 학생들의 동맹휴학참가의 학교수는 六十八개로서 참가학생의 총수는 三만九천七백八十명이요 시위행진건수는 실로 六만九천一백八十三명에 다하였다。

부산지방투쟁의 전모는 아래와같다 철도종업원 五천五백명중 四천명이 참가하였고 해원 二천五백명중 二천三백명이 참가하였고 조선방적 三천명중 二천五백명이 참가하였고 중공업로동자 五백명중 그전부가 참가하였고 부두로동자 一천二백四十명중 七백九十명이 참가한것이 그중요한 부분인것이다。 부산에서의 로동자총파업참가공장 기업소 총수는 二十四개소로서 로동자참가총수는 一만八백七十七명, 이요 동맹휴학에참가한 학교수는 八개교로서 그인원의총수는 四천九백명이요 시위행진은 五개소에서진행되었는데 그참가인원수는 二천八백명에 달하였다。

다음 대구지방에서는 철도종업원 一천一백四명중 八백六十명이 참가하였고 군시(郡是)공장 一천八백명중 一천二백명이 참가하였고 전매국원 一천二백명중 그전부가 참가하였다 대구로동자들의 총파업참가공장 및 기업소수는 三十一개소로서 그에참가한 로동자의수는 七천五十八명이요 동맹휴학에참가한 학교의 총수는 二十二개소로서 참가총인원수는 一만三천六백五명이며 시위운동이 전개된 장소의수는 一六九개소로서 八만七천一백十二명의 거대한시위가 진행되었다。

인천지방의 로동자총파업공장및 기업소총수는 十二개소로서 一천六백九十九명이 참가하였고 시위행진이 진행된 장소의수는 五개소로서 四五三명이 참가하였다 인천에서 중요한공장은 조선운수주식회사로서 종업원 一천명중 그전부가 참가하였고 해원五백여명중 三백五十명이 참가한 그것이다。

대전시에있어서는 대한방적종업원 三백명중 그전부가 참가한것을 필두로하여 대전고무공장 二백명중 그전부가 참가하고 군시공장 三백명중 二백五十명이 참가하고 철도종업원은 三백二十명이 참가하였다 대천시 로동자총파업공장 및 기업소총수는 十개소인데 참가로동자수는 一천四백六十六명이요 동맹휴학에참가한 학교의수는 六개교로서 二천四백十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청주에서는 철도종업원 一백四十명과 군시공장 二백五十명이 참가하였으며 제천에서는 광산로동자와 철도종업원이 전부 참가하였으며 단양에서도 광산로동자가 전부 참가하였다。

학살과 탄압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일어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한편으로 새로운 무장유격투쟁이 날로 확대되는동시에 다른편으로 거대한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계속되어、 리승만매국정권과 그상전 월가의 장사군들을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기치밑에서 자기희생적인 영웅적투쟁을 이상과같이 용감하게 전개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국련의 간판을 리요하여 쓰러져가는 매국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수혈적방법을 아무리취한다하더라도 인민대중의 거대한투쟁앞에서는 자기들의목적이 질패되고야 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후 남조선인민들의 진지하고 애국적인 투쟁의 또한가지 빛나는기록은 위대한쏘련군대가 조선인민들의 의사를 존경하여 자기의 군대를 북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철퇴시키는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투쟁인것이다 세계인류의 해방자이시고 조선민족의구성이신 쓰딸린대원수에게、 드리는 감사눈서명운동에 남조선인민들이 참가하는것은 또한 매국노들과 그상전 미제국주의자들의 혹독한 탄압과 잔인한방해없이 친행될수없는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투쟁의기록을 보기로하자、

三、쓰딸린대원수에게드리는 감사문에 서명을위한 남조선 인민들의투쟁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의 장구한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조선인민들을 성심성의로 원조하여 북조선에서 모든 세기적민주개혁과 민주건설들을 인민들 자신의손으로 수행할길을 열어주었으며 모쓰크바三상결정의 정확한실천과 량군동시철퇴안을 제기함으로써 통일민주주의조선부흥에 헌신적원조를 다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승인하여 외교및 경제관계를 체결하고 량차에걸친 국련총회에서 조선문제의 옳바른해결을위하여 백방으로투쟁한 위대한쏘베트군대가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부흥을 급속한 시일내로 완성시킬목적으로 북조선으로부터 자기의 군대를 一九四八년十二월말일이내로 완전히 철퇴하겠다는 결정이 발표되자 조선인민은 위대한쏘련군과 그의령도자 쓰딸린대원수에게 계속적감사를 또한번 보내었다 자기의해방자요 원조자인 쏘련군대를 환송함에있어서 조선인민들은 영명하신 쓰딸린대원수에게 뼛속에서 잔정한 감사가 우러나올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한것이다。

十월十九일 북조선 평양 사동련탄공장종업원의 호소에의하여 쓰딸린대원수에게 민족적감사를 드리는 멧세지를 전체조선인민의 이름으로써 보내자는 제안은 남조선에서도 료원의 화세와같이 전체인민들의투쟁을 통하여 일어났다 남조선인민들의 이투쟁은 절제에있어 원쑤들의 잔인한 탄압속에서만 전행될수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놈의 이러한 탄압에 조금도 굴치않고 十월二十五일 현재 이감사문에 서명한 인민의수는 二백二十一만四천一백七명에 달하였다고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은 발표하였다 이영광스러운 감사문에 참가하는 남조선인민들

의열성은 날이갈수록 증가되어 十월三十일에는 이미 四백十六만九천四백八十四명에 달하였고 十二월四일에는 벌써 六백三만五천七十六명의 거대한 수효로되는 인민이 참가하였다고 민전은 거듭발표하였다 이 서명운동은 十二월十五일로써 끝마쳤는바 남조선 거의절반의 인구인 九백九十三만八천一백八十六명이 반동경찰과 각종테로단과 미국인이 설치한 수많은비밀정탐기관의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고 남조선민전은 발표하였다.

이제 각도별로서 그참가 인원을 본다면

서울시	一、〇二二、〇〇八명
경기도	一、七〇〇、二一七명
충북	七二一、〇〇八명
충남	四五一、一三〇명
전북	六〇〇、三〇一명
전남	一、六〇〇、一二九명
경남	一、三四〇、一一四명
경북	二、〇〇二、〇二七명
강원	五〇一、二五二명
합계	九、九三八、一八六명

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이와같은 거대한 인원이 참가한것은 쏘련이 조선인민의 진정한 해방자일뿐만아니라、우리민족의 재생과、부흥발전을위한 원조자이라는것을 명확하게알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는 진실로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원조자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기의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자에게는 어떠한 강국이라할찌라도 단호한투쟁으로써 이침략자를 물리치고 자기조국의주권을 옹호하고 자기인민의자유를 보호할수있다는것을 보인것이다 미제국주의자와 그주구 리승만도배가 아무러한 위협과 기만의방법으로 미국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려하여도 조선인민들은 결코 이것을 용허하지아니할뿐아니라 세계인민들앞에 조선인민의 단결된 력량과 그의위력을 표시함으로써 미국군대를 철퇴시키고야 말것이다。

四、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계속전개하는 투쟁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되자 남조선인민들의 환희는 실로 측량할수없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빨은 남조선인민들의 곤난한투쟁에 용기를 백배하고 자기들의 투쟁전도에대한 장대한 광명과 용기를 주었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五각별빛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빨을 자기의지역에 꽂음으로써 자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며、공화국수상이시고 조선인민의 령도자이신 김일성장군의 지도하에서 조국창건의 위업에 참가한다는결의를 표시하였다 남조선반동경찰들과 테로단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나라의 기빨을 자기지역내에 꽂히는것을 극도로 탄압하였으니 이것은 인민공화국기빨을 꽂는자를 발견할때에는 즉석에서 사살하라는 놈들의 테르방침에서 분명히 볼수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탄압은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국기를 자기의 국토내에 꽂는 애국적투쟁을 억누를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자、리승만괴뢰정청의 광장에 서있는 깃대위에는 인민공화국기빨이 창공높이 날리게되었다 그후 놈들은 혈안으로서 공화국기의 게양을 탄압방해하였으나 독립문과 남산을 위시하여 공화국기빨은 인민의손에의하여 계속적으로 게양되었다 이투쟁은 전남조선적으로 광범하게 실시되어 十월十五일경에는 인천월미도、전주、춘천、장단을 비롯하여 각지에 발생하였으며 十월十六일에는 부산상공에도 인민공화국국기가 날리고 광주시가 한복판에도 인민공화국기는 휘날리었다 그리고 十월十八일에는 다시 전주시에 十월二十일에는 부산、대구、의정부、대전、연안、장단、경인선 오류동、강릉、인천등 남조선일대 방방곡곡에 인민공화국국기가 휘날리었다 이기간 대구경찰청 관하에서 一주일동안에 三十六개소에서 인민공화국국기가 게양되었었다 十월二十一일에는 군산 청풍에서도 꽂히었다 그후 계속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손에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남조선각지에서 계속하여 휘날리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여하한 반동의 탄압에도 굴치않고 자기의나라를 지킨다는 백절불굴의 의사표시인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은 영원의 자유 평등과 조국의 민주 부강을 상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빨밑에 굳게 굳게 뭉치고있음을 증시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상에 지적한투쟁이외에도 적고 큰 애국적성격을가진 투쟁들을 그칠사이없이 각도시와 지방에서 전개하고있다 이제 十월二十일로부터 十一월十五일까지의 기간을 례를 들어 그동안 재장에 발포된 자료만을 총합하여도 아래와같다。

十월二十일 경주에서 악질경관二명이 인민의손에 의하여 처단되었으며 목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짖는 군중적시위가 진행되었는데 반동경찰의 발사로서 二명의 애국자가、즉석에서 피살되었었다、이기간 대구경찰서관하에서는 一주일간에 인민으로부터 악질경관과 악질반동분자에대한 十一회의 습격사건이 있었는데 이투쟁으로인하여 인민의 사망자는 五명에 달하였고 경찰二명、반동분자二명이 인민의손에 의하여 처단되었었다 그리고 동관내에서는 이기간에 수十만매의 삐라가 산포되

었으며 三개소에서 시위행진이 진행되고 삐라, 와 시위의 구호는 모두 인민공화국 중앙정부 지지가 그중심이었었다. 이 전남 군산에서 인민에 의하여 지서一개소가 습격되었고 나수의삐라가 산포되고 개성에서도 一개소의 경찰지서가 습격되어 경관一명이 처단되었다한다 十월二十一일에는 목포에서 경관七명, 부산에서 경관八명이 인민의 손에의하여 처단되었다 十월二十七일에는 대구경찰청관내에서 十二개소의 시위행진이 있었고 十개소의 봉화가 올랐으며 수만매의 삐라가 산포되었고 전북경찰청관내에서는 二개소의 데모가 진행되었고 수만매의 삐라가 산포되었으며 경남관내에서는 七개소의 봉화가 올랐으며 수만매의 삐라가 산포되었다 전남에서도 폭동지구를 제외하고 五개소의 데모와 四개소의 봉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六개소의데모와 十개소의봉화가 올랐으며 수만매의삐라가 산포되었다 특히 이날에는 남조선철도의四개소가 파괴되었다 十월二十一일에는 경북경찰청관내에서 一개의데모와 七개소의봉화와 十一개소의삐라산포가있었으며 전북경찰청관내에서는 九개소에서 삐라와 三개소에서 봉화가 있었으며 경남경찰청관내에서는 十五개소의삐라와 十一개소의 봉화와 二개소의 데모와 十九번의 습격사건이있었다 그리고 전남지방에서는 폭동지구를 제외하고 四十二개소의삐라와 二十七개소의봉화와 二十九개소의 경찰지소및•반동분자에대한 습격사건이 있었다 동일 충남경찰청관내에서도 악질구장 일명이 처단되고 충북에서도 다수의삐라가 산포되었다 十二월四일 경북경찰청관내에서 봉화一건과 악지분자에대한 습격一개소가있었다 十一월二十九일부터 十二월五일까지 一주간에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여러가지 투쟁상황은 아래와같다。

1. 수도청관내에는 경관습격一건과 악질분자에 대한 처단七건이 있었으며 수다한삐라가 산포되었다。
2. 경기도경찰청관내에는 경찰서습격사건七건과 악질분자습격사건三건과 시위一건과 삐라산포三전과 봉화건이있었다。
3. 강원도경찰청관내에는 경찰습격사건七건과 악질분자습격사건二건과 삐라산포三건과 시위二전과 봉화 四전이있었다。
4. 충남경찰청관내에서는 삐라산포十一건과 봉화九건과 기타十건이 있었다。
5. 충북경찰청관내에서는 삐라三건과 기타二건이 있었다。
6. 경북경찰청관내에서는 행정관서습격七건과 경찰서습격一건과 반동분자습격十二건과 경비용통신망습격十二건과 시위一건과 봉화二十二건과 기타四건이 있었는데 경관을 랍치하여간 전수도 三건이나된다。
7. 경남경찰청관내에서는 악질분자습격九건과삐라산포三건과 기타一건이있었다。
8. 전남경찰청관내에서는 폭동지구를 제외하고 경찰서습격사건一건과 악질분자 습격十四건、시위一건과 삐라七건과 기타七건이 있었다。

이상은 七개월도못되는동안에 남조선인민들의 간단없는 투쟁의 一례에불과한것으로 실제에있어서는 이러한 무력항쟁의성격을 가진 투쟁이 그수를 헤아릴수없을만큼 나날이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자기의정부로 받들고 용감하게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와 그앞잡이 리승만괴뢰정부로부터 초보적권리의 최후一편까지 박탈되고있다 인면의 의사란 작고 큰것을 물론하고 놈들에게 란포하게 유린되어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소위합법적투쟁이라고는 있을수가없다. 놈들은 소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란 일제시대에도 볼수없던 악법을 만드러 더욱인민학살의도구로 리용하고있다 인민들의 정치행동이란 모조리 무력으로써 탄압되어 무장적항쟁을 인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있다. 그러한까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적인 세미한 경제적요구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무력반격의형태를 취하지않을수없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놈들의 경찰테로하에서는 작으나 크나 류혈적인 회생을 각오하지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조국의통일과 자유와 독립을위하여 불요불굴의 용감한 투쟁을 계속전개하고있으니 이것이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구국투쟁의 면모인것이다。

오늘 공화국 남반부인민들은 김일성수상이 신년벽두에 말씀하신바와같이 전체 애국적 진보적 민수력량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집결시켜 국토의완정과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기위한 구국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여야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이와같은투쟁은 결코 고립되지않았으며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이 「해방후三년동안에 이미 쟁취한 민수개혁의 성과들을 더욱 확고발전시키며 공화국의 정치경제적토대를 더욱굳건히하며 공화국의철옹성같은 확고부동할 강력한기지를축성」하기위한 투쟁과함께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조선인민은 공화국중앙정부와 김일성수상주위에 더욱 철석같이단결하여 미제국주의침략정책과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소굴인 매국적괴뢰「정부」를 타도분쇄하고 국토완정과 자주독립국가를쟁취하는 거족적 구국투쟁을 더욱 맹렬히 전개하여야할것이다。

춘기파종 준비기에 있어서의 군중선동사업에 대하여

차 도 순

춘기파종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一九四九년도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 되며 一년간의 농업을 결정지을수있는 기초사업으로된다 춘기파종사업을 완전히 진행시키고 진행시키지못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로된다。

그렇기때문에 벌써 작년가을부터 춘기파종사업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준비사업들이 조직되어왔다。즉 추경 실시가 그 하나이며 우량종자 교환과 안전보관 자급비료준비 농기구 수리와 농기구확보 고공품생산의 기간단축 영농법개선을 위한 강습회와 좌담회등은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동시에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완수를 보장하기위한 사업들이다。

그결과 작년도 추경에있어서는 계획면적 一○○・一%를 벌써 一一월말까지 완수하였으며 이 면적은 一九四七년도 추경실시에 비하여 실로 三九六・五%에 해당하는 대성과를 거두게되었다。

추경이 필한때부터 금년도의 춘기파종 준비사업으로서 우량종자교환과 안전보관 퇴비증산에 적극착수하였으며 농기의 고공품생산에 있어서도 금년 一월말까지의 기간단축으로 로력조절을 계획하였으며 작년 九월하순부터 一○월초순까지의 맥류추파사업도 역시 금년도 춘기파종과 관련된 사업이며 또 금년도 영농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되는 준비사업들이였다。

농촌경리를 개선하며 증산을 보장하기위한 강습회는 작년 一一월一○일부터 一二월二○일까지 이르는 四○일간에 걸쳐 북조선 전역에서 조직되어왔으며 동시에 농산물전람회 품평회등이 또한 광범히 조직되였다 농민들의 증산의욕제고와 경험교환 영농법개선을 위하여 다수확 모범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좌담회도 광범히 조직되어왔다。

이러한 모든 사업조직과 성과적인 진행은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완수에있어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모든사업들은 대체로는 확실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농민들이 낡은 영농법을 고수하는 보수적 기풍과 동시에 이 모든 사업에대한 조직지도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아、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한 결점들도 적지않게 나타나고있다 례하면 추경에있어서도 전체 추경면적의 적지않은 부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결과 그 추경은 춘경처럼 깊게 갈지못하거나 또는 장기(가대기)로 여기저기에 번져놓은 곳도 적지않았다 맥류파종에있어서도 광파를 하도록 지도하였으나 전체파종면적의 약三○%정도는 조파를 실시하였다。

우량종자교환과 안전보관 퇴비 기타 금년도 영농을위한 모든 준비사업에 있어서도 자각적 열성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진 농가들이 많은 반면에 역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비교적 등한시하는 농민들도 적지않았다。

이 모든 결점들은 금년도 춘기파종에있어서 영향을 주고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근본원인은 농촌 당단체의 선전선동사업과 조직지도사업의 미약성으로 기인되는 점도 적지않다。

× × ×

춘기파종을 앞두고 우리당단체의 선전원들앞에는 자기들의 미약한 선전선동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금년도 춘기파종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위한 백방의 로력과 투쟁이 요구되고있다。

춘기파종사업을 완수하기위한 적기파종보장에있어 기본적으로 되는 과업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ㄱ、자급비료 확보와 조기(早期)퇴비운반과 화학비료에대한 적기 확보

ㄴ、우량종자 확보와 선종(염수선실시) 종자 소독

ㄷ、농기구 수리와 확보

ㄹ、영농계획수립과 로력조직

ㅁ、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강습조직

ㅂ、고공품 생산 기간단축과 금년도 자가용확보

이상과같은 과업을 완수하기위하여는

첫째로 당단체의 선전원들은 해당농촌의 각사회단체의 선전원과 농촌의 열성분자를 추동시켜야한다。

당단체의 선전원들이 각급사회단체의 선전원들과의 긴밀한 련락을 보지(保持)못하는 때에는 이 모든 선전사업이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기는 곤난하게된다 그때에는 춘기파종사업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이 산만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생길것이며 또 행정기관의 지도일군들과 긴밀한 련락이없는 때에는 행정기관을 배제하는 경향들도 발생하게될것이다。

각급당단체의 선전원들의 임무는 각사회단체의 선

에 이루어진 토자개혁의 의의와 보든성과를 옳게 인식시킴으로써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제고시키며 새해의 농번기를 앞두고 증산에 대한 튼튼한 사상적준비를 갖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급사회단체와 우리당선전원들은 춘기과종 준비사업과 결부하여 구락부 및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각급사회단체 선전원들과 농촌의열성분자들을 장악하면서 군중선동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강화하여야할것이다。

셋째로 농민들에게 과학적 농학기술을 광범히 보급시키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악독한 일본제국주의가 남기고간 산재의 하나인 조선농촌의 영농기술의 락후성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며 아직도 농촌의 적지않은부문이 반 원시적인 영농방식에 의존하고있는 수치스러운 영농방식을 하루속히 퇴치하고 과학적인 영농법과 열성농민들의 다수확의 경험들을 널리 군중화하는 사업을 일층 가강히 추진시키어야 한다。

특히 농업증산에있어서 춘기파종사업이 점하는 지위를 해명하며 그를 과학적영농방식에 의거하여 적기실행할것과 그를위하여 사전준비사업을 완수할것을 교양주어야한다。

그러므로 각급당단체와 우리당 선전원들은 과학적영농방식 보급과 함께 춘기파종이 조국의 민주건설과 농민자체의 물질복리에관계되는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며 좋은 풍작은 적기파종으로써만이 얻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양주는 사업을 조직강화하여야한다。

넷째로 매개농가의 세밀한 영농계획수립을 지도협조하는문제이다。

모든사업에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함은 그사업을 성과있게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증산에 있어서도 미리부터 주밀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는것은 가장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춘기파종기를 앞두고 금년도의 새로운 인민경제계획에서 농민들에게 부과된 농업증산계획에있어서 보다높은 성과를 쟁취하기 위하여 춘기파종기에 들어가기전에 미리부터 영농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도록 매개 선전원들은 지도협조하여 주어야한다。

선전원들은 전체농민들이 자기의 로력상태 기후관계등의 제반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년도에 얻은 고귀한 경험을 살리어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개공사계획 작물별 파종면적 작업일정과 이를 실행하기위한 로력배치 적기 시비와 그분량 농구 축력의 합리적사용 하천수리공사등에대한 정확한 영농계획을 수립하도록 널리 해설선전하며 그를 실지지도협조해주는 사업을 강화하여야한다。

선전원들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추동시키면서 농민들이 자각적 열성으로 춘기파종을 성과있게 수행하도록 선전하며 선동하며 협조하며 지도하는데있더 그러기 위하여서는 당단체의 선전원들은 자기자신만이 혼자 움직이는 경향을 청산하고 각급 사회단체의 선전원들과 농촌의 열성분자를 동원하면서 사업을 추진시켜야 할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춘기파종을 위한 선전사업이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기 곤난할것이다。

돌째로 농촌 당단체의 선전원들은 반드시 농촌에대한 실정을 파악하고 영농에대한 과학적 연구와 지식을 소유하여야한다 이러한 연구와 지식이없이는 영농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불가능할것이며 또 그러한 구체적인 해설이 없이는 농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곤난할것이다。

현재농촌당단체 선전원들의 약점은 정치적인 시사문제해설에있어서는 농민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농민들을 계몽선전하는데 큰 역할을 놀고있으나 한번 농사짓는 법에 들어가면 역시 오랜경험을 가진 농민들보다 그 경험이나 지식에있어 뒤떨어지고있는 결함들도 적지않게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선전원들의 선전해설이 일반농민들에게 구체적이 되지못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설화가되는 결섬들을 면치못한다 그러기때문에 선전원들은 자기자신들이 농촌에 있어서의 농민들속에서 선전선동사업에 종사하고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농업에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농민들앞에 영농법에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해설을할수있도록 노력하여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은 관점에서

첫째로 적기파종을 완료하기위하여 춘기파종일자가 닥쳐온때에 농민들이 바쁘게 서둘리지않고 기한전에 완료하도록 선전선동사업을 옳게조직하여야할것이다。

둘째로 농민들의 애국적 증산의욕을 고도로제고하며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제고시키는문제이다。

오늘 공화국북반부 농민들의 행복스러운 생활환경은 결코 우연히 전취된것이 아니란것과 또 이를 농민들에게서 빼앗아가려는 흉악한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망국역도들의 책동을 폭로해설하며 동시에 오늘 조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정치정세에 기초하여 一九四九년도는 결정적승리를 쟁취하기위한 거족적투쟁을 전개하는데있어서의 새二개년경제계획의완수를 위한 투쟁은 곧 반동파를 타도분쇄하는 원동력이된다는것을 널리인식시키어 농민들의 애국적이며 자각적인 열성을 고도로 제고시키며 그들의 확고한 신심과 고도의 증산의욕을 불러일으켜야한다 특히 반동분자들의 가증한 매국적 죄악을 철저히 폭로하고 동시에 위대한 쏘련군의 진주하

다섯째로 우량종곡의 선택문제이다。

그해의 농사를 잘짓느냐 못짓느냐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량종자를 선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것이다。

매개농민들이 우량종자를 서로교환 확보하며 교환한 종곡을 한알이라도 더좋은것을 고르도록 노력하는것은 막대한수확을 얻는데 성과가있다는것을 농민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킬것이다 동시에 선택된 우량종자를 안전지대에 보관하는사업과 종자소독 염수선별사업을 지도협조하며 그에대한 개별적 선전사업을 강화할것이다。

여섯째로 농기구의수리와 개량농기구의 구입을 지도협조하는사업이다 농민들에 있어서 우수한농기구를 가진다는것은 곧 증산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춘기파종을 앞두고 매개농가에서는 농기구를 보수정비해두어야한다 우리당선전원들은 파종기를 당하여 농기구를 수리하느라고 서두는 일이없도록 농민들의 농기구수리 및 구입에대한 세밀한 검토와 그에대한 적절한 해석선전사업을 조직전개하여야한다。

일곱째로 비료를 조기반출하며 자급비료의확보를 위한 선전원들의 지도협조사업이다 토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다량으로 확보하도록할것이며 퇴비와 구비(廐肥)는 물론 잔디를 뜨며 소토와 토벽 개바닥동을 리용하는방법으로 넉넉히 자급비료를 확보하도록 조직지도하는사업을 강화할것이다。

이상과같은 사업을 각급당단체는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써 조직하여야한다. 그러나 선전원들이 행정지도원이되며 농촌관리자가 될수있는 경향을 엄중히 경계하여야한다。

각급당단체에서는 춘기파종준비사업을 높은정치적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조직 하기위하여 선전원들의 단기강습을 조직하고 파종준비협조 및 그를위한 군중선동사업에대한 방법적 교양을 주어 선전원들의 지도리론을 제고시킬것이다。

이상에 지적한 제반사업들을 진행함에있어서 각급당단체는 군중선동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이 실제사업에 적용시켜야한다。

첫째 민주선전실과 농촌구락부활용에대한 지도협조사업에관한 문제이다 춘기파종준비기에 있어서 민주선전실과 농촌구락부는 고도로 활용되어야한다 우선 민주선전실이나 농촌구락부의 내부장식은 춘기파종준비에대한 표어 만화등 직관적 선전물 및 기타선전자료로 보기좋게 장식되여야한다 민주선전실 및 농촌구락부에서 조직되는 일체군중선동사업은 춘기파종준비사업에 결부시켜 조직할것이며 농민군중을 위한 과학적 영농방법에대한 좌담회 토론회등을 수시로 조직하도록 지도하며 그럼으로써 민주선전실과 농촌구락부가 농민들의 춘기파종 준비사업을 경

쟁적으로 추진시키는 중심지적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하여야한다 특히 파종기를 앞두고 민주선전실 및 농촌구락부에서는 다수확 농민들의 영농계획을 소개하며 작년도의 고귀한 경험들을 상호교환하는 좌담회를 수시로 조직 지도하며 각종오락회를 간단히 조직하여 농번기를앞두고 농민들의 증산투쟁에 대한 높은 의욕을 북돋아주는 사업을 조직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둘째로 벽보와 생산경쟁 그라흐를 광범히 활용시키는문제이다 민주선전실 벽보와 그라흐 및 농촌구락부는 물론 동리요처에는 언제든지 벽보와 그라흐들이 붙어있어서 춘기파종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농민들의 시선을 자극하여주도록 하여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벽보나 그라흐들에는 실천적인 문제를 들고나서야한다 례하면 ○○농민은 ○월○일까지 퇴비몇관을 준비완료하였다 ○○농민은 우량종자 교환과 그 안전한 보관을 위해 어떻게 계획한다 농민들이여 ○○농민을 본받아 ○월○일까지 파종준비사업을 완료하자! 등의 농민들의 가슴을 찌르고 자기의 파종정도를 다시생각하게 하며 상호경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조직하여야한다 그라흐에는 열성농민과 라타한농민의 파종준비정도를 대비하여 그실적을 소개하되 이는 농민들의 경쟁심을 고도로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도록 지도하여야한다。

셋째로 선전원들의 호별방문과 개별담화의 강화문제이다 호별방문과 개별담화는 군중선동사업의 어느형식보다도 그성과가크다 선전원은 농민의 파종을 도와주면서 춘기파종은 어떻게 중요한것이며 선진국가에서는 어떻게 농사하며 어느도 농민은 어떻게 파종하고있다는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내여들고 선전할것이며 분주한농민을 붙잡고 수두룩하니 긴연설을 느려놓으며 자기도 모르는 숱어주머니를 터뜨려놓는 형식적인 사업작풍을 엄금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류의할것은 선전원은 춘기파종준비자업에 솔선모범을 보이며 자기준비사업실적과 경험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선전하도록 지도하여야한다。

넷째로 연예대와 이동영사대 순회조직과 옳은 관람조직이다。

각급당단체는 춘기파종준비기에 연예대와 이동영사대를 광범히 조직동원하여 농촌을 순회시키어야한다。 동시에 연예대와 이동영사대가 농촌에오면 농촌당단체들은 이것을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높이는 군중선동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어 관람회를 조직하여야한다 례하면 연예나 영화가 시작되기전에 다수확 농민들의 영농법을 소개하며 시사해설사업을 조직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깊은 애국적 감명을줄것이다。

우리당 농촌각급당단체와 매개농촌당원들은 이상에 지적된 과업들을 충실히 실행하며 또는 그실행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춘경파종준비사업을 튼튼히 보장하며 우리당단체의 과업으로 나선 미곡에있어서 一五○% 잡곡에있어서 二○○%이상의 계획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보장하여야 할것을 강조한다。

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의 결정 집행을위한
함남도 당단체의 투쟁

북조선로동당함남도당위원장 박 영

一九四八년九월二四—二五량일에 걸쳐 진행된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는 우리당의 헌신적노력과 반동파의 가혹한 투쟁속에서 쟁취된 력사적 승리인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정치적 환경밑에서 당면한 중요과업들을 전당단체앞에 제시하였다.

함남도당단체는 당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에서 제시된 중요결정들을 도내 실정에 정확히 구체화하여 그를 철저히 집행하기위하여「당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와 총화」에대한 문제를 도당및 시군당열석자회의를 비롯하여 전세포에 이르기까지 광범히 토의하였으며 각각 자기실정에 적응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 총화」를위한 각급당단체의 회의들은 전체당원들에게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최고인민회의 선거사업과 일상적인 당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결점들을 준렬히 비판하는 정신밑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당원들의 정치적열성과 당에대한 충실성은 어느때보다도 일층제고되었던것이다 이와아울러 도당단체는 최고인민회의 선거승리의 원인과 선거승리로 부터 조성된 정치정세 김일성동지가 발표한 공화국중앙정부의 정강에대한 군중교양사업을 광범히 조직전개하였다 이사업을 통하여 도당단체는 자기의 력량을 기울여 도내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인민대중들에게 공화국정부에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입시켰으며 공화국정부정강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체근로인민들을 총궐기시켰던것이다。

× × ×

함남도당단체는「당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위하여 온갖 부면에걸쳐 치렬한 투쟁을전개하였으며 계속전개하고있다。

첫째로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승리와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통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근로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정치적 열성을 증산과 옳게 련결시킴으로써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一개월 단축하여 초과 달성토록하였으며 一九四九—一九五○년도 二개년인민경제계획 실행의 준비사업에 매진할수 있었다。

1、도당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승리적으로 보장함에 가장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써 생산직장내 당단체의 강화와 생산직장내에서의 군중정치사업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며 당이 관리기관사업을 대행하려는 경향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에서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증산에로 강력히 추동시켰다 더우기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 실행의 최후단계에서 비교적 당단체의 활동이 미약하며 생산실적이 락후되는 부면에 당적주의를 경주함으로써 그부문의 승리를 보장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은결과로써 一九四八년十一월말일현재 도내 국영산업은 一○四·七三%로써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 예정숫자실행 一개월 단축을 보장하고 제二개년계획실행을위한 사업에 들어서고있다 一九四八년도 건설투쟁의 경험은 생산직장내 당단체를 강화하며 유일관리제를 확립하고 관리측 명령계통을 엄격히 수립함으로써 생산을 보장할수있다는 당중앙위원회의 방침이 가장 정확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즉 三·四분기 중간까지 기후적 악조건과 아울러 성과에 도취하는 일부 일군들의 해이성으로부터 오는 생산의 일시적 락후성을 극복함에 있어서 흥남시당단체는 정확한 군중정치사업과 一개월 단축운동의 선두에나선 로동자들의 증산의욕을 옳게 조직한결과 흥남五대공장의 년간계획을 十一월 二十六일까지 초과달성 할수있게하였다。

또한 유곡탄광은 八월말현재 년간계획에 비하여 출탄 六一·五% 송탄 五二·三%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개별적인 일부일군들은 금년도 년간계획을 十一월말일까지 도저히 달성할수없다 고까지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도당위원회의 직접지도밑에 수행된 시군당단체의 조직적 협조와 로동자들의 영웅적 증산투쟁으로 드디어 十一월三○일까지 그의 완수를 보장하였다。

이와같이 락후하였던 생산실적을 짧은 기간내에 회복하고 자체계획을 초과 집행할수있은 거대한 성과들은 오직 우리당단체들이 생산을 협조함에

있어서, 전체로동자들의 선두에 서있은까닭이며, 또 때때로 제기되는 난관들을 타개함에 있어서는 당적 계급적 립장에서,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시한 결과에 얻은 성과로 되는것이다.

2、농촌경리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도당단체는 로지개혁후 三년간에 걸쳐 사상적 정치적으로 발전한 애국적 농민들의 증산투쟁을 조직지도한 결과 一九四八년도 농산계획을 一〇一・四%로 초과달성하였으며 만기작물 현물세 징수사업은 十二월十一일까지 성과있게 완수되었다. 현물세 징수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판정사업을 정확하게 보장하는 문제인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 김책동지는 「우리는 농민들에게서 더받으려고도 하지말고 적게 받으려고도 하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확고를 판정하여 국가규정대로 공정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도당단체는 이 근본정신에서 자기사업을 조직 집행하기위하여 리판정위원회와 시 군판정검열위원회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조기작물현물세 징수사업에서 범한 일부 일군들의 농민편애주의적 경향을 퇴치하고 국가적 립장에서 사업이 진행 되도록 농촌당단체에 대한 조직적 지도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애국적 사상을 고누하는 광범한 선전교양사업과 긴밀히 결부시켜 추진시켰던 것이다.

一九四九년도 농업증산을 보장하는 사업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추경투쟁은 一九四七년도의 소극적인 사업에서부터 좋지못한 실적을 내게된 경험에 비추어 반드시 계획면적 이상의 실적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물세를 납부하기전에 우선 추경부터 끝내는 방침밑에 강력히 추진시킨 결과 十一월十七일 까지 계획면적의 一〇〇・四%로 완수하도록하였다.

농촌경리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며 곡물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이기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개시설은 단천군 연대一구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二一개소의 관개시설들이 계획실시 되었으며 이 사업은 우리당단체를 주동으로한 광범한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되어 거대한 성과를 보장하였다.

3、도당단체는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투쟁에 가장 큰 관심을 돌리었다 이미 一九四八년五월 도당 제二차위원회는 이 문제에대한 구체적인 방침들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사업에 있어서 직맹단체들의 역활을 적극 제고할데대한 당단체들의 과업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위하여 투쟁하였던결과 로동자주택수리 생활필수품의 렴가공급을 위한 사업 생산직장 및 로동자 주택지구의 문화 보건시설들과 기타 온갖 부면에 있

어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중앙위원회제二차회의이후 도당단체는 로동자들의 수효가 비교적 많은 흥남 단천등 시 군당단체에서의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협조사업 정형을 토의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 이들 당단체내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결점들을 퇴치하기위한 제반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결점은 아직 일부당간부들과 직맹내에서 사업하는 일부 당원들중에는 이사업에대한 당적주의가 부족하며 로동자들의 생활정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대하여 허가이동지는 제二차회의에서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당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한 근로인민의 선봉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은 우리당과 우리조국의 지주(支柱)로되는 로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조직적으로 장성시키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동계급의 처지를・개선시킬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관내의 당원들과 경제일군들의 무능력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로동계급의 처지가 오늘 우리당이 요구하는 일층 공고한 처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당위원회는 당중앙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이 사업을 보장하기위하여 직업동맹의 활동을 더욱 제고하며 간부자신이、직접 로동자들의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해결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고있다.

특히 공화국 내각 제二七호결정을 받들어 그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며 국영상업 및 소비조합들의 상점망을 확충 강화하며 상점들의 내용을 충분히 하기위한 사업들에 있어서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있다 지금 국영상업 소비조합상점은 인민들의 신임을 날로 두텁게 받고있으며 근로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로동자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며 가정생활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를 풍부히 하기위하여 일부 로동자들이 자기생활에 하등의 조직과 계획이 없는데서부터 나오는 비문화면에대한 랑비현상들을 퇴치하고 조밀한 수지계획밑에 점차적으로 자기가정에 대한 문화적 면모를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지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흥남의 례를들면 국영상업 소비조합 및 공장후생사업으로서 극장 목욕탕 리발소등 시설들은 렴가로 리용되고 있으며 공장내와 주택지구 문화구락부들은 동기에 적당하도록 내부를 개조하여 그의 리용률도 또한 날로 제고되고있다

× × ×

둘째로 인민정권기관을 일층강화하며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정부의、모든결정과 시책을 정확히 실천하도록 보장하는 투쟁에 있어서 도당단체는 우선 정권기관내에 잠입하여 국가재산을 좀먹으며 국가규률을 위반하고 자기직무를 태만하는 파괴분자들을 부단히 제거하며 우수한 성분을가진 현실적인 일꾼들로 정권기관내 성분을 개선 강화 하기위한 간부사업협조에 일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정권기관내에서 우리당의 정책을 구체화하며 정권기관으로 하여금 인민의 리익에 충실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함에 있어서 정권기관내 당단체들이 생활성있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면 인민위원회내 당단체들이 회의조차 제때에 가지지 않던 과거의 결점을 시정하고 자기의 역활을 옳게 수행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각급 인면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결정과 시책을 신속 정확히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당단체들과 당원들은 항상 인민의 선두에서 그집행을 보장하고있다 도당단체는 인민정권을 협조하여 도시에 있어서의 개인기업 및 개인상인들에 대한 국가세금정책과 로동법령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상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다 다아는 바와같이 북조선에서 개인기업 개인상업이 발전할수있는 조건들은 지어져있다。

그러나 일부 우리당일꾼들이 기업가 상인들로 하여금 국가시책을 받들어 조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인민생활향상에 복종하도록 유도하지못한데서 부분적으로 국가법령을 위반하고 로동자들에게 八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에대한 규정 및 단체계약에 대한 규정들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하려고 시도하는 경향들이 그들에게 있음을 볼수있었다。

우리당과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들의 생활향상과 복리를 지향하는 철저한 민주주의적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까닭에 이와같은 현상을 묵과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도당단체는 함흥 흥남시당관하 일부 간부들이 개인기업 개인상인에대한 국가세금은 정당히 부과못하거나 혹은 탈세 시킴으로써 그들의、부당한 리익을 조장시키는 현상을 제때에 적발 시정하는 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농촌경리에 있어서는 토지개혁이후 三년간에 걸친 올바른 국가시책의 결과로서 북조선농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은 급진적으로 향상되였다 이와같은 조건밑에서 우리당은 농민들로 하여금 국가시책에 충실하며 자기노력에 의하여 자체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건설적인 투쟁을 높이 찬양하며 반면에

남의노력을 착취함으로써 소수개인의 부당한 리익을 조장하는 경향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투쟁에 있어서 도당단체는 농촌당단체로 하여금 고용농민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강력히 실시하여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함으로써 스스로 생산직장에 옮겨갈 조건을 지어주는 동시에 고용주로하여금 고용농민에게 정당한 보수를주며 로동법령과 사회보험 규정을 정확히 집행케 하는 동시에 고용농을 쓸대신에 자신이 노력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도당단체는 일부 하급인민정권기관에서와 사회단체들에서 상부의 결정지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정신에 전혀 배치되거나 그를 의곡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인민정권과 멀리 떨어지게하는 일체경향들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례하면、일부 인민위원회나 리 또는면급 사회단체들에서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고 소위"사무비" "잡비" 등으로 인민들에게 부정당한 부담을 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불평을 초래하는 경향들에 대하여 해당 당단체들로 하여금 제때에 이를 시정케하는 동시에 인민정권의 위신을 보장할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그사업을 보장함에 있어서 인민군대와 보안대에대한 협조사업을 도당단체는 제기하였다 이사업을 협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인민들로 하여금 해방된 우리조국을 침해하려는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마수에서 조국을 보위하는 인민군대에 부과된 사명의 중요성과 청년들로 하여금 인민군대에 참가하는 영예를 감득케하는 선전사업을 전개하여 그의성과를 보장하였다。

× × ×

셋째로 당조직지도사업을 일층 개선하며 당내부사업을 강화하기위한 투쟁에 있어서 도당단체는 최고인민회의 선거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당조직지도사업에서의 부분적인 결함들을 시정하고 당내부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당세포를 일층강화 함으로써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시키며 아직 당내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적인 사업작풍과의 강력한 사상투쟁을 전개하고있다 특히 시、군、구역당 또는 면당세포(초급당부)들이 당세포 분세포를 일층강회하기위한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도사업을 미약하게 전개하며 또는 상급당의 결정지시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데 끄치는 부분적인 경향들이있다。

례를들면 삼수군 당단체는 하부당단체 지도사업과 당내부사업을 강화하기위한 일상적인 주의가 부족하였던 결과 적지않은 부분적 결점들을 조성하였던것이다。

이렇게 하급당단체를 지도하였으므로 일부 세포들은 회의를 제때에 하지않고 심지어 六〇%미만

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에서는 문제취급이 중첩과 내용이 없이 토론은 항상 하는 동무만 하는 등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며 비판과 자기비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군당은 이러한 자기결점을 파악못하고 있었다 도당위원회는 삼수군당단체의 이와같은 사업상 결점들을 시정하는 동시에 다른 시, 군당단체에 부분적으로 공통하게 존재하는 사업지도상 결점들을 퇴치함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던것이다 더우기 중앙당상무위원회의 「함북도당단체의 당조직지도사업과 지도방법정형」에 대한 결정은 도당단체의 당내부사업강화를 위한 투쟁에 가장 큰 지침으로 되었으며 당조직지도사업 수준을 일층 제고하는 계기로 되었다。

당중앙의 이 결정을 구체화 하기위한 도당 제五차위원회와 시, 군, 구역, 당위원회들에서는 당내민주주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하급당단체 조직지도사업 수준을 일층 제고하는 정신에서 심각히 토의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세포(초급당부)면당들의 九개월간 사업총화를 진행하도록 제반 대책들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당장성사업에 있어서 도당단체는 생산직장내의 고착된 장년 로동자들로서 실지사업에서 검열된 우수한 분자들을 적극 교양주어 입당시키며 농촌에서 우수한 빈농성분을 가진 열성농민층에 일상적 인주의를 경주하여 당성분을 개시하는 기본방향에서 강력히 추진시켰던것이다. 그리하여 一九四八년一一월말일 현재 당의 기본성분은 전체당원의 七四%를 차지하게되었으니 이는 一九四八년七월의 七二·二%에 비하여 ○·八%의 장성을 보게되었다。

도당단체는 당장성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는 일부 비계급적인 경향과의 준렬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 전개하고 있다 례하면 삼수군당단체를 비롯한 일부 당단체들이 당성분을 개선할데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로동년한이 긴 우수한 고착로동자들은 소위「가르쳐도모른다」는 단한 리유로 그를 교양주어 입당시킬 대책을 강구하지않는 경향들에 대하여 이를 제때에 비판 시정하였다。

× × ×

넷째로 당원들을 맑쓰 레닌주의적 선진과학 리론으로 무장시키기위한 투쟁에 있어서 도당단체는·당중앙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당선전교양사업을 실시하기위하여 이사업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당정치교양사업을 일층 강화발전 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세포학습회를 유일계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실시하며 그의 질적수준을 재고하는 문제이다 이사업을 보장하기위하여 강사들

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며 학습회 지도반의 활동을 민활히하는 사업이 중요하게 제기되므로 각시 군당강사들을 위한 강습회를 매월一회씩 조직실시하였으며 각시, 군당 강사 강습회에서는 一一월에만하여도 연 一三, 三七四명의 세포학습회 강사를 교양주었다 이와같은 준비밑에 당세포학습회는 일부 정상적으로 실시 하지못하고있던 농촌세포들에서까지 점차 그사업을 보장하고 있으며 당원들과 당간부들의 정치리론수준이 향상됨에따라 그들의 창의적 자체 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세포학습회의 우수한 학습당원들을 자습체계에 넘김으로써 더욱정확한 수준에의해서 학습지도를 하였다。

도당단체의 군중선동사업은 쏘련군대환송사업 과정에서 더욱 대중속에 깊이 침루되었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쏘련에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함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사업에서 사회단체들의 선전조직을 광범히 발동시킴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었으며 특히 민청 녀맹 단체들의 활동을 재고하였다。

도당단체는 군중선동사업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선전원들의 활동을 제고하며 민주선전실을 더욱 활발히 활용하기위하여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기에 노력하고있다 즉 우리의 선전원은 반드시 인민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으며 인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사람으로 되어야하며 인민들이 모르는 문제는 선전원에게 물어보도록 자기들의 정치적 수준이 재고된다는것을 해석하였으며 민주선전실은 그 부락의 문화중심으로써 선전원들의 가장 정(情)든장소로 되어야하며 인민들이 모르는 문제에 해답을주며 항상 새소식을 전하는 장소로 되게하는것이 오늘의 복잡한 정치정세하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의 하나라는것을 제시하였다

× × ×

다섯째로 민전을일층강화하며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협조하는 투쟁에 있어서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는 우리당앞에 어느때보다 민전을 더욱 강화하여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 도당단체는 민전을 강화하기위하여 우당과의 더욱 밀접한 련락을 가지며 전체 근로인민들속에서 우리당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는 사업에 주력하고있다 민전을 강화함에있어서 그의 튼튼한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사회단체들의 조직적 강화가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으로써 이에 또한 일상적인주의를 돌리고있다。

생산직장내에 있어서 직맹단체들의 역할은 비상히 제고되었으며 민청 녀맹들의 증산협조 투쟁이

또한 강화되었다 흥남공장들에 있어서 청년작업반의 활동은 로동자들의 증산의욕을 제고함에 적지않은 역할을놀고 있으며 수산부문에 있어서 녀맹원들의 활동은 이사업을 보장함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도당단체는 사회단체들의 하부조직을 더욱 강화할데대한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를 적극 지도하여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특히 생산직장에 있어서 직맹단체들의 반사업강화와 농촌에 있어서 리농맹의 생활성을 제고함에 더욱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도당단체가 이상에지적한 모든 사업들은 항상 반동파의 가혹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북조선민주건설의 성과를 고수하며 더욱 큰승리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북조선인민들의 위업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려고 남조선의 반동매국도당들과 기맥을 통하고있는 파괴분자들은 여러분야에서 준동하고있다 그러나 도당단체가 거둔 이상의 성과들은 파괴분자들의 이러한준동이 아무러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였다는것을 론증한다。

× × ×

도당단체는 김일성동지를 위시한 당중앙위원회의 정확한 지도밑에 끊임없는 승리를 보장하여왔다。

그러나 함남도당단체앞에는 지금보다 몇배나 중대한과업들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一九四九—一九五〇년 인민경제 二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위하여 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결정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며 당단체를 일층공고히 하여야할 과업이 어느때보다 심각히 제기되고있다。

도당단체앞에는 도내 전체인민들을 공화국중앙정부와 그의 수상 김일성동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며 공화국의 헌법과 정강을 전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장하는 력사적 사명이 부과되고있다。

이 과업들을 정확히 실현 하기위하여 도당단체는 도내 전체당원들을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동지주위에 강철같이 단결시켜 영예로운 북조선로동당원의 칭호를 높이들고 인민의 선두에서 용감하게 투쟁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도록 반드시 보장할것이다。

(一九四八、一二)

통일당의 사상적기초에 대하여

파란로동자들의 두정당합당대회에서 진술한

파란로동당 총비서 베루트의 보고

파란로동당 총비서 베루트는 十二월十五일 개최된 파란로동자들의 두정당—파란로동당과 파란사회당의 합당대회에서 진술한 자기보고 가운데서 파란로동운동사의 제주요단계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진술하였다。

× × ×

파란로동계급의 합당대회는 력사과학및 맑쓰레닌주의실천의 제기본원칙에 립각한 승리적 계급투쟁의 제단계중의 하나인것이다 파란유일로동당의 강령은 국제및 파란로동운동사에 의하여 시련된 유일무적한 참다운 제원칙인 맑쓰레닌과학의 제원칙 다시말하면 인류를 사회주의로 인도하는 제원칙에 엄연히 립각하게될것이다。

파란로동운동은 七十년간이라는 치렬한 계급투쟁기간중에 국내외 사상적변동을 극복함으로써 장성하여왔으며 성숙하여졌다 一八八二년에 최초의 정당인「프로레타리아트」당이 수립되어 맑쓰주의적이데올로기의 정신에 립각한 계급투쟁의 기치를 파란에 높이들었다。

一八九二년에 조직된 사회당에 관하여 말한다면 사회당은 호전적 민족주의의 당이었으며 파란프로레타리아트를 계급투쟁의 로선에서 리탈시켜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민족통일의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를 고무시키려고 기도한 당이었다 사회당에 결합된 대렬은 제二인터나쇼날의 우익에 가까운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과 필쑤드쓰끼와 그의도당들에의하여 대표된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파란사회당은 자산계급들과 굳은 단결을 맺고있던 개혁주의적정당과 타협하고있었다 사회당은 또 민족주의의당이였다。

그리유는 사회당이 파란인민과 로씨아인민대중의 원수인 로씨아 짜리즘에대한 증오심을 민족적립장

조직한 반쏘 비방운동에 참가하였나 베루트는 당지도부내에 원쑤의 앞잡이들이 잠입한 결과로써 一九三八년 파란공산당이 와해되게된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다 로동당지도부내에 원쑤의앞잡이들이 잠입하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론적으로 확고한 당의 기본중추는 그의확고부동성을 보지하여, 투쟁을계속하였다 우리들은 이시기의 파란공산당에대하여 비판적태도를 취하지 않을수없다 우리들은 파란로동운동의 발전의 결과로써 건립된 새로운 형의당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경험을 고려하여 볼때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조직적 또는 리론적 무세에있어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을 모범으로한 파란공산당의 리론적 핵심의 희생적투쟁으로써 획득한 위대한 력사적 제업적의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당 우익지도자들의 반역적행동과 또 공산당의 영웅적투쟁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위하여 진정으로 투쟁할 의지를품고 사회당에 가입한 광범한 사회당원대중들에게 또한 사회당의 정직한 로동계급당원들에게 영향을 주지않을수 없었다。

이로인하여 전쟁기간을통하여 사회당내좌익은 사회다내의 로동계급당원들의 불만을 표현하여서 사회당우익 지도부의 회우적이고 반역적인 정치에 대하여 결국적으로 투쟁했던것이다。

우리는 파란공산당투쟁의 영웅적 전통은 우리합당의 토대로삼고있다。

우리는 또한 파란사회당우익 삘쑤드쓰끼의 령도에 반대하여 투쟁한 동당좌익당원들의 투쟁전통에 우리의 기초를두고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통일전선을 위한 그들의 투쟁의 위대한의의를 인정하는바이다。

九월패전직후 첫주일동안에 이미 파란공산당내부분의열성당원들은 그들의주위에 반파시스트민주주의분자들을 집중시켜 점령군에 항거하여 우선 조직적인 항쟁그루빠들을 설치하였다。

이들 그루빠들은 맑쓰레닌주의에 기초를둔 강령을 가지고 一九四二년一월에 창립된 파란로동당과 결합하여 행동을 같이하였다。

파란로동당은 독일 파시스트침략자들에 반대하여 파란인민대중들의 인민해방투쟁을 지도하였다。

파란로동당은 파시스트침략으로부터의 파란의 민족적 사회적해방을 독일파시즘에대한 사회주의국가 쏘련의 승리에 결부시켰다。

히틀러점령군에 대한 항전과 병행하여 도시와 촌락의 근로인민들을 열방으로하고 九월패전전의 지주 및 자본가 파란의 복귀를 원하는자들을 타방으로하는 반지시이에 치열한 계급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이 전행되는 과정에서 인민들이 체득한 경험과 파란국경으로 접근해온 붉은군대의 승리는

에서 고취하였을뿐만아니라 짜리즘과의 화해할수없는 원쑤인 로씨아로동계급운동에 대하여서도 기파와 불신임의 감정을 선동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파란및 리뜨봐니아사회민주당은 一八九三년 그 발전의 최초에 담하였을때의 「프로레타리아」당의 혁명적전통을 계속 답습하였을뿐만아니라 파란로동운동을 인민투쟁의 최고수준으로 제고시키며 파란및 리뜨봐니아사회민주당은 과오들도 범하였지만 동당은 그선배들로부터 가장훌륭한 제전통을 답습하여 그 적극적인 면을 발전시켰으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제원칙에 립각한 강령으로써 조위 파란왕국의 로동계급을 무장시켰다는것을 지적하여야한다。

베루트는 그다음 一九〇五년의 혁명기간중 반동기간중 및 제국주의 전쟁기간중에 있어서의 파란및 리뜨봐니아사회민주당의 사업과 「파란사회당우로부터 탈리하여나온」 사회당 좌익의 사업에 관하여 말하였다。

베루트는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의 파란로동운동에대한 의의를 강조한다음 파란공산당을 창설하게된 파란 및 리뜨봐니아 사회민주당과 사회당 좌익과의 합동에 관하여、말하였다。

다이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많은 옳지못한 원칙과 전술적 오유가있었지만 파란공산당은 一九二三년의 제二차당대회로부터 레닌주의형태의 당으로 다시말하면 파란로동운동사에 레닌주의를 인인한 당으로 전환하게되었다。

파란공산당은 맑쓰레닌주의에 기초한 유일한당이였으며 로동계급의 세력과 파란인민의 진정한 독립을위하여 투쟁한 유일한당이였다 파란공산당이 저하에 있었을때인 一九二八년 선거기간중에있어서 거의 백만표를 획득하였었다 파란공산당은 인민대중에게 파시스트독재를 반대하여、투쟁할것과 「파업을 조직할것을 호소하였다「빵 평화 자유」의 슬로간밑에 광범한인민의 반파시스트전선을 수립하기위한 파란로동계급의 투쟁에 있어서의 파란공산당의 주동적역할에 관하여 말하면서 베루트는 사회당우익은 통일전선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전선의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고 말하였다 파란로동계급운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쏘련과 쏘련로씨아혁명에대한 그의태도인것이다。

공산당이 존재한 그 첫날부터 공산당은 사회주의를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파란인민과 쏘베트인민들간의 형제적이며 우의적동맹을 위하여 투쟁의 국제전선에 파란을 포함시키려고 일심불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회당우익은 파란이 독립한 그 첫날부터 쏘련에대한 증오의 독액(毒液)으로써 인민들의 가슴을 해하였으며 한편 파란부르죠아지들이

인민대중들의 마음가운데 파란로동당의 강령만이 가장 옳은 강령이라는 의식을 깊게하였으며 또한 침략자들에 반대하는투쟁에 파란인민들의 전력량을 집중시킬 필요성을 지적한 동당의 슬로간만이 가장 옳은 슬로간이라는인식을 점점 확고하게하였다。

쏘련과의 제휴만이 파란의 해방을 보장케한다고 처음부터 지적하였던 파란로동당의 선언이 옳다는 것이 점점더 명백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베루트는 박두한 파시즘의 패배와 파란의 해방을 예견하고 설치된 크라죠바·라다·나로도바(인민회의)및 파란민족해방위원회의 창립역할 및 의의에대하여 언급하였다。

반동배들은 그들의 파탄이 점점 명백화하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중에서 빠져나가고있는 주권을 보유하기위하여 또한 크라죠비·라다·나로도바에 의하여 확립된 인민의주권기관인 파란민족해방위원회와 붉은 군대에 대항하기위하여 와르샤와에서 폭동을 조직함으로써 주권을 획득하려고 기도하였다。

붉은군대에의한 히틀러주의의 패배는 파란인민에게 해방을 가져왔다。

파란 로동당의 로선 로씨아혁명과 파란 혁명간의 밀접한 동맹관계에 기초를두고있는 이로선은 승리하였다。

인민적 파란은 파도와같이 고조하여진 혁명적 열의와 붉은 군대에 의한 국토의 해방결과로써 탄생하였다。

해방과 함께 지하로부터 나타난 파란로동당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제혁명세력들의 중심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지도적세력이였을뿐만아니라 크라죠바·라다·나로도바에 의하여 그기초가설치된 합법한 민주전선의 조직자였다。

해방 직후 파란로동당은 새로운 주권기관의 창건에 그의전력량을 집중하였다。

파란 로동당 당원들은 누구보다 먼저 사회안전기관내에서 일하였으며 누구보다 먼저 파란인민군대에 입대하였으며 누구보다 먼저 국가 및 도시행정기관내에서 일하였다。

파란 로동당은 로동자들의 적극적 원조하에 농민들 자신들에 의한 토지개혁의 실시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로동자와 농민간의 동맹관계를 확장시키고 그동맹관계에 새로운 면을 느끼게하였다。

파란로동당은 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고 인민들의 력량을 국가재건에 집중시켰다 포츠담에서 쏘련의결정적태도에 의하여 오ㅡ데르강 네이세강 및 발티크해상에 파란국경이 확립되었을때에 인민적파란은 서부지역들을 실제로 본토에 련결시키는 과업

에 직면하였으며 또한 될수있는대로 속히 수백만 인민들을 이지역들에 거주시키는 과업에 직면하였다。

이에대한 과업들은 치렬한 계급투쟁이 반동지주 및 자본가들에게 대항하여 계속되면서 완수되었다고 베루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쏘련의승리는 제국주의자들이 공공연히 간섭할가능성을 없새버렸으며 또한 파란의 반동분자들이 내란을 일으키려는 기도들을 무효하게하였다。

인민적파란을 건설하고 그것을 공고화함에 있어서의 파란로동당의 활동및 성공은 근로인민들에게 많은 영향을주었으며 또한 타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강령 작성에도 많은 도움이되었다。

재생한 파란로동당지도부는 파란사회당과의 통일전선과 협력을 위하여 전진하였다。

통일전선을위한 또는 로동계급의 통일을위한 파란로동당의 투쟁은 파란내의 인민의힘을 공고화하는 초석이되었으며 또한 로동자와 농민간의 동맹을공고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농민당의 지도부는 농민운동의 급진적분자들을 집결시키는 중심으로되었다。

이와같이하여 파란로동당을 그 지도세력으로한 광범한 민주주의인민전선이 일어나게되었다。

제민주력량의 집결은 파시스트지하운동과 밀접히 련결하고있던 반동의 합법적一익인 미꼴라이치크를 폭로하고 드디어、그의 정치적및 조직상의 패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선거에서의 통일전선의 승리는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통일이 옳았다는것을 확신케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파란로동당과 파란사회당과의 관계를 한층더 밀접하게하였다。

두당은 통일을 달성하기위하여 노력하는데있어서 당원들의 리론수준과 근로인민들의 정치사상제고를 목적으로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사업은 파란로동당 일부지도층내부에서 표면화된 우익민족주의적 오유들에대한 투쟁에서 또한 파란사회당내의 기회주의적 경향들과 오유들에대한 투쟁에있어서 특히 실질적으로 심화(深化)확대되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진대회로써 표현된바와같은 두당의 통일은 맑쓰레닌주의적 이데올로기를위한 투쟁속에서 또한 당으로부터 이색요소들과 기회주의요소들을 숙청하는 투쟁속에서 성취되었던것이다。

베루트는 그다음 인민민주주의국가제도의 특성을 규정하였다。

새로운 제도에대한 특수한 진로로서의 파란인민민주국가제도와 특성을 규정하는데있어 사람들은 매때로 이특성을 미리 예견할수없는 그러한 종류의 발전과정으로써 리해한다。

일부인사들은 이과정의결과를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간의 일종의종합으로써 즉 사회주의요소들과 자본주의적요소들이 상호인식의 토대위에서 서로 영원히 조화하여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제도의 특수한 종류로써 상상하였다.

한편 다른 일부인사들은 인민민주주의국가제도를 일시적인 특수한 전후세력관계의 결과로써 즉 시간의 경과에따라 九월이전의 정세에 복귀할수있을것이라는 회당말의 과도기적세력균형에 조합한것으로써 보고있다 또한 다른 일부인사들은 인민민주주의국가형태를 일종의 새로운형태 일종의 성공적인 타협형태 즉 자본주의적서방과 사회주의적동방간의 일종의 교량으로써 영원히 고정화하는것으로써 간주하려고 시도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인민민주주의국가형태를 사회주의에로의 진로가되기를 희망하는 인사들가운데도 이진로가 맑쓰—레닌주의리론의 범위내에서 발견할수없는 일종의 특성에의하여 구현되여있는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있다 이모든리론들은 이런 혹은 저런 형식으로 표현된 사회민주주의적견해에 기초하고있으며 사회민주주의의 재현(再現)이며 로동운동에있어서의 기회주의적 혹은 一반(半)개량주의적 경향에로의복귀를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미 一九二六년에 있어서 쓰딸린동지가 한말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준다 그리고 그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제현실과 일치하고있는것이다.

계급투쟁의과정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의 발전법칙을 분석하면서 쓰딸린동지는 그의저서인 「다시금 우리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 오유에 대하여」에서 쏘련공산당 볼세위끼당의력사는 당내 세그견차이의 극복의 력사이며 이들을 극복함으로써의 당대렬의 부단한 공고화의 력사라고 지적하였다.

사회혁명적「프로레타리아트」의당이 파란및 리뜨봐니아 사회민주당을 통하여 처음으로 창립되나부터 파란사회당좌익 파란공산당 파란로동당 그리고 형태를바구어 바로 로동자계급당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제당의 성격들은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력사를통하여 그내용실질에 관하여 말한다면 문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당건설문제에 귀착하였다 왜그러냐하면 프로레타리아트는 다만하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있는것이며 이 이데올로기는 맑쓰—레닌주의인것이다.

파란로동계급운동에 있어서 두경향간의 투쟁은 대차적인 두계급 즉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간의 투쟁이었으며 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적 세력을 반대하는 맑쓰—레닌주의의 투쟁인것이다.

이 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적세력은 로동계급운

동에 깊이뿌리를박아, 로동계급운동을 [illegible]대계급[illegible] 지배계급 즉 자본계급의 목적들과 리익들에 [illegible]시키려고 했던것이다.

따라서 파란로동당은 단일한내용을 계승하는 [illegible]일한 력사적계승자였으며 맑쓰주의가 당의역할을 정의하였던 바와같이 「로동계급운동을 사회주의에 결합시키는」 과정이었던것이다.

파란로동당은 로동계급의주권을위한 투쟁이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과 긴밀히 련락되어있는 특수한 력사적 조건하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적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위하여 투쟁하였다 민족해방을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파란로동당은 로동계급의주권을 위한 투쟁을 단념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도리어 로동계급의 주권을위한 투쟁을 민족해방의 목적으로한 유일한당이었다 파란로동당내 일부동지들의 동요의 원인은 이문제를 상호분리하여 민족해방문제만을 주요문제로써 간주하고 여기에 로동계급의 주권을 위한 투쟁문제를 예속시키려고 희마하는데 기인하였던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기회주의[illegible] 동시에 레닌주의원칙들에 배치되는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쏘련의 승리는 장차의 인류력사발전의 전로정을 결정한 근본적요소로되었으며 제국주의와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의 가장 침략적인 대표자 즉 히틀러주의를 반대한 투쟁에있어서의 사회주의의 가장 큰 승리였던것이다 이승리에대한 력사적이며 계급적인 의의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상말한바에 의하여 또한 다음과같은 사실을 알수가있다 즉 만약 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 쏘련의승리로인한 제국주의적 히틀러침략자들의 패망이 없었다하면 파란과 기타 히틀러주의에의하여 예속된 민족들의 민족해방은 물론 파란이 해방된이후 실현된 파란인민민주주의정부의 정권확립은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형태가 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 사회주의국가 쏘련이 제국주의 히틀러침략자들에 대하여 전취한 력사적승리의 직접적 소산이라는 리유는 여기에있는것이다.

제二의 조건은 인민민주주의국가 주권유지 지배권의 공고화다.

이것은 이 지배권의 계급적성격과 본질을결정한다 인민민주주의국가는 국가기구의 결정적인 요충들을 점령하고 인민혁명확립에 이룰것을 목적으로한 무장폭동의 결과로써 창설된것이아니며 또한 一九一七년一一월七일과 같은 조건하에서 창설된것도아니다 이것은 다만 상술한바와같이 독일팟쇼침력에대한 쏘련의 승리의 결과로써 창설되었던것이다.

독일팟쇼침략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던 국가기구는 이침략자들의 독재기구이었을뿐이며

하여 아무것도 말할수없다는것이다.

타인의 로력을 착취함으로써 생활하는 사회계급인 자본가들은 인민민주주의국가내에 아직 존재하고있다.

여기에 속하는자들은 온갖 고용주 대상인 제한된점원을 사용하는 상점주 부농 온갖 투기업자 기타 온갖 부랑자와 태만분자들이다.

자본계급의 이러한 일부대표자들과 따라서온갖 투기업자들은 현상태에와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정책에 만족하지않는다.

우리당이 이러한파괴분자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할것과 그들의 파괴행위에 관한 여하한 표현도 억제하여야할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민민주주의국가에있어서 계급투쟁의 격화는 피할수없는것이며 이투쟁의중지를 요구하며 자본주의요소들이 근로인민들에게끼치는 착취와 해독을무마하는 모든리론은 오유와 해독에 충만한것이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경제적토대가 완전히 절멸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요소들은 전력을 다하여 합부로 자본주의경제의 구제도를 복구하려고 시도할것이다;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요소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자본주의적착취의 모든 형태와 경제토대들을 완전히 청산하기위하여 투쟁하여야할 리유는 여기에있는것이다 상기한 바에의하여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두개의 상이한 사회제도의 종합형태니 혹은 한정적인 공존형태가 아니라 다만 자본주의요소들을 구축하며 점차적으로 청산하는 형태이며 동시에 앞으로 올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발전강화하는 형태인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우리시대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하에서 발생한 혁명적 세력의 특별형태인것인데 이것은 국제적인 계급적세력의 새로운 상호 관계의 표현인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새로운 력사적 조건들을 창조하였는가?

이 국제적계급세력의 이러한 새로운상호관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이며 결정적요인은 무엇인가?

이 요인은 一九一七년에 지구상 六분지一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승리이며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승리인것이다.

이에 관하여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十월혁명은 처음으로되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있어 세계혁명운동의 강력하고 광범한 기초를 창조하였다·그러고·혁명운동은 이와같은기초를 전에는 가져본적이 없었던것이 현재는 그 기초에 의거할수있게 되였다.

독일파시즘이 패망함에따라 파란을 비롯한 정복당한 국가들에서의 독재기구는 분쇄되였다.

그러나 부르죠아지주들의 지하조직들은 침략자들이 패망한 직후 이기구를 점령할것을 준비하였다.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수행된 인민대중의 해방투쟁과 쏘베트군대의 승리적인 해방진군과의 결합이 부르죠아국가 기구의 폐허위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주권을 창건하는것을 가능케하였던것이다 따라서 인민 민주주의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주권으로써 볼수있다.

그렇기때문에 파란로동당은 파란로동계급운동에 있어서 계급적혁명추세발전의 가장 긴요한 환으로되는것이며 로동계급운동투쟁에 참가한 두적대경향의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혼합형태는 아닌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동일하게 원칙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여보자

즉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상호적대되는 두사회제도의 집단으로써 또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회주의적 및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굳은 정지적(靜止的) 혼합체로써 볼수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인민 민주주의국가에 관한 이러한 문제구성방식이 전혀 잘못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사회발전의 력사는 서로 적대되는 사회제도의 제요소가 투쟁함이 없이 서로공존하는 실례들을 보여주지않는다 일정한 사회제도의 범위내에서 온갖 생산양식은 자절 일시적으로 공존할수있기는하다 우리나라에있어서는 국유화한국영공업 즉 사회주의공업이 주요한 생산양식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영공업과 협동조합공업과 더부러 소자본가들의 공장들이 존재하고있으며 또한 수공업자들과 수다한 개인 경영의 농장들이있다.

그러나 이미 오늘날 계획경제는 우리나라 생산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이며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이 계획경제의 필요조건들을 원칙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성격은 다음사실이 정의하고있는것이다 즉 대자본가들이나 대지주같은 모든 지배계급들은 국가내에 있어서 모든 세력이 박탈되어있는 반면 모든 기업소들은 인민의 소유로 되었으며 이전 지주들에게 속하였던토지는 농민들과 농장로동자들의 소유로 되었고 은행들은 국유화로 되었다.

이것은 대자본가출과 대지주들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지위들이 영원히 분쇄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경제가 정지상태에있지않고 종전의 어떠한 시기에있어서 보다 더욱 급속도로 장성발전하였다는 리유로써만도 현존경제제도의보존 그의 강화 그리고 상이한 경제체제의 평행공존에 관

十월혁명은 세계적혁명운동을 위한 강력하고도 광대한 중심을 창조하였으며 이중심은 세계혁명운동이 종전 소유하지못하였던것이며 세계혁명운동은 혁명적 이중심을 토대로하여 그주위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각국의 무산계급과 피압박인민의 유일혁명전선을 조직결성시키고있는것이다.

十월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을 보다 높은 의식적수준에 제고시켰으며 이 의식적수준은 이러한 혁명운동이 종전에 도달할수 없었던것이다.

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쏘련의 력사적 역할은 그가 제국주의, 파쑈의 세계적체계내에 튼튼한뿌리를 박고 새롭고 보다강력한 혁명적반제국주의 전선의토대를 창조한사실에 있는것이다 이 새로운 승리를 토대로하여 로동계급을선두로한 인민들와 력량의 새로운 혁명적 형태인 인민민주주의국가가 탄생되었다.

새로운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발전에있어서의 특성은 강점자들의 행정기구들이 파괴되고 파란 부르죠아지국가기구가 위태하게되어 분쇄되고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이 국가형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잊어서는 아니될 중요한력사적사실은 이와같은것이 오직 강력한 계급적인 혁명적세력이 존재하였기때문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혁명적 세력은 부르죠아계급의 세력장악을 용허하지않았으며 근로인민들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도록 원조하였던것이다 제국주의군대들이 침입한 국가들에서의 로동계급은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지는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쏘련의 형제적원조는군대 그리고 불패의 [illegible] 사회주의에로의길은 매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적은 확고하게되었으며 장기한 조건들을 향유하게되었다.

쏘련은 구라파의 파쑈세력을 분쇄하였기때문에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창설을 가능케하였다 쏘련이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발생을 가능케한원인은 붉은군대가 존재하여 우리의 적대계급이 주권을 장악하는것을 용허하지않았던 사실에 있는것이다.

우리는 쏘베트국가와 쏘련인민의 우의적경제원조를 받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국가들에게 예속될 필요가없었다(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가져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정치 과학분야 및 경제분야에서 쏘련의 경험과 성과를 광범히 리용할수있었다.

우리들의 인민민주주의국가의 기초에는 쏘련의 비리적이며 영웅적인 [illegible] 쏘베트로선과 비교할때 우리의 로선에 있어서는 명확한 특징의 기초에는 쏘련의 다방면적원조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승리의 [illegible] 이론과미합하여 우

리는 인민민주주의의 체제내에서 다른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발휘할수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운동경험이 가르치는 진정한 교훈들을 생각하며 또 이교훈과 결부시켜 우리들이 특별히 견결하고 불구대천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하는 계급의 원수가 우리들의 발전전진과 사회주의의건설을 방해하려는데 리용하는 특수형식으로써의 민족주의적 제경향및 제사정의 표시를 반대하며 또 국제정세를 분석하여볼때 로동계급을 선두로하는 근로인민의 정권의 신형태로써 인민민주주의국가는 현하의 력사적 제조건밑에서는 사회주의에의 우리들의 발전을 가장 잘 보장하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그의저서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다음과같이썼다「예전에는 어떤선진국가내의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을 말할때에는 개개의 자본민족전선과 정반대하여 대립하고있는 개개의 자립한 존재로써 말하는것이 보통이였다 현재는 이립장이 이미 불충분하다 현재는 개개의 자본민족전선들이 제국주의 세계전선이라는 한개의 련쇄로 련결되었으며 여기에대하여는 각국가의 혁명운동공동전선으로 대항하여야하는만큼 세계적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말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번대전에서 제국주의의 소위 히틀러 파시스트선봉이 대패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의 국제전선은 지금 미제국주의의 패권밑에 그 세력은 재규합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국제적선은 부활되었을뿐만아니라 가일층 침략성을 띠게 되었으며 세계의 모든 약소인민들을 정복하려는 욕망에서 가일층 탐욕하게 그마수를 뻗치는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제국주의의 국제전선은 어떻게하여서든지 제二차 세계대전에서의 쏘련의 력사적 승리의 결과인 국제세력의 새로운 상호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기위하여 전세계의 반동세력을 자기의 지도밑에 규합하고있다. 제국주의의 국제전선의 새로운 세력규합에 있어서 특히 파렴치한 역할을 받고있는것은 자기자신을 「사회당」혹은 「로동당」이라고 부르며 제二인터나쇼날의 교묘한 계승자인 곰수까지 부패한 정당들 즉 현저히 로동운동내에 철저적인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의 사 인터나쇼날을 창설하고있는 그러한 정당들이다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항하는 제국주의와 그 「사회당」앞잡이들의 중요한 현재 전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인민의 강력한 단결과 장성으로 말미암아 가일층 격화되고있다.

아세아에 [illegible] 있어서 제국주의 [illegible] 위기반을 위협하는 중국인민 해방군의 승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illegible] 촉발지키지 아니할수없는 [illegible]

쏘련은 그가 독일제국주의자들의 세력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심적 역활을한 제二차 세계대전이 끝났을때 제국주의자들이 거대하였던바와같이 약화되지아니하고 더욱 더욱강화되었다 날이 갈수록 지역과 국가와 인민들이 국제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고있다。

「사회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서구라파 각국의 로동운동에서 자기의 자본주의 정부들의 명령에 의하여 활동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앞잡이 정당들을 폭로하는 과정뒤에는 자본주의의위기의 제요소의 성숙을 촉진하는 근로인민의 해방투쟁의 발전이 따르고있다 민족주의적 유고슬라비야 변절자들만이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에서 리탈하였다。

국가권력기관을 리용하여 그들은 국가와 그용감한 인민을 제국주의에의 예속의길로 강요하고있는 것이다 더욱더욱 제국주의에 예속하여감으로써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주의적 찌또그루빠는 인민의 리량에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자들의 진영으로 기울어지고있으며 평화와 자유를 보위하는 국제로동계급과 인민의 운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자들의 진영으로 쓰러들어가고있다。

소부르조아적요소들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로동운동내에 도입되는 민족주의적 제경향에관한 경각심의 상실은 계급의식을 무너게하는 커다란 위험으로 되는것이다 이러한까닭에 민족주의적 종파주의에 반대하는투쟁과 유일 로동당이 그 선구자들로부터 뿌리깊은 전통을 계승하고있는 프로레타리아트적국제주의의정신으로 근로인민들을 훈련하는 투쟁이 모든 당원의 주요하고도 근본적인 과업으로 되는것이다。

우리인민민주주의국가는 창립이래 단기간내에 다음과같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一) 공화국의 독립 및 국경의 공고한 보장

(二) 전쟁의 파괴로부터의 국가의 급속한 부흥 국가의 급속한 공업화 및 사회화한 부문의 경제력의 증대—

(三) 서부국토의 회복 및 그발전

(四) 실업의 제거 로동자들의 물질적처지의 부단한 개선 및 사회적진출에대한 광범한 가능성의 부여 및 국가행정에의 근로인민의 참가증가

(五) 농민대중의 기아의 현저한 완화 및 그생활조건개선

(六) 가장 광범한 대중에게 교육과 문화의기회를 주는 계급교육의발전

(七) 녀자로동자들의 처지개선

(八) 로동과 수학에 대한 광범한 기회의 제공

이들성과에 의거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동계

급의 정치적단결에 표시되는 근로인민의 단결에 의거하여 유일당은 파란에 사회주의제도의 기초의 전반적건설을 시작하는 위대한 력사적 과업을 내세운다. 이과업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우리는 우리가 자본주의제도로부터 계승한 다음과같은 많은 곤난들을 제거하며, 극복하여야한다.

(一) 착취계급의 존재와 인민경제의 발전을 반대하며 근로인민 및 인민국가를 반대하는 그들의 활동

(二) 국가의 경제적 락후성과 전쟁과 히틀러강점에 의한 파괴

(三) 이락후성의 결과와아울러 이락후성에 의한 낮은 로동생산성 아직 불만족한 대중의 생활수준

(四) 자본가와 지주의 정부로부터 계승한 대중의 상당한부분의 문화적 락후성

(五) 우리의 국가기관에있는 관료주의 제요소의 존재

(六) 국민의 불만족한 건강상태

력사적경험과 맑쓰—레닌주의의 교훈을 지침으로하는 우리당의 령도밑에 단결된 로동계급은 반드시 이들 곤난을 극복할것이다 우리들이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이라고 정의하는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주요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대과학과 우리나라자체의 가능성밑에서 가능한 그러한 인민대중의 복리와 문화의 제조건을 창조하는데있나 사회주의는 사회가생산할 로동위열에의 공정한 분배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우선 현재의 기술적지식의 상태밑에서 도달할수있는 생산력발전의 최고수준을 말하는것이다 十월혁명의 승리와 쏘련내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있어서와 승리는 모두가 로동자와 농민의동맹에 그기초를 두었다 파란의 인민민주주의국가도 사회주의기초를건설하는 자기사업에서 역시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굳게 의거하여야한다。

농촌발전에 대한 배려없이는 농업생산증가에 대한 배려없이는 도시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들의 사상적선언의 기본적조목들에는 이분야에 있어서의 과업들을 이상과같이 말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재조건밑에 농촌에 있어서는 농촌자본가들과 소중농사이에 투쟁이 계속되고있으며 더욱 첨예화하여지고있다。

농촌자본가는 축력 혹은 농구를 빌려가는 시행에게 그대신으로 과도한 로동을 시키고, 경제로몽하는 농민들을 위한 공업제조품을 횡탈하며 국가행정 및 자치기관들에서는 물론 농촌협동체의 하부조직에서도 자기세력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 로동질을 자기에게 아주 유리하게 전개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빈농과 중농을 착취자들과 싸우도록 동원함으로써 이 [illegible] 하여야한다。

로력농민의 복리의 보장과 농업생산의 실질적증가는 생산자협동체에 의하는 농촌에서의 집단경작이라는 조건밑에서만 가능한것이다。

이것은 쏘련의 경험으로 가장잘알수있다。

이협동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들에 적응하는 구체적형식들은 인민국가와 또 로동계급과의 동맹에 의지하며 경험에의하여 집단경작의 우월성을 확신하게될 파란농민자신이 창조하며 결정할것이다。

사회의 전체가 더우기 누구보다도 먼저 농민들 자신이 보다 큰 농업생산에 관심을 가지고있다 농민의 동맹자로써의 로동계급의 과업은 농민이 조력을 요구할때에 경작에있어서의 보다높고 보다생산적인 형식들에의 이행을 위하여 농민을 조력하는 것이다。

농민들 자신은 이문제들을 결정할것이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농민들에게 강압강제책을 채용할것이라고하는 모든풍설은 농민을 착취하며 기만하기위하여 농민을 빈곤하고 락후한 상태에 두기를 원하는 근로인민의 원쑤들이 조작한것뿐이다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또 공업과 농업을 전진시키면서 우리국가와 당은 인민국가에서는 소유자이며 주인인 근로인민에대하여 최대의 배려를하여야한다。

결론에 있어서 배루트는 공업에대한 인재양성에 관한 제문제와 근로대중의 물질수준을 제고하기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직업동맹들의 활동에 언급하였다。

(쁘라우다 一九四八、一二、一七)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에 대한 반동이데올로기

쓰·빅고드쓰끼

一

제二차세계대전후 미독점자본은 세계지배권을, 전취하려는 방침을 로골적으로 선포하였다 이 침략목적을위하여 미국의 모든 국제정치생활을 군국주의화하며 낡은것을 강화하며 세계의 각지에서 미국의 수많은 새로운 군사기지와 병기고를 건설하며 미국과 기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과 로동운동 및 민주운동을 반대하며 미제국주의의 대외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팽창을 전개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전략적 시설들과 그의 경제적 팽창은 이데올로기투쟁을 동반하고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투쟁의 목적은 세계지배권을위한 반동정책을 정당화하려는데있다 스다노브동지가 지적한바와 같이 「미국전략계획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의 기본적 과업은 쏘련과 신민주주의국가들의 가상적(假想的) 침략에 관한 비방을 전파하면서 사회여론을 공갈하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앙글로·싹손뿔럭의 방위적 역활을 내세우며 새전쟁준비에대한 그의책임을 면제시키려고하는데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지배를위한 투쟁에 있어서 각종의 자본주의적 「자유」를 선전하고있으며 그중에는 「기회균등(機會均等)」 「문호개방(門戶開放)」 이라는 악명높은 구호들이 들어있다。

미제국주의의 사상가들은 민족적주권이 국제적모순과 전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성명하면서 민족주권원칙을 란포하게 반대하고있다 그들은 「세계정부」와 「전세계 경제동맹」 단체등을 조직할 온갖 계획들을 꾸며내고있다。

미국에서 세계지배를 참망(僭望)하는 자들중에서 가장 몰렴치한 사상가들은 지정학자(地政學者)들이며 소위 「행정적변혁(行政的變革)」 사상의 대표자들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지정학(地政學)은 독일이 제一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후 침략적인 독

일제국주의의 사상가들이 독일에 유리하도록 세계를 재분할하기위한 새 전쟁준비를 정당화하기위하여 생각해낸것이다 지정학을 독일 팟쇼정부의 공적인 교의(敎義)로 내세우면서 제二차세계대전의 조발에제하여 이것을 이데올로기적 방패로 리용하였다 현재 이 팟쇼적인 지정학사상이 미제국주의자들에의하여 전파되고있다 이엘리학제인구소가 미국에서 지정학의 묘상(苗床)으로 되었으며 이 연구소의 소장인 화란인 엔·쓰피크멘이 미국지정학의 창시자로 인정되어있다。

쏘베트군대가 자유애호인민들의 승리를 예견하면서 독일팟쇼군대에게 일층 파멸적인 타격을 주고있던 제二차세계대전의 행정에있어서부터 미제국주의의 사상가들은 독일파시즘의「사상적」유산을 미국식으로 개조하기 시작하였다. 악명높은 지정학과 기타 팟쇼적「리론」의 미국식변종이 나타나자마자 이번종들은 미국독점자본의 지배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목적과 다시말하면 미국이 전쟁에있어서 추구하고있던 기본적 목적과 부합되었다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인 쏘베트동맹이 민주진영의 선두에 서있으며 또한 제국주의적 세계지배계획실현의 주요한 장애로 되어있는바 미국과 영국의 반동층은 쏘베트동맹의 강화를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서방과 원동에서 세계반동의 전초인 독일과 일본을 완전히 격멸하는것을 백방으로 방해하였다 제二차세계대전이 끝나기전부터 미국반동파는 새세계전쟁을 무한히 선전하였다 지정학에관한「학설」에 세계지배를 갈망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목적과 부들어맞게되었다。

미국의 팟쇼화되고있는 지정학자들의 신조는「세계정책에있어서의 미국전략」이라는 쓰피크멘의 저서이다 이저서는 제二차세계대전의 최성기이던 一九四二년에 세상에 나왔다 쓰피크멘의 도식「圖式」은 복잡하지않다 그는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및 국가적활동에 있어서「자기목적인 력량」을 각방으로 찬양하고있다 강제를 자기 목적이라고하는 이러한 구호들은 결코 독창적인것도 아니며 새로운것도 이니다 그들은 쓰딸린동지가 말한바와같이「인간의 면모를 잃어버렸으며 야수의 수준에까지 타락된」히틀러두목들의 언사를 되풀이하고 있을따름이다。

이 제국주의적인 구호들의 의미는 극히 명백하다 문제는 우선 새 강탈전쟁을 준비하며 자본주의국가가 피착취대중과 로동계급을 가일층 공격하게됨에있다。

여기에있어서 제국주의의 사상가들앞에는 전쟁의 실지적 원인과 목적을 은폐할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의 지정학은 전쟁의 주요한 원인을 국가주권과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이라고 성명하며 또한「세계정부」즉 국제관계에있어서「질서를수립할」만한「최고정권」이 없기때문이라고 성명하는것이다 쓰피크멘은 다음과같이 성명하고있다 즉「소위국가의 자주독립과 최고정권 및 대외적 구속력의 결여가 국제관계에 대하여 독특한 무정부적성격을 부여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무식한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적이다 맑쓰—레닌주의가 가르치고 있는바와같이 제국주의전쟁은 독점자본이 발전한 결과이며 이 전쟁들은 제국주의계단에있어서 자본주의발전의 불균형성때문에 앞서게된 어떠한 나라들의 독점자본에게 유리하도록 또한 독점자본을 부요케하기위하여 세계의 세력권(勢力圈)을 재분할하게된다 독점자본의 조건하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국가들간의 투쟁이 더욱더 가혹한 성격을 띠게된다 또한 제국주의의 렬강과 그들의 식민지 반식민지 및 예속국가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된다。

제국주의의 종복인「학자」들이 제아무리 은폐하려고 하더라도 인민들은 제국주의전쟁의 실지적 원인들을 점차로 리해하게된다 이와아울러 전세계의 수천만의 일반사람들은 평화와 안전보장의 신뢰할수있는 성책이며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옹호자인 쏘베트동맹에대하여 막대한 동정을 갖게된다 쏘베트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압박이 청산되었으며 주권있는 민족들의 우의적 협력에 수립되었다 쏘베트다민족국가는 군사적 시련의 전화(戰火)속에서 엄격한 시련을 극복하였다 무권리한 민족적 소수에대한 억압을 토대로하는 자본주의적 다민족국가는 만약 그가 쏘베트동맹의 인민들이 영예스럽게 극복하고 나온바와같은 그러한 시련을 당하게되었더라면 그는 여러부분으로 분렬되었을것이며 이시련을 극복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쏘베트인민들의 위대한 다민족적 가족의 사상정치적 통일성은 조국전쟁의 결과로 더욱 튼튼하여졌으며 또한 단련되었다。

미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충복인 지정학자들은 이 모든것을 자본주의국가의 근로자들에게 은폐하지못한다 그들은 자기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사상적으로 무장해제 하지못하며 집단적 안전보장의 사상을 와해시키지못하며 세계지배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참망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새 전쟁방화자의 한 사람인 게르만·화이베르는 一九四七년에 발간된「미국의운명」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군자력을 리용하여「세계지도권」을 장악할것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로골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이 지정학자는 새전쟁을 요구하고있으며 또한 그는 실력을 행사하는것이 미국운명의 명령이라고 성명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화이베르와 기타의 지

정학자들은「세계지도권」의 실현이 단지 경제적 압박만으로써는 불가능하다는것을 감추지않는다 미제국주의의 사상가들은 군사력에대하여 상고(上[illegible]) 하고있다 전후의 조건하에서 미국의 경제적 팽창이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인 군사정치계획에 복무하고있음은 또한 명백한바이다。

실력을 모든 문명의 자기목적이며 토대이라고 말하는 지정학자들의 선전은 실력을 사회과학의 출발점으로 보려고하는 현대 부르죠아 정치경제학의 시도와 호흡이 맞는다 미국경제협회의「저서」들에는 다음과같이 씌어있다 즉「현대 경제학자들속에서는 실력을—재산보다 더많은 정도로—사회과학의 출발점으로 보는경향이 나타나게되었다」。

제국주의적 강제에대한 지정학자들의 변호와 또한 마치「생존경쟁」이 국가의 대외정책의 토대로 된다는 그들의 신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부르죠아사회학이 로자(勞資)간의 적대와 계급투쟁과 또한 제국주의진영내의 모순을 은폐하면서 이러한 공식으로 나가게되는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부패된 현대 부르죠아과학의 이러한「언사(言辭)」는 제국주의렬강사이의 모순과 세계재분할투쟁이 진행하는 제원인을 진실로 과학적으로 또한 맑쓰주의적으로 분석하는 앞에서는 사상루각(砂上樓閣)처럼 허물어지고만다。

지정학자(地政學者)들은「생존경쟁」이라는 공식을 첫자리에 내놓으면서 마치 자본주의국가들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원료원천과 시장과 리권을 획득하려는 책동이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지않는것처럼 립증하려고한다 실지에있어서 제국주의국가들의 기본목적은 새로운 원료원천과 판매시장과 자본투자권을 획득하는일이다 초력사적 성격을 가진 추상적인「생존경쟁」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나라 령토와 재부를 획득하려는 충분히 구체적인 갈망이 미제국주의의 대외정치적 및 경제적침략의 목적으로 되어있다。

지정학자들은「균형정책(均衡政策)」의 준제를 투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성명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균형을 수립하기위하여는 과도히 강력하여진 린국(隣國)을 반대하며 뿐만아니라 멀리떨어져있는 국가들을 반대하여 직접행동을 취하여야한다」고 쓰피크멘은 말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지정학사놀은 강탈전쟁을 정당화하기위한 온갖 결론들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제공해주고있다 제국주의의 내변—학자」들은 강탈전쟁, 인민들의 노예화 및 각종각양의 제국주의적팽창을 제한없이 로골적으로 설진하고있다 쓰피크멘과 기타의 지정학자들은 새 전체주의(全体主義)」전쟁을 적전하고있다 그들의 모든「철학」은「절대적이며 영구한 법칙」에 의하여

미국이 반드시 세계지배를 전취하여야하며 또한 이 계획실현을 방해하였으며 또한 장차 방해하게될 모든 나라들은 무장력에 의하여 반드시 격파되여야한다는 그러한 본질을 가진 되지못한 사상창조에 종사하고있다 미국판 팟쇼지정학의 내용은 이와같은것이다。

미국지정학자들은 월가의 침략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계획을 론증하기위하여 미국의 지리적 형편을 인증하고있으며 또한 지리적 형편이 미국의 워싱톤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대외정책의 토대를 결정한다고「증명」하고있다。

미국지정학자들의 이러한 신념도 또한 비판을 막지못할것은 당연한일이다 맑쓰는 미국을 억압하던 영국척식자(拓殖者)들을 반대한 미국인민의 독립전쟁을「구라파부르죠아지의 경종(警鐘)」이라고 칭하였다 백여년이 지나갔다 브·이·레닌의 표현에 의하면「한줌도못되는 억만장자(億萬長者)들의 가장 새로운 자본주의적임금노예」로 되어버린 미국인민은「악한들을 부요케하기 위하여 一八九八년에 비률빈인민들을 탄압하였다……」이것은 미제국주의가 침략으로 향하는 첫 거보이었다 四반세기(四半世紀)가 지나 제一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쓰딸린동지가 말한바와같이「구라파제국은……지금 미국에게 재정적으로 예속하게되였다 지금에와

지는 [illegible] 미국자본의 경제적 및 정치적노예로 만들 [illegible]「트루맨주의」「마샬안」이 [illegible]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리해할 열쇠를 지[illegible]에서 찾을수없음은 말할것도없다。

쓰딸린동지는 사회발전에대한 지리적 환경의 역할을 다음과같이 규정하였다「지리적환경이 사회발전의 항구적이고 필요적인 조건의 하나임은 물론이다 그것은 물론 사회발전에 영향을준다 즉 사회발전의 보도(步度)를 촉진시키며 혹은 지연시킨다 그러나 그 영향은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다 왜그러냐하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지리적 환경의 변화와 발전보다 비교안되게 많치 속하게 진행되는때문이다」쓰딸린동지는 계속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즉「수만년동안 거의 변하지않는것이 수백년간에 근본적변화를 경험하는것의 발전의 주되는 원인이 될수없다」(「쏘련공산당(볼세위끼)략사」조선어판 二〇五—二〇六폐지)。

위과학(僞科學)인 지정학은 사회발전에대한 지리적환경의 결정적영향을 [illegible] 하지않는다 지정학의 목적은 다른 점에있는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illegible] 미국의 세계지배 전취를위한 [illegible] 고집어내려는것이다。

미국 지정학자들은「미국을 [illegible] 세계와 대부분에 대하여 [illegible] 대포

하게된다」고 부르짖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령도권을위한 투쟁사야말로 미국 트러스트와 은행독점물의 만행사(蠻行史)인것이지 결코 아메리카대륙의 동안(東岸)과 서안을 구비쳐흐르는 물결의력사가 아니다 서반구(西半球)에서의 미국의「누구도 론쟁할 여지가없는 령도권」이라는 쓰피크멘의 신념도 역시 현실과 조금도 부합되지않는다 새 세계에서의 미국의 령도권은 우선 이령토내의 대다수의 국민의 반대를 받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제공화국의 인민들은 북미주 자본의 노예로될것을 반대하여 더욱 결정적으로 싸우고있다 이사실은 쓰피크멘자신도 인정하지 않을수없었다 즉「우리는 우리의 남쪽 린국들을 위하여 북쪽의 거상(巨像)으로 남아있다 이는 실력정책이 지배하고있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만인 즉 위험을 의미할수• 있는것이다」。

지정학자들은 카나다에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였다 一九三六년에 경제학자 게르베르트•마샬은「카나다에대한 미국의투자」라는 저서에서 다음과같이 썼다 즉「카나다에대한 미국의 산업투자를…」「경제적 제국주의」의 출현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몇개의 례외를 내놓고는)「이것은 지리학적근접성의 결과이다」。

실지에있어서 카나다의 노예화—카나다에서의 미국투자의 거대한 집성이 이것을 증명하여준다—는 물론 카나다가 미국과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결과에서 나온것이 결코아니다. 카나다의 독립을 위협하는것은 추상적인 자연적 요소인것이아니라 무엇이 실재하는 미국의 독점자본이다 마샬은 미국지배에대한 카나다인들의 예속의「불가피성」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위하여 이「저서」를 썼다 그러나 하나다에서의 미국의 지배권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확고부동한것이아니다 서반구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북미독점자본의 노예로되는것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

지정학자들은 세계지배에대한 미국의 참망을「투쟁」하는때있어서 마치 미국이「위협에 포위」되어있다는「결론」을 내리고있다 스피크멘은 다음과같이썼다 즉「서반구는 三개의 대양(大洋)—태평양 북방양 대서양—을 경유하여 넓은 세계에 의하여 포위되어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실지에있어서는 현재 누구도 미국을 위협하지않는다 이와반대로 그들자신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사상가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의도와 새 전쟁준비를 전세계인민 및 미국인민들로부터 은폐하기 위하여「미국의 민족적 안전보장에대한 위협」을 부르짖고있다 례하면 팟쇼화하는 기자인 불두인은 一九四八년一월에「포린 아페어즈」에 발표된「안전보장에

관한 전설」이라는 론설에서「미국이 지금 자기력사에있어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가장 비난을 받게되었다」고 썼다 이러한 구실밑에서 그는 미국을 백방으로 군사화하며 전체주의 전쟁준비를 더욱 결정적으로 실시하며 미국내에서 로동계급을 탄압하며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자유의 잔재를 청산하는 정책을 더욱 결정적으로 실시할것을 권고하고있다。

실지에있어서 미국의 지배층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있다「트루맨주의」「마샬안」군사예산의 막대한장성 군대인원수의증가 모든 국내생활의 군국주의화—이 모든것은 미국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이 팽창과 침략의 길에 들어섰으며 새 세계전쟁을 준비하는길에 들어섰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타프트•하트리법령과 또한 국내에서 공산주의자와 •기타 진보적인사들에대한 추적과 국가기관의 숙청은 미국내에서 미제국주의자—전쟁방화자—들에게 알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미국인민의 초보적인 부르조아민주주의적 자유의 잔재까지라도 없새버리며 탄압해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계획의 일부분으로서 독일과 일본의 군사잠세력을 복구시키며 쏘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준비에 그들을 리용할것이 들어있다 이때에 쓰딸린그라드격전시에 지정학자 쓰피크멘이「현하의 군사적노력은 군국으로서의 독일의 격멸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고 쓴것은 특징적이다 또 그는 이와같은 정신으로서 원동문제를 보았다 즉「전후시기에있어서 가장 곤난한 문제는 일본문제인것이 아니라 중국문제로 될것이다 부흥된 생기있는 四억의 인구를가진 군대화한 중국은 아세아에서 단지 일본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모든 서방렬강들에 대하여 위협을 주게될것이다」。

一九四二년과 一九四三년에 쏘련이 모르게 영독대표자사이와 미독대표자사이에 진행된 담판과 그들의 단독강화체결에 관하여 쏘베트정보국과 쏘련외무성에서 발표한 제사실과 문헌들은 지정학자들의「리론적」진술들이 극히 확실한 실천에 의거한것이었으며 그들이 미영의 반동층이 전쟁에있어서 내놓은 그 목적을 표현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목적은 국제 제국주의를 강화하며 전세계에서 민주운동을 탄압하는것이다。

이미 전쟁시에 쓰피크멘은「세력균형」을 수립하기위하여「바르또해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동구라파국가련맹과 영국—쓰칸지나비아국가군(群)과 지중해주위에 라틴국가군」을 결성할것을 제의하였다 미국지정학은 낡은세계의 나라들로부터의 미국에대한 가상적(假想的)위협을 말하면서 쏘련을 포위할 광란스러운 도식(圖式)과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새로운「전염병 차단선」을 꾸며냈다 미국대표

팟쇼사상가들은 자본주의제도에대한 근로대중의 격분의 장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에대한「비판」으로 가장하고있다 예하면 버ㅡ넘은 다음과같이 말공부를하고있다 즉「미국은 대중적실업 항상적인 농촌경제의 불경기 부채의 막대한장성 유휴자본의 현존 마지막으로 기술적 진보의 리용에대한 무능력을 면하지못하였다」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숙아(宿痾)에대한 이 인정은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없이도「자본주의의 몰락」계단이 온다는것을 선포하기위하여 버ㅡ넘에게 요구된것이다 버ㅡ넘은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즉 자본주의의 태내에서「자본가들의 사회적 지배권이 몰락한다 자본주의는 실지에있어서 자기의 력량을 상실한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와 교체되는것이 아니라 실업자와 정부내에서의 행정관들의 출현과 교체되는것이다」ㅡ행정적변혁」의 지지자들은「개인적 기업부위의 축소」에 관하여 말하고있다 즉「기업소의 대부분은 정부의 직접적인 운명으로 넘어간다 나머지 기업소들도 역시 더욱더 국가적 통제의 대상으로 된다 이와같이 미국의 부르죠아국가가 대독점자본들의 리익을위하여 국가의 경제생활을 간섭하게되는것을 미제국주의의 팟쇼사상가들은 대독점자본의 지배권의 분렬이며 몰락이라고 부르고있다 그뿐아니라 그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자본가들의 경제지도권을 점차로 완전히 제거할수없다고 자만하고있다。

레닌은 일찌기 一九一七년에 자본주의경제의 국가통제의 실제적 목적과 의의를 제一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기초하여 밝혔다 그는 말하기를「미국이나 독일에나 다같이 로동자(부분적으로는 농민)에게는 군사적징역(••••) 은행가와 자본가에게는 극락을 지어주도록 경제생활을 통제한다 그들의 통제는 로동자들을 기아에 이르기까지「끌어올리」며 자본가들에게는(비밀로 반동적ㅡ관료주의적으로) 전쟁전에있었던것보다도 높은 리윤을 보장해주는데있다」고 썼다(전집제二十一권 一六七페지)

제二차세계대전은 이 레닌의 명제를 새 힘을가지고 확인하였다 이 전쟁시에 대독점자본은 미국전시경제의 전능(全能)의 주인이였다 느・아・워즈네센스끼는 맑쓰주의자로 자칭하는 몇몇리론가들로서「자본주의제국의 전시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결정적역할」을 론하는자들을 조소(嘲笑)하였다 국가는 전쟁시에도 자본가의 치부(致富)의 도구였다 느・아・워즈네센스끼가 지적하고있는 바와같이「미국의 독점자본의 힘은 취중 그들이 미국국가를 자기에게 복무시켰다는점에 들어있는것이다」(느・워즈네센스끼「조국전쟁시기의 쏘련의전쟁경제」三一페지)

「행정적변혁(行政的變革)」의 사상적 대변인들은

아렌・달레스는 一九四三년二월에 독일인들과의 단독적 담판과정에있어서 이와같은 계획을 제의하였던것이다。

쓰피크멘의 도식은 一九四七년九월에 웨델립프만이 선전한 미국의 비호하에 있는「대서양련합」계획과 조금도 다름이없다 립프만은 미국의 지도적인 역활밑에서 쏘련을 반대하는 대서양제국의 군사뿔럭을 창설할것을 생각하고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대서양군사동맹」을 확장하며 변경시키려고하는 서방군사동맹과「마샬안」은 미국지정학과의 침략적기도가 현하의 미국대외 정책방침과 완전히 부합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

미제국주의의 팟쇼화하는 사상가들은 세계지배에대한 미국독점자본의 갈망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지정학과 함께 또한「행정적변혁(行政的變革)」및「초국가(超國家)」의 사상을 내놓았다 이 교활한 언사밑에서 미국반동파는 각종의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는 파시즘과 야수적이며 강도적인 제국주의에대하여 가면을 씌우며 제二차세계대전의 발생원인을 기만적으로 설명하며 미국내에서의 국가적조정을 장식하며 또한 국가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조정이 독점자본의 권력과 그들의 결정적역활을 제한한다고 기만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지배를위한 미국독점자본의 투쟁이 마치 미국의「민주적 안전」방위인것처럼 표현하려고 애쓰고있다。

一九四一년에 미국에서 젬쓰・버ㅡ넘의「행정적변혁」이라는 저서가 출판되였는데 이책은 그후 一九四二년에 영국에서 재판되였으며 또 一九四三년에 미국에서 재판되였다 뉴욕대학의「철학가」는 이책의 첫페지부터 독일이 일으킨 제二차세계대전을「보통적인 전쟁」이 아니라「사회혁명발전의 인계단」이라고 성명하였으며 또한 히틀러도당의 군사조직이 마치「구라파대륙의 사회제도를 개조」할 사명이나 가지고 있었던것처럼 성명하였다 이 더러운 책자에있어서 버ㅡ넘은 파시즘에대한 미국반동세력의 명백한 사모를 표시하였다 제二차세계대전의 과정에있어서 미국반동분자들은 팟쇼침략자들을 완전한 격멸로부터 구원하려고 백방으로 시도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그들의 매문가(賣文家)들은 국내에서 팟쇼적 이데올로기를 광범히 보급시키기위한 지반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사회여론을 조작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독일에서 파시즘은 민족사회주의적 복장을입었다 미국에서 팟쇼적 이데올로기는 중류미국인을 마비시키기위하여 다른 복장을 즉「행정적변혁」이라는 엄자를쓰고있었다。

「행정적제도」라함은 국가의 팟쇼화와 인민대중의「제압」뿐만아니라 이와함께 버—넘이 민족주의의 잔재라고 데마고기적으로 선포하는 민족자주권원칙의 폐지를 또한 의미하는것이다「자본주의적 민족주의는—이「철학자」는 가르키고있다—상당히 다수의 독립적주권국가를 표시한다 그런데「행정적제도」는 이러한 정치체계를 영원히 파괴하고 몇몇의 주권지역 또는 초국간(超國家)로 이것을 대치(代置)할것을 호소하는것이다」이렇게「초국가」운운의 표어뒤에는 세계국가들을 미국에게 예속시키려는 가장 광포한 미국 반동층의 의도가 숨어있다。

보는바와같이 이명분은 소위「행정적변혁」과「초국가」론이라는것은 독일파시즘의 아메리카변종(變種)이외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것은 히틀러식「신질서」의 아메리카판을 전세계에 보급시키려는 시도이다。

조국전쟁에있어서의 쏘련의 세계사적승리、쏘베토사회제도 및 국가제도의 승리、영웅한 쏘베트군대의 승리와 침략국가군의 패배는 아메리카식「신질서」론자들을 격노시켰나 一九四七년에 버—넘은 신저(新著)「세계지배를위한 투쟁」을 발간하였는데 이가운데서 그는 대쏘전쟁을 노골적으로 호소하고있다 그는「자원적 원칙에서 세계정부를 형성하는것은 현재로서는「불가능」하므로 미국비호하의「단국정부」를 수립할것을 지지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대변인들은 미국이 제二차세계대전의결과「세계의 초국가」로 될것을 기대하였었다 미국의 반동층은 쏘련이 히틀러독일과의 전쟁에서 약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것이다 그러나 쏘베트동맹의 군사적 경제적 승리、그의 강화 중앙 및 동남구라파제국에서 자본가정권의 철폐、전세계에걸친 민주진영의 위력장성、국제파시슴의 격멸은 이런 계획들을 파탄시켰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파시스트자본의 세계지배권수립을위하여 새 전쟁을 호소하고있다 전쟁방화자들은 수치로운 실패로 돌아간 파시스트침략자들의 모험적 프로그람을 목표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세계인민들은 력사의 교훈을 기억하고있다 그들의 선배 히틀러도배가 당한것보다도 한층더 수치스러운 파멸이 새 세계지배요구자들을 기다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후의 그들의 무제한한 팽창을 정당화하기위하여「기회균등」주의를 구실삼는다「기회균등」이라는 표어뒤에 숨어서 미국은 미국자본의 침투 원료자원의 강점 관전산업부문의 점유를 촉성하는 노예적 통상조약과 협정을 타국에 강요하는것이다「마샬안」에 의하여 서구라파제국에 강요된 쌍무협정(双務協定)이 그러한것이다。

대자본가들은 마치「생산수단에대한 직접적 감시로부터 떠났으며」「개인기업의 령역에서나 국가적범위에 있어서나 생산에대한 통제에있어서 점점더 큰 역활이 행정자의 수중으로 이행하고있다」고 타변(馱辯)을 롱하고있다 그러나 이 소위「행정자」들은 실지에는 독점자본에 봉사하고있으며 그들로부터 보수의 형태로 수백만금을 받고있는것이다「행정적변혁」론자들은 제국주의시대에 널리 보급되며있는 기능상자본(機能上資本)으로부터의 소유상자본(所有上資本)의 분리를 마치 독점전능(獨占全能)의 파탄인것처럼 표시하려고한다。

이런 허위의「리론」은 소위「참여제도(參與制度)」가 가장 유력히 발달되고 유가증권의 발행—금융과두를 발전、공고화시킴에있어 중요한 역활을 하는 금융자본의 주요활동의 한가지—이엄청난 규모에 달한 나라 즉 미국에서 깊은 뿌리를 박았다 一九一○년 미국의 유가증권 총액이 二六四억딸라였다면 제一차대전후의 十년간에만—一九一九년내지 一九二八년 一九四억딸라의 유가증권이 미국에서 발행되였었다「소유」로부터「통제」의 격리(隔離)를 유유하는 론의는 제국주의시대에 자본주의제국에서 나타나는 금융과두의 전능과 압력의 강화로부터 주의를 전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것이다。

호전적 제국주의자들에게「행정적변혁」론이 필요한것은 물론 결코 자기지배권의 토대를 약화시키기위해서가아니라「대중을 민족히 제압」하며「로씨야식방법의 반복을 예방하고 자유로운 무계급사회로의 완전 결궤(決潰)를 앞질러 막을」목적으로 히틀러독일의 선례에준하여 국가를 팟쇼화하기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다시말하면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데로 즉 독점자본의 가장 반동적 강압적인 독재」이런것이 버—넘도당의 새로운「행정적제도」의 내용인것이다「행정적변혁」—이것은 아메리카화한 파시스트정체의 은폐물에 불과하다。

파시즘이란 전쟁이다 그러므로 미국친(親)파시스트분자들이 제국주의적 략탈전쟁을 마치 새로운「행정적제도」에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혁명적」전쟁인것처럼 광고하는것은 기이할바없는것이다「모든 경제는 전쟁이다 전쟁은 모든 인류사회의 정상적 불가분적요소이다」—이렇게 미 제국주의의 사상적대변인들은 주장한다 더우기 그들은 그들이「행정적」이라고 칭하는 파시스트정체(政体)는 총력전쟁수행에 가장 적합한것이라고 언명하며 또한 미국은 제二차세계대전을 맞이하였을때 군사적방면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적방면에 있어서도「준비되어있지 못하였다」고 다시말하면 팟쇼화되여있지 못하였다고 유감을 표시하고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기회균등」주의를 어떤 의미로 리해하는가는, 례하면 一九四七년四월二七일부 미국전국공업협회의 성명서 명백하다 미독점자본가들은 미국개인자본이 그곳에 정착 투자될 나라들은 외국(미국이라고 읽으라!)자본에대한 차별대우권을 포기할것, 미국의 투자는 현지정부측의 「불공평」한 경쟁에 대하여 보호받을것, 특히 외국자본에 속한 기업과 경쟁하는 신기업의 창설에 정부대여를 불허할것, 외국재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없는 완전히 유효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할것등을 요구한다。

미제국주의 변호자들은 「기회균등」주의를 자유통상의 부활이라고 사칭한다. 이 주장의 불합리성은 전혀 명백하다 제국주의시대에 자유통상을 호소한다는것은 공상이다 「기회균등」주의는 자유통상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이 주의는 미국으로부터의 공업상품수출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타국의 원료자원을 점령하는데 근거두는것이며 이와함께 미국내에의 수입은 앞으로 일층 제한할것을 예정하는것이다. 마국경제협회는 「미국의 전후통상정책」에 관한 보고가운데서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三○개의 협약은 수출촉진에는 유효하였으나 수입무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註)고 인정하고있다。

(註) 미국이 一九三四년—一九三九년 기간에 「통상조약에 ·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타국과 · 체결한 「통상제협약을 념두에 둔것인데 전기 「통상조약에관한 법령」은 각종 상품에 대한 관세를 一九三○년의 기정법령에 대하여 五○% 인상 또는 인하할 권리를 미대통령에게 허여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미국의 주요수입과목은 원료이다. 그러나 미독점가들의 의향은 그 수입의 확장에 있지아니하고 타국의 원료원천점령에 있다 이 점에있어 독점가들을 열심히 원조하고있는것은 미국정부인데 동정부는 원료 그 중에서도 석유와 우란채취업에대한 미국의 대외투자를 백방으로 장려하고있다 트루맨이 국회에 보낸 一九四七년중 경제보고 가운데는 건설설비 및 저장에대한 국내투자가 一九四七년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二四%가 증가된 반면에 대외투자는 八三%가 증대되었다고 기술되어있다。

「마샬안」의 제조건에 의하여 서구제국과 그 식민지의 원료자원에 대한 무제한한 통제권이 미독점자본의 수중으로 이행하고있다 이 쟈스트를 수석으로하는 미국특별위원단은 영 불 및 기타 국가들과의 교섭시에 이들 제국과 그 식민지의 원료자원에 관한 자료 및 「마샬안」에 의하여 그들이 받는 차관의 대가로 제공할 군사전략적재료 및 원료에관한 완전한 자료를 부여할것을 요구하였다。

새 전쟁의 준비를 목적으로하는 방대한 전략원료를 저장하면서 미독점자본가들은 서부제국의 식

민지에 침투하는데 여념(餘念)이 없으며 새 원료원천을 점령하며 식민지 및 예속국가의 근로대중을、착취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통상의자유」와 「기회균등」을 지지하나 실지로는 서구제국의 민족적 독립과 국가자주권을 해소시키며 산업 대외무역 재정 및 통화를 미독점자본에 종속시킴으로써 이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노예화시키려고 고심노력하고 있는것이다 이와함께 「마샬화」하려하는 서구제국의 정부들은 미제국주의정책의 집행자로 화하고있다。

미국출판물들은 「미국식 자유기업제도」를 자랑하여 「미국인은 경쟁을 맡고있으며 또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있어 미독점자본가들이 자기의 상대자와 경쟁자를 억압하려고 애쓰고있다는점은 묵과하고 있는것이다 자기의 상대자와 경쟁자를 억압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있으며 전쟁에서 비만(肥滿)해진 미국 은행가들에게 유리한 구라파의 전후경제붕괴를 광범히 리용하고있다 세계각지에서 구시장(舊市場)을 유지하고 새 시장을 강점하려는 무제한한 욕망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차관(借款)과 장려금 군사전략적 방책등을 포함한 온갖 가능한 강압수단을 취한다。

전후에있어서의 미국의 경제적 팽창의 전실천경험에 의하면 미국 「행정자」 측의 경제적통제는 미국에대한 타국의 정치적예속을 또한 동반한다는것이 명백하다 미국의 경제적팽창은 전략적수단에 의거하며 그 다음에는 그 자체가 미독점자본의 세계지배권전취를 위한 전략계획실천의 중요한 보충적 수단으로 되는것이다 「기회균등」주의의 뒤에는 브·므·몰로또브가 말한바와같이 「온국가들의 주인으로되며 이 나라들에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질서를 수립」할것을 목표로하는 미독점자본의 침략적 팽창정책이 숨어있다 몰로또브는 「어떠한 민주주의국가의 정부나 만일 자기위신을 존중히한다면 만일 그것이 어떠한결과에 도달할수 있는것인가를 리해한다면 이런 종류의 략탈적계획에 열중할수없다」는 것을 경고하였다(브·므·몰로또브—파리평화회의에서 한 연설)

× × ×

세계지배를위한 투쟁에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약간의 평화주의적 「사상」도 또한 리용하고있다 만일 미국반동의 호전적 이데올로기들이 미국의 무제한한 독재 무구속한 팽창의 실현에 타국가들을 직접 종속시킬것을 호소하고있는것이라면 「평화주의자」들은 「국제문제에대한 미국의 평화적지도」를로하는것이다 그들은 미국을 전세계지배를 달성하려하고있는 지도적 제국주의강국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제국주의적 경향이없는 민주주의국가인것처럼 표현한다 그러나 이들 「평화주의자」들도 역

영원히 종결지을 사명을 가지고있다고 말한다 맬러리가 설계하는 이「경제적동맹」이란 어떤것인가? 맬러리의 저서에대한 찬사에찬 서문가운데서 부르죠아경제학자의·밋첼은 이「경제적동맹」의「기회균등」주의에 기초두고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수위로하는「경제적동맹」의 힘을빌어 실현되는 허명(虛名)높은「기회균등」은 바로 미제국주의의의 팽창도구이기도한것이다 더우기 제국주의대강국인 미국을 수위로하는 국가들의, 어떠한 경제적동맹이다 그것은 항상 기수와 기마의 동맹을 회상시킬것이며 항상 타국의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을 반대하는 방향을 취하게될것이다 여기에대해서는「민족적실력과 대외무역의 기구」라는 책가운데 아주 명백히 서술되어있다 즉「만일 우리가 아우타루키(자급자족)와「경제적침투」간의 무익한 선택으로부터 국제적경제협조의 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원한다면 우리는 개별적국가들로부터 통상의 조직과 조절에대한 권력을 박탈해야만한다 이 권력은 국제적조직에 이양되어야할것이다……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관한 문제에대한 최근의 연구는 경제정책분야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민족자주권개념을 배격하는 중요한 론증들을 제시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평화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를 열심히 미화하고 미국은 식민지제국이 불필요하다고 언명한다 현실과는 반대로 국들은, 마치 미국자본주의는 해외시장에대해서 무관심한것처럼 주장한다 미국의력사는 적어도 최근 二十五년간「평화주의자들」의 이 어리석은 공담(空談)을 완전히 폭로하였다 미국인이 一八九一년에 비률빈제도(諸島)를 강점한것은 비률빈시장의 식민지화를 위하여서가 아니였던가? 최근 라틴·아메리카공화국들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어디에 귀착하였는가 이 나라들을 미국상품을위한 판매시장으로 화하며 미국산업을위한 원료원천을 강점하는데 귀착하지않았는가? 미국석유독점자본의 더욱더 높아가는 대외투자는 원료원천을 강점하는 무기가아닌가? 이미 제一차 및 제二차세계대전사이의 기간에 미국은 점증적 규모로 자본을 수출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니였던가? 끝으로 미독점자본이 그 가운데서 역할을하고있는 국제카르텔의 존재는 무엇을 반영하는가 개별적 제국주의 국가군간의 시장과 세력권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분활하려는 투쟁이아닌가?

미국제국주의의 전력사는 미국자본주의가 판로, 원료원천 및 자본투자권에 대하여 마치 무관심할것같이 말하는 바이롤형(型)의 미국「평화주의자들」의 위선적 증명과 놀랄만한 모순에 처해있는것이다。

쓰딸린은 일찌기 一九二五년十二월에 전자 자본 [illegible] 있다고

시 꼭같은신(神)웹·스트리트를 섬기는것이며 허무한「미국의평화애」라는 론의로써 그들은 미제국주의의 략탈적정책을 숨기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평화주의」이데올로기는 적라라한 침략주의적 견교보다 가일층 위험하다。

「아세아에있어서의 미제국?」이라는 책의 저자 에이·바이론은 미국은 마치 일반 사람들의 리익을위하여 국제문제에서「지도적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는것처럼 주장하고있다 그는 미국의 위험한 미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공포는 무근거한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정색(正色)하고 미국은 침략사의 길을 걷고있지않다는것 제국주의는「우애(友愛)와 평등사상이 깊은뿌리를 박은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독자에게 확신시키려고 시도한다。

또한사람 미국령도하의「경제적민족동맹」의 창조자인 옷토·맬러리도 역시 침략정책은 미국과 무연한것이라고 단언하고있다 맬러리의 론증은 참으로 가소롭다「미국은 식민지 관할청(管轄廳)조차 안가지고있다 우리는 우리 식민지행정을 각종부국(部局)에 분담시켰다 미국은 식민지통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설치를 거부하였을만큼 식민지제국을 반대하는 립장에 있는것이다」라고 그는 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이미 반세기나 비률빈과 자기의 라틴·아메리카식민제국에서 주인노릇을하는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마치 현재 이미 비률빈에게「독립」을 준것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비률빈은 미국광면에게 광물 및 림산부원 전력 및 기타 자연부원 농촌 및 도시경제의 무제한한 개발권(開發權)을 부여하는 보유조문(補遺條文)을 자기헌법에 기입할것을 강요당하였다 비률빈의 형식적「독립」은 진정한 독립과는 아무런 공통점도없다 비률빈은 종전과같이 자기의 제국주의적 종주국 미국에 대하여 식민지적 예속관계에 남아있다。

일찌기 一九二四년에 어떤 진보적인 미국평론가는「우리나라군병의 지배하에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군소국가(群小國家)들에있어서 자기자신의 애란(愛蘭) 자기자신의 애급 자기자신의 인도로 육성하고있다」고썼다 지나간 사반세기동안 미제국주의는 라틴·아메리카와 비률빈도 모자라서 서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에서도 자기식민지를 수립하려고 애쓸만큼 비만해졌다。

이런 모든 사실에대해서는 미제국주의의「유식한」조수들은 침묵을지킨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광범한 인도대중에게 명백히 알려진바로써 이들 인민대중은 미국제국주의에의한 경제적 및 정치적예속화에 대하여 더욱 결정적으로 반항하고있다 맬러리는 미국이야발로 전부를 포섭(包攝)하는「경제적동맹」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 민족주의를

가리키면서 「지금 세계의 금융적 착취의 중심지는 대체로 북미합중국이다」라고 하였다 (전집 제七권 二六六페지). 제二차세계대전과 불균형적발전의 첨예화의 결과로 이 경향은 현저히 격화되었다 전후 시기에 미국이 제국주의적 반민주적진영의 지도력으로된것은 우연한일이 아니다。

× × ×

브·이·레닌은 제국주의와 기회주의에 반작용하는 세력의 의의를 재삼 강조하였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제국주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중간의 불상용적 모순을 격화시킨다」고 레닌은 썼다 (전집 제三〇권 二五九페지)

미국금융자본의 팟쇼화하며있는 이데올로기가 새 전쟁방화를 로골적으로 설교하고있는 오늘날에있어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중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제국주의간의 불상용적모순은 더욱 더 첨예화되어간다。

세계지배권을 전취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미독점자본은 제二차세계대전이후 세계반동의 중추로되였다 이들과 통일전선을 이루어 진출하고있는것은 우익 사회주의자들인바 이들은 로동계급의 위업을 배반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 앞잡이로 변하였다 영국로동당의 반동적지도부 [illegible] 기타 불란서의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 이태리의 싸라가트도배 독일의 슈마헬등등 로동운동의 변절자들은 지금 미제국주의팽창의 설교자로 등장하고있다 그들은 새 세계대전을 방화하고있는 미국반동분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있다 「마샬화」는 미국금융과두에의한 서구제국의 예속화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로동당정부와 및 기타 서구 제국정부의 중요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우익사회민주주의지도자들은 미국자본거두들이 구수(口授)한 「마샬안」에의한 노예적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들은 자기국가의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에 내어주며 자기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국가적 독립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인민의 독립과 자유의 위협한 적으로되였다。

제국주의─및 반민주주의진영에 대하여는 쏘련을 수위로한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진영의 공고화된 력량이 대립하여있다 쏘베트동맹은 미제국주의의 기도로부터 제인민의 동등권과 민족적 자주권을 옹호함에있어 튼튼한 지주(支柱)이다 전세계에걸쳐 장성하고있는 로동운동 및 민주운동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서 강화되여있는 민족해방투쟁 전세계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의 단결─이런것들은 민주수의와 사회주의진영의 승리와 담보이다 이 진영은 모든 방향에서 즉 정치적 경제적 및 이데올로기적 방향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고있다 미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것이다。

레닌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 대하여

김 승 화

레닌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로씨야로동운동 뿐만아니라 세계로동운동력사에서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레닌의 이 귀중하고 유명한 로작은 다만 당시의 반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사상적 적(敵)들에게 무자비한 비판을 나리였으며 끝까지 그들을 박멸하였을 뿐만아니라 직결한 과학적 맑쓰주의를 계승 옹호 발전시키였으며 변증법과 사적유물론의 리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쓰딸린의 저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는 레닌의 이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맑쓰주의당 창건의 리론적기초라고 적절하게 규정하였다。

맑쓰주의당의 리론적기초로되는 레닌의 이 저서의 의의를 리해하려면 먼저 이 저서가 나오게된 그 당시의 력사적환경을 살펴 보아야 할것이다。

레닌의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一九〇八년에 저작되어 一九〇九년 三월에 발간되였다 즉 이것은 엥겔쓰가 반듀링론을 출판한 三十년후에 출판되였다 이시기는 로씨야 一九〇五년혁명이 실패되고 반동적암흑이 전로씨야를 휩쓸고 있던때이다。

악마같은 쓰똘리삔은 어금이를 갈면서 로씨야혁명운동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버리려고 온갖 재간을 다하였다。

그는 혁명에대한 비인간적인 탄압정책으로서 혁명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며 볼쉐위끼당단체들을 분쇄하며 혁명가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일방 그들은 지나온 경험에서 검거 학살 교수대 만으로서는 혁명을 근절 할수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학살정책과 병행하여 사상

전선에서 반동적 유심론적 이데올로기로써 맑쓰레닌적 혁명리론에 대체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즉 이로써 혁명리론을 반대하여 인민대중을 반동적 기단적 이데올로기에 복종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혁명의 실패는, 혁명의 동반자들 자체속에서도 분렬과 동요를 가져오게 하였다 혁명의 앙양기에 우연한 동기로 부르죠아 진영으로부터 혁명대렬에 넘어왔던 이 동반자들은 암흑한 반동기가 다쳐오자 벌벌 떨면서 그 목숨을 보전하고자, 혁명을 배반하고 반동에굴복하며 반혁명진영에 공개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반혁명의 파도는 특히 사상전선에 심하였다 많은 류행자가들이 출현하였으며 맑쓰주의를 반대하는 또는 비판하는 무리들이 속출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절은 맑쓰주의자라고 자칭하나 한번도 맑쓰주의의 립장에 튼튼히 서 본적이 없는 일부 당인테리겐차들 속에서 꼬리를 물게되었다 즉 보그다노브 바사로브(이상 볼쉐위끼) 유샤교브 와렌치노브(이상 멘쉐위끼)등이 그대표적변절자이였다。

이 변절자들은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악질적이었고 반동적이였던 마하주의의 반동철학의 페물통으로 모여들었고 반맑쓰주의진군의 졸도역을 놀았다。로씨야의 마하주의자들은 표면 간판에는 맑쓰주의자라고 내걸고 그뒤에서 맑쓰주의를 마음대로 수정하려고 모험하였다 례를들면 一九〇八년에 마하주의자들은「맑쓰주의철학개요」란 그들의 론문(論文)을 모은 서적을 출판하였다 그 서명으로 보아 이것은 가장 맑쓰주의적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였다 때문에 레닌은 이서적의 명칭을「맑쓰주의철학개요」라고 할것이아니라「반맑쓰주의철학개요」라고 해야 될것이라고 그들을 비웃으면서 지적하였다。

맑쓰주의대렬에서 락오 변절된 일부사회민주주의인테리겐차중에는「신종교창설」운운으로써 맑쓰주의에 맞서 보려고 하는자들이 있었다 루나챠르쓰끼 유쉬께비츠 보그다노브 기타와 창신론자 메레즈꼬브스끼 부르기꼬브 기삐우스등이 즉 그것이다 이들의 꼴을 보고 그 흉칙한 춤에 장단을 맞추어준 것은 반동적부르죠아들이었고 그들은 전력을 다하여 종교적사상을 널리 선전침투시킴으로써 대중을 아주 마비시키고 말려고 어깨를 들썩거려보았다 창신론자 루나챠르쓰끼는 바른손에 창신론을 외손에 맑쓰주의를 든 량면주의자였다 그는 미친듯이 외쳤다「과학적사회주의라는것은 여러 종교중에서도 가장 고상한 종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가장 진정한 종교가이다 때문에 맑쓰주의철학은 곧 종교적철학이다」이와같이 그는 어리석게도 과학적 맑쓰주의를 미신적종교에 예속시키려고 하였으며

물과 기름을 혼합해놓고 혼자서 좋아하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었다。

혁명적맑쓰주의자들 앞에는 이 모든 사상분야에서의 가련한 변절자들 사기사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에게 일격(一擊)을 주는 동시에 그들때문에 더럽히려고한는 맑쓰주의당의 리론적기초인 철학적유물론을 엄연히 고수할 긴급한 임무가 나서게되었다。

혁명적프로레타리아당의 명예와 맑쓰주의자의 명예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위대한 혁명의 수령인 레닌은 이 중대한 과업을 흔연히 한몸에 걸머지고 과감하게 나섰다。

이와같이하여서 이 곤난하고도 위대한 력사적 과업을 천재적으로 승리적으로 완수한 레닌은 동시에 크고 수다한 공적들을 맑쓰주의철학발전과 혁명발전에 가져오게하였다。

첫째로 레닌은 맑쓰—엥겔쓰의 철학을 계승하여 맑쓰주의의 리론적근간(根幹)인 변증법 및 력사적유물론을 빛나게 옹호발전시키였고 이에근거하여 일체 변절자 기회주의자 수정과 멘쉐위끼 마하주의자들에게 피할수없는 가혹한 비판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치명상을 주었다 레닌은 반맑쓰주의적 철학적 견해들을 남김없이 단두대(斷頭台)에 올리였으며 특히 마하주의는 가장 악질적이며 반동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격분으로 이에 응답하였고 그들은 레닌의 이 공격과 처벌에서 최고형을 받았다 이와같이하여서 레닌은 이 투쟁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로동계급의 벗이며 어떠한 세계관이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계급의 세계관인가를 다시한번 명백히 가르쳐주었다。

둘째로 레닌은 로씨야로동계급의 지나온 혁명투쟁경험 특히 제一차 로씨야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의 경험 및 서구라파 로동운동의 경험을 살리어 맑쓰주의철학을 풍부히 하였을뿐만아니라 그를 새계단에 끌어올리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혁명적볼쉐위끼당의 리론적기초를 일층 확립하였다。

셋째로 레닌은 이사업을 통하여 지나온 전력사의 모든과학발전이 가져온 일체성과중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것을 천재적으로 맑쓰주의적으로 총화하였고 일반화하였다。

× × × —

레닌은 자기의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마하철학의 반동적내용과 그의 계급적근원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레닌은 로씨야 마하주의자들 즉 보그다노브 바사로브 루나챠르쓰끼 유사꼬비츠 기타들의 반동적철학은 이것이 새로운 어떠한 철학적견해를 내놓은것이아니고 지나간 력사에서 흔히 보는 벌써 로폐물로되여 놓보는 사

람도없는 주관적유심론의 재관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마하주의자들의 철학적원천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면서 밝히기를 마하주의자들 즉 서구라파에서는 마하 아베나리우스 로씨야에서는 보그다노브 바사로브 루나차르쓰끼등은 一八세기의 반동적영국주교 벨크리사상의 틀림없는 계승자들이며 그의 재판자(再版者)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벨크리는 모든 객관적물질세계는 이것이 우리인간의 주관적감각의 총화라고 하였으며 감각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감각에 예속되지않는것은 존재할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하느님만이 인간의 감각에 예속되지않는 유일의존재이며 이것은 초인간적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끌까지 옹호한 종교의 충복이었다。 이것을 계승하고 재판한것이 마하주의자들의 철학적견해이며 그정체이었다。

마하주의자들은 아는척하고 주장한다 즉「이세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감각이다 세계에는 감각이외에는 아무것도없다 감각이라는것은 요소이다」(레닌전집 十三권四四페지) 이것이 벨크리의 [illegible] 대같은 론지와 무엇이 다른가 벨크리가 물질이란것은「감각의총화」이라고할때 마하주의자들은「요소의총화」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하의「요소」가 벨크리의 감각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다만 마하는 [illegible]게 재간을 피워 벨크리의 감각을 요소로 슬그머니 바꾸어 놓았을 뿐인것이다。

반동적마하주의철학의 일익을메고 그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반혁명의 골목으로 뒤걸음하고있던 미숙하고 가소로운 철학가의 한사람에 독일경험주의자 아베나리우스가 있다 그도 자기의 되다만 철학의 원천을 주관적유심론자 벨크리 휘히테에게 구하였다 아베나리우스는 새철학적견해를 세상에 내놓는다고 [illegible] 소위「원리적동격(原理的同格)」의학설 즉 중앙경(中央頃)과 대립경(對立頃)의 상관관계(相關關係)에 관한학설을 내놓았다 그가 말하는 중앙경은 즉 주관적의식을 가리키며 대립경은 객관을 가리킨다。이것을 지면적으로 설명하는 아베나리우스는 중앙경 즉 의식에 대립경 즉 객관이 예속 [illegible]것으로 인정한다 다시말하면 아베나리우스는 새 [illegible] 창발적인 학설처럼 가장시 [illegible] 주관적유심론의 부패한 학설의 상품가치를 을 [illegible] 인간을 기만하고 맑쓰주의를 수정하며 그를 [illegible] 몰상식하였던것이다。 [illegible] 부패된 주관적유심론의 거 [illegible] 철학와 [illegible] 포로명중에는 로씨야의 [illegible] 바사로브등도 [illegible]있었다 보그다노브의 [illegible] 마하주의자들과 같어 경험이상에 [illegible] 있어서 시원적(始元的)

인것, 제一차인것은「요소의 착잡(錯雜)」이다 이요소의 직접적복합(複合)결합(結合)이 심적경험(心的經驗)을 구성한다 이 심적경험은 직접적인것 자연이전(自然以前)에 존재하는것으로 인정하고 물적경험은 심적경험에 대해서 파생적인것이며 그의 변형(變形)반영에 불과하다 이「요소의 착잡」이란것은 결국에 있어서 주관의 감각을 의미하며 그의 론법에 의하면 인간의 감각에서 심리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주관적의식에 의하여 자연히 발생한다 이와같이 보그다노브는 객관적물질세계가 인간의 주관에 예속된것으로 설명하며 그는 주관적유심론에서 한걸음 한치도 나서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레닌은 이 모든 빈소리꾼들에게 최후의일격을 주면서 그들의 철학적근원을 지적하고 그 사기성과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즉『세계는 "내"가 아니다 "내"가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휘히테가 선언하였다면 헤겔은 세계는 절대적정신이라고 말하였고 슈펭그라는 세계는 의지(意志)라고하였고 세계는 인식과 관념이라고 슙빼는말하였고 물질은 심리의 결과라고 보그다노브는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다 같은 유심론적내용이라누것을 소경이라도 볼수있는 것이다』(레닌전집 十三권一八六페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뒷꼬리를 잡아틀고 로씨야 마하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가면과 요언을다하여 맑쓰주의자라고 큰소리를 친다할찌라도 그것은 맑쓰주의와는 한푼의 관련도없는 주관적유심론의전신(轉身)이며 로동계급의 리익에 정반대되는 가장 악질적인 견해라고 판정하였다 레닌은 이와같이 반동적인 마하주의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무자비하게 주는 동시에 혁명적맑쓰주의당의 리론적기초를 확립하였으며 맑쓰주의혁명적리론의 기본 즉 맑쓰주의변증법과 사적유물론을 끝까지 옹호하였으며 더욱 높은 계단에 발전시키었다。

이 레닌의 위대한 사업은 혁명적맑쓰주의당창건에 잊을수없는 심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레닌의 맑쓰주의당창건의 리론적기초에 근거하여 一九一二년 쁘라가에서 소집된 당대표회의에서 볼쉐위끼들은 일체 기회주의분자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맑쓰주의적독립적정당을 조직 형성 할수가있었던것이다。

레닌은 맑쓰주의철학적원칙에 립각하여 로씨야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경험과 지나온기간 자연과학이 수득한 모든 성과를 총화하였고 맑쓰 엥겔쓰의 철학을 계승발전시키었고 새로운 결론들을 지어놓았다。

레닌은 변증법적유물론의 원칙을『유물론과경험비판론』에 명백히 설명하였다 즉 레닌은 변증법적유물론을 자연 사회 및 사유발전에대한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객관적세계의 과학적 인식방법

으로서 이를 더욱 높은 계단에까지 발전시키였다
레닌은 지나온 과학발전에서 가져온 풍부한 재료들과 혁명적계급투쟁의 경험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변증법적유물론의 근본원칙 및 그의 모든 범주들을 명쾌하게 천재적으로 해설하였다。

레닌은 맑쓰주의철학적유물론의 가장 중심되는 문제 즉 존재와 의식에관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었다 레닌의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전부 六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레닌은 제一장부터 제四장까지를 이문제를 해명하는데 제공하였다。

제一장에서 레닌은 철학의최고문제 즉 물질은 선차적이며 의식은 후차적임을 론증하였고 그를 더욱 발전시키였다 레닌은『물질은 우리의 감각에 작용되면서 감각을 발생시키는 그러한것이다 물질은 감각에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객관적현실이다……물질 자연 실재 물리적인것은 一차적이며 정신 의식 감각 심리적인것은 二차적이다』(레닌전집 十三권 一一九—一二〇폐지) 라고 이것을 설명하였다。

제二장에서 레닌은 칸트의 불가지론(不可知論)과 마하주의적인식론을 표적(標的)으로하여 그에게 공격을 집중하고 우리 인간은 객관적 진리를 파악할수있으며 세계현상을 인식할수있으며 그의 법칙을 인식할수있다는것을 력설하였다. 레닌은 불가지론자와 유물론자간에있는 건널수없는 대하(大河)를 지적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현대의 신앙철학은 전적으로 과학을 거부하지는않는다 그들은 다만 과학의「관대(寬大)한 자부(自負)」즉 객관적진리에대한 자부만을 거부한다 그러나 만일 객관적진리가(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바와같이) 존재하며 또 만일 자연과학만이 외적세계를 인간의「경험」중에 반영하면서 우리에게 객관적진리를 줄수있는것이라면 또는 신앙철학은 무조건적으로 거부되고 마는것이다』(레닌전집 十三권 一〇二폐지)

이와같이 함으로써 레닌은 반동적이며 유심론적인 일체 부패한 사상들에게 맑쓰주의에서 멀리 물러갈것을강요하는동시에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여 그들로 하여금 맑쓰주의철학의 과학성과 위력앞에 스스로 굴복케하였다。

유심론적인 마하주의자들은 감각은 다만 주관의 창조적산물이라고 고창하였다 레닌은 이들의 이잠꼬대같은 견해를 반대하여 그들에게 일격을가하였다 레닌은 인간의감각은 객관적물질세계의 자극에 의한것이며 감각을 통하여 객관적세계는 인간의 의식을 형성하여 준다는것을 력설하였다。

보통감각은 보통동물에도 볼수가있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은 사회 력사의 산물이기때문에 보통동물의 감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는 매우 복잡하며 심각하고 다면적인것이다。

례를들면『매』의시선은 인간의시선보다 멀리볼수있다 그러나 인간의시선은 매가관찰하는것보다 더 많이 동시에 관찰할수있는것이며『매』에 비할바가 아닌것이다(맑쓰 엥겔쓰전집 十四권 四〇六폐지)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환경에살며 그 주위환경에 련락되어있으며 인간에게는 사회의식이 있으며 완성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둘째로는 인간은 동물과달라 생산도구를 만들며 그를 실천적생활에 리용함으로써 자기생활을 풍부히하고있다 인간은 그 로동행정에서 감각기관을 더욱 발전시켜왔으며 의식이 형성되어왔으며 그를 발전시켜온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할 사실은 인간은 한가지 감각만으로써 현실세계를 완전히 인식할수는없으며 자연이나 사회발전행정을 인식할수가없는것이다 때문에 레닌은 례를들어 다음과같이 말하였다『빛(光線)의속도가 一초간에 三〇만킬로메타라는것은 우리 감각만으로는 인식할수가없다 다만 이것은 인간의 사유로써만이 리해 인식할수있는것이다』고。

그러면 레닌은 마하주의자들의 기변적견해들을 물리치면서 철학의 근본문제인 감각을 어떻게 해명하였는가? 이 중요한문제를 요약한다면 다음과같다。

一、감각은 객관적세계의 사물이 인간의 감각기관에 작용한것이며 그것은 인간과 객관적물질세계간의 상호련락관계의 표현이며 그것은 외부의 객관적에네르기야의 자극이 의식행정에 전환된것이다。

二、감각은 운동하는 물질의 한개의 요소이다 감각은 의식의 한개의 형태이며 그 첫 심리적행정이다 사유는 그다음행정이며 사유로써 감각으로부터 받은 객관적조건에 의하여 객관적세계의 법칙을 인식할수있다 이리하여 인간에게 객관적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있는가 하는문제는 인간의 실지경험에서 일상적으로 검열할수있는 것이다。

三、이상에서 본바와같이 마하주의자들은 감각을 객관적세계와 아주 분리시켜 고찰한다면 변증법적유물론은 인간의 감각 의식은 외부세계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의식은 객관적세계의 반영이라는것에서 출발한다。

이와같이 레닌의 이 감각에대한 천재적해명은 이것이 맑쓰주의 철학적 유물론 발전에 막대한 역할을놀았던것이다。

× × ×

레닌은「유물론과 경험비판론」제四장에서 유물론철학의 근본문제들인 객관적진리 절대적진리 상대적진리등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아주 그릇된 견해들을 가지고있던 마하주의자들에게 치명상을 주었다。

레닌은 마하주의자 보그다노브파의 상대론자들이

우리들의 인식은 상대적이며 객관적인 절대적인식은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견해를 론박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비판을 주었다。

객관적진리를 설명하면서 레닌은 지구가 인간생활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자연과학에서의 증명은 이것이 한개의 객관적진리라고 레-를들어 말하였다 다시말하면 레닌은 인간 및 인류에 의존하지않는 우리들의 표상(表象)우리들의 지식의 내용을 즉 객관적진리라고 보았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지식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속하고있지만 우리들의 지삭중에 포함되어 있는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서 독립하여있는것이다。

보그다노브는 이러한 객관적진리를 부인하면서 진리는 사람들의 의식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객관적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레닌은 이 그릇된 견해들에 대하여 랭정하게 비판하면서 이자들은 다음과같은 두가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혼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객관적진리가 존재하는가?

즉 인간의 관념의 내용이 주관에 예속되지않는다는 문제와

2、만일에 객관적진리가 존재한다면 — 인간의관념이 객관적진리를 표현할수 있겠는가? 또는 객관적세계의 현상을 일시에 절대적으로 인식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계단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식할수가 있겠는가?

즉 이러한 명백한 문제들을 그는 리해하지못하며 그를 혼돈시키며 유심론적 상대론적 립장에서 이를 부인하려고 하는것이다. 레닌은 이러한 보그다노브 일파의 유해한 견해에 대하여 그 우매성을 밝히는동시에 변증법적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의 표상이나 지식은 객관적진리를 표현한다는것을 력설하였다。

레닌은 절대적진리와 상대적진리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진리의 상대적성질을 지적하였다 왜그러냐하면 객관적세계의 모든 법칙을 우리는 일시에 다 인식할수가 없기때문이다 우리의 인식은 다만 우리를 포위하고있는 자연법칙의 일부분만을 인식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상대적진리는 점차르 절대적진리에 도달하고있으며 인간은 절대적진리에 도달할수가있다 절대적진리는 상대적진리속에 표현되나 일간이 도달하는 매개의 과학적진리는 그상대적성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절대적일립(一粒)이 포함되여있는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지식은 과학발전과 경험으로써 절대적진리에 가까워가며 있는것이다。

레닌은 객관적진리를 승인하는자라야만이 맑쓰주의자인것이며 객관적절대적진리를 인정하는자는 절대적진

리를 인정하는자라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맑쓰주의철학은 절대적진리를 승인하는데서 출발하지만 상대론적철학군들은 이것을 부인하고있는것이다。

례를들면 엥겔쓰가 말한바와같이 나포레온이 一八二一년五월五일에 사망한것은 이것이 움직일수없는 절대적진리이다 그러나 보그다노브등의 상대론자들은 그것이 음력과 양력에따라 날자에 이동이 있으며 결코 절대적이 되지못한다고 노해서 두덜거린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반드시 혈액의 순환 호흡 심장의 운동이있어야만 생명을 보존할수 있다할때 이것이 만일 절대적진리가아니고 상대적이라고 리해한다면 그는 생명있는 인간과 죽은 인간을 구별하지못하게 되고말것이다。

절대적진리와 상대적진리에대한 문제는 벌써 엥겔쓰가 반듀링론에서 듀링의 형이상학적진리론을 반대하면서 그비과학성을 지적한바있었다 레닌은 엥겔쓰의 이 리론에 근거하여 그를 더욱발전시키었다。

레닌은 이와같이 진리에대한 과학적 유물론적 견해를가지고 일체 유심론적 견해 마하주의자 보그다노브파등을 무자비하고 철두철미하게 비판격파하였던 것이다。

× × ×

레닌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제五장에서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분야에서 일부 분자들이 범하고있는 유심론적 오유에 대하여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비판할뿐만아니라 자연과학을 완전한 맑쓰주의적 립장에서 해석 연구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철학적전선에서 마하주의가 맑쓰주의를 수정하려고 덤비고있는것처럼 자연과학에서도 맑쓰주의적립장에서부터 떨어져나가고있는 현상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엥겔쓰가 一八九五년에 서거한이후에 자연과학 그중에서도 특별히 물리학에서는 많은, 새로운 발명과 약진이 있었다。

례를들면 一九세기말까지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더 분해할수없는것으로 인정하고있었고 그 이상의 것을 알지못하였다 그러나 一八九八년 불란서물리학자 큐리부인은 원자내에 새로운 몇개의 구성요소를 발견하게되었다 그의 재학설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전자가 발견되었다 이와같이하여 과학의 메쓰는 원자내에 에레크트론 푸르트론등의 전자를 발견하고야말았다 이것은 더욱 나아가 원자핵에대한 리론을 확립케하였고 원자핵의 강력한 운동작용까지 설명하기에이르렀다 이로써 그때까지의 원자에대한 학설은 벌써 낡은것이되고 말았다。

반동적인 유심론적철학가의 무리들 즉 마흐 듀겜 오스트바리드 포앙카레 필손 아베나리우스등은

제멋대로 이 새학리를 맑쓰주의를 반대하는데 리용하여 보려고 날뛰었다。

이들은 큰소리로 외쳤다「물질은 소멸된다」다만 남는것은 에네르기야뿐이다 에네르기야는 벌써 물질이아니다 때문에 물질이 영원한 선차적 존재라는 것을 고수하는 유물론자들은 벌써 무의미하여졌다 이것이 그들의 잠꼬대의 전부이었다。

이현상을 밉살스럽게 관찰한 레닌은 현대물리학은 일대「위기」에 처하였다고 경고하였다 즉 그것은 첫째로 현대물리학은 유물론적 견지로부터 유심론적 또는 불가지론적(不可知論的) 견지로 전환되고 있기때문이라고 하였고 과학이 진정한 과학으로 되려면 맑쓰주의유물론의 견지로부터 리탈되어서는 아니될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로는 이전 물리학은 그리론이 객관적현실계의 반영이라면 현대 물리학은 객관적세계가 인간의 의식에 종속되지 않는다는데서부터 출발하며 객관적진리를 부인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다。

레닌은 이 현대물리학의『위기』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였을뿐만아니라 그의 출구와 구제책을 가르키며 그 가장 적당한 처방을 주었다 즉 현대 물리학이 현재 겪고있는『위기』에서의 유일한 출구는 기타 모든 과학에서와같이 변증법적유물론의 근본원칙을 잊지않고 그를 고수하는데서만이 벗어날수있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레닌은 력설하기를 물질에 대한 철학적개념과 물리학적개념을 구별해야한다고 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철학적개념은—물질이라는것은—인간의 의식에 예속되지않은 객관적실재를 설명한다면 물리학적인식은 물질의 구조 구성성분을 말하는것이다 때문에 철학적인식은 절대적현상이며 물리학적개념은 구체적 력사적발전에 의하여 또는 과학발전의 수준에 의하여 변경을 가져오는 상대적현상이다 과학발전은 물질에대한 철학적개념을 나날이 정확히 하여준다 물리학에서 一九세기에는 원자이상을 리해할수없었다면 二〇세기과학은 이것을 더 자세히 분석하여 새로운 물리학적개념을 주었다 이는 동시에 철학적 인식에 커다란 도움을 줄수가있었다。

레닌은 지적하였다 변증법적유물론은 자연법칙을 깊이 연구하는것을 제한하지 않을뿐더러 변증법적유물론은 자연에 은폐된『비밀』즉 물질구조를 더욱 깊이 연구할것을 요구한다 다만 변증법적유물론은 모든 자연과학 물리학자들로부터 물질이 객관적으로 우리의식에 종속되지않는다는것을 확인하며 실증하기를 요구한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낡은 리론 낡은 자연법칙이 새로운단계에 발전되는 것을 유물론자들이 환영하는것이 당연한일이며 이

것은 결코 유물론의 패배를 의미하지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새로운 발견과 발전은 유물론자의 인식론의、패배를 의미하는것이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인간은 무엇이나 인식할수있다는 유물론적 원칙을 더 확증하여줄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인식의 발전을 물질의 소멸로써 처리할것이 아니라 만일 과학적인식의 올바른 태도를 버리지않기를원한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가지고있던 물질에대한 지식을 초과한것으로 리해하여야할것이다 지금까지 어떤물질에 대하여서 절대적진리로 인정하고있던것이 벌써 상대적진리로 변하였으며 그물질의 구조가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되였고 인식된것으로 리해하여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우매한 마하주의자들 및 그와 동심이체인 유심론자들은 물질에대한 철학적개념과 물리학적개념을 동일시하며 혼동한다。

레닌은 이 비과학적 반맑쓰주의적 마하주의자들의 우매와 근시안적 비과학성을 앞뒤로써 론증하면서 물질에대한 철학적 물리학적 개념에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레닌은『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유심론적 물리학이 나타나게된 원인을 명백히 분석하였다。

즉 그것은 첫째로 반동적 사회계급 근원으로 설명되며 동시에 과학자체의 진보계단으로서 설명된다 즉 저 본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속에서 사라난 과학은 그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대표하여나서는한 그 반동성을 벗어날수가없는것이다 또는 물질구조에 대한 과학의 진보는 특별히 물리학에 수학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과정에서 많은 조급한 학자들은 물리학에다 수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만으로서 만족하였던것이다 물론물리학에 수학을 적용하는것은 과학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본말(本末)을 전도하여 물리학자체가 가지고있는 과학으로서의 객관적내용을 망각하여 버리는것은 완전한 유심론으로의 퇴보를 의미하는것이다。

둘째로는 유심론적 물리학은 상대주의와 비변증법을 모셔다가 그 지도원리로 삼았다 이것은 특히 자연실험주의자들에게 적중되는 말이다 상대주의자들은 객관적진리를 승인하려고 하지않는다 과학의 내용에는 아무러한 객관적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심론적 주장은 당시의 상층지배계급의 리익에 달콤하게 들어맞는 이야기였다 레닌이 일찌기 지적하였던 바와같이 제국주의시기에는 반동이 모든 전선을 통하여 일체공격을 전개한다 유심론적 리학은 이시기에 갈수록 모로 흐르고있는 가련한 물체품에 지나지않는것이다。

레닌은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유심론적 해독분자들을 숙청하여버리고 철학과 자연과학의 전분야를 통하여 유물론적 대청소를 감행하는 동시에 맑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옹호 발전시킴으로써 맑쓰—레닌주의철학에 일층의 색채와 권위를 재래하였다。

× × ×

레닌은 그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철학의 당성에 관한문제를 강조하였고 첫장에서 마지막장까지 프로레타리아당성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맑쓰와 엥겔쓰가 로동계급의 적 및 변증법적유물론의 적들과 철두철미하게 투쟁하며 당성을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같이 회고하였다。

「맑쓰와 엥겔쓰가 처음으로 모든 이데올로기중에는 계급성과 당성이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맑쓰 엥겔쓰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을 창조함으로써 계급사회의 발전법칙과 계급투쟁에대한 법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맑쓰—레닌주의의 창시자로부터의, 이귀중하고 위대한 전통을 계승한 레닌은 이것을 더욱앞으로 높은데로 발전시키었다。

계급사회에있어서 사회적존재는 계급적성격을 가지며 계급투쟁을 그내용으로하는것이다. 계급사회의 조전하에서 모든 리론과 철학리론은 계급적인 사회적존재를 사람들의 의식속에 반영함으로써 계급적내용을 가지는것이다 각종계급과 그들의 사상적 대표자들은 현실을 각각다르게 설명하는것이다 각기 특이한 취급방법은 결국 사회에있어서 어떠한 계급이 차지하는 그의 위치와 역활에 의하여 제약되는것이다 각개의 계급과 각개의 계급적그루빠는 그들의 계급적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특별한 세계관을 창조하며 자기의 철학을 창조하는것이다 만약 어떠한 계급이 경제적 및 정치적관계에있어서 지배계급으로 되어있다할것같으면 그의 리론과 철학적리론은 이때문에 사회에 있어서 지배적인것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이 맑쓰주의당의 도움으로 자본주의조전하에서 로동자와 기타 근로자층속에서 그의사상과 리론이 지배적인것으로 될수는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사회내에서 지배적인것으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례는 一九一七년 사회주의十월혁명전야의 로씨야실정에서 볼수있으며 그시기에는 맑쓰—레닌주의적이데올로기는 아직 전체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될수없었으며 다만 혁명후에야만이 이것이 실현되었던것이다。

맑쓰—레닌주의세계관은 규정하기를 어떠한계급의 사상과리론은 그계급의당에 의하여 조성되며 그당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로되며 당적성격을 가진다고한다 [illegible] 만일 계급과 당이 진보적인 성격을 띤다면

그의 사상(철학및 과학은 어느정도 진보적성격을 가진다 례를 들면 영국과 불란서의 부르쥬아지들이 자본주의적 발전방향을위하여 봉건주의와 싸우던 시기에는 그들은 어느정도 진보적계급이었으며 자기대열내에서 과학을 전진시킨 선진학자들을 내놓았다(례로써 영국의 스미스 리카드, 불란서의 리로 홀바흐등) 그러나 부르쥬아지가 반동적계급으로 전환되는 시기부터는 그들은 벌써 과학발전에 주위를 돌리지 않았으며 그 림종기(臨終期)가 시작되었던것이다。

이것은 특히 제국주의시대에 있어서 로골적으로 나타난다 제국주의시대의 계급투쟁은 특히 첨예화한 형태로써 전개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세력을 보존하기위하여 경제적으로만 대중을 압박하는것이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를 노예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기위하여 그들은 가장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종교설과 반동적 철학체계등을 리용한다

一九세기 말엽과 二〇세기 중엽에 있어서 반동적당들의 유심론적무기로 되어있던 마하주의는 이러한 부르쥬아철학의 변종이었다。

서구라파와 로씨야의 마하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의 철학은 유물론과 관념론을 초과하고있으며 초계급적성격을 띠고있다고 한다。

레닌은「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이러한 초계급적이며 무당적인 학설 리론 및 철학체계가 계급사회에서는 있을수없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무당성은 부르쥬아관념이다 당성은 사회주의적리념이다 이원리는 일반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르쥬아사회에 적용된다 물론 이 일반적진리를 개개의 개별적문제와 개별적경우에 적용할줄알아야한다」(레닌전집 八권 四一六폐지)

레닌은 왜 부르쥬아지가 그사상의 무당성을 주장하는가를 명백히 지적하였다 즉 부르쥬아지가 무당성을 주장하는 동기는 부르쥬아철학 부르쥬아과학 및 부르쥬아이데올로기가 전체로 그 내용에 있어서 극소수의 압박자들만의 리익을 표현하며 그들의 수중에서 압도적 다수인민을 정신적으로 노예화하는 도구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데있다 그들은 이와같이 대중을 기만함으로써 자기의 해방을위하여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의 앞길을 가리우려고하며 대중을 혁명의 길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것이다。

서구라파와 로씨야 마하주의 보그다노브 바자로브 유스케비츠 와렌쪼노브 및 기타철학가들은 소위「사실주의」라는 구실밑에 부르쥬아이데올로기를 선전하려고 꿈꾸었다。

마하주의자들은「사실주의」라는 간판밑에서 발로는

자기철학은 유심론이나 유물론과 근본적차이가있으며 그것을 초월한다는 우둔한 자부심을 가지고 니였다 그들은 자기철학이 아주 새철학인것처럼 발하며 그것은 계급투쟁이나 당과 전연관계가 없는것처럼 설명하였다.

레닌은「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이들의 지나친 망상을 조소하면서 그들의「사실주의」라는 거죽속에 숨거있는 그정체는 케케묵은 유심론이며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써 그들은 인민을 기만하고있으며 유심론과 신앙주의에 길을 개척하여주고있는 가련한 도배들인것을 락인찍어놓았다.

동시에 레닌은 기본적으로는 과학에있어서 옳은 유물론적립장을 취하고있으면서 자기의 립장이 초계급적이며 당들의 투쟁과는 하등의 공동성도 가지고있지않다고하는 그런 부분적학자들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례로써 레닌은 헥크켈을지적하였다 헥크켈은 자연—력사적유물론의 립장에서서 모든 종교적 관념론들과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과학의 당성을부인하였고 자기과학이 혁명적대중의 무기로됨을 원치않았으며 소부르죠아이데올로기야와 분리하기를 원하지않았다.

이와같이하여 자기리론의 계급적 당적성격을 은폐하려는 부르죠아학자 철학자들의 온갖 망상과 기도를 레닌은「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철저하게 폭로하면서 아주 과학적인 프로레타리아세계관을 부르죠아리론에 대립시키고 겸해서 당성의 원칙에대한 명백한 리해를 주었다.

뿐만아니라 맑쓰주의당에게는 자기의 혁명적 과학의 계급적성격과 당성을 은폐할 필요가없으며 반대로 혁명투쟁을 성공시키기위해서는 직접 또 공공연히 프로레타리아적 당적 원칙을 실시하며 부르죠아과학의 반동적당성을 완전히 폭로배격할 필요가있다는것을 력설하였다.

× × ×

레닌의 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레닌적시기의 변증법적유물론발전에 막대한 의의를가지였다 그러면 레닌은 맑쓰주의철학에 어떠한 새로운 리론을 전개하였는가?

一、레닌은 새로운 유심론형태인 마하주의에대하여 그를 꼼짝못하게 두들어엎었다 맑쓰—엥겔쓰시기에는 아직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유심론은 나타나지아니하였다, 네오깐치안쓰트 마하주의 경험주의 보그다노브파 기타 모든 유심론형태들은 이것이 제국주의시기에 새로나타난 부르죠아이데올로기였다 레닌은 이 새 적들에게 철저한 치명상을 주었다.

二、레닌은 자칭 맑쓰주의자라고 가면을쓰고 날뛰는 일체 배신적반유물론자들의 견해가 전파됨을 방지하였고 그것을 격퇴함으로써 맑쓰주의유물론의

진지를 견고히하며 앞으로 발전시키였다.

三、레닌은 변증법적유물론을, 가장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를 발전시키였고 변증법적 인식에 대한 문제를 천재적으로 해명하였다 즉 맑쓰—엥겔쓰의 객관적진리、절대적진리、상대적진리、감각등에 대한 유물론적학리를 계승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였다.

四、레닌은 현대과학의「위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현대물리학의「위기」의 원인과 그의올바른 출구를 명시하였다 이로인하여 현대과학은 그나갈길을 잃어버리지않고 확고한 유물론적립장에서서 새로운 많은 성과들을 가져올수가있었다.

五、레닌은 철학의당성에대하여 명쾌하고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죠아철학자들의 당적성격을 부인하려는 비겁한 행동을 폭로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를 비난하였다.

뿐만아니라 레닌의「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정당창건에 리론적기초로 되었고 이는 쓰딸린의 저서「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냐」와같이 맑쓰주의 정당창건에 적극적역활을 놀았다.

로씨야력사에서뿐만아니라 어느국가를 물론하고 볼쉐위끼당같이 한개의 정당을 창건하는데 주도한 준비를 가진당은 아직없었다 이중요한 당창건준비에있어서도 특히 레닌의 이로작은 핵심적역활을 놀았다 다시말하면 一九一二년一월 쁘라가당대표회의는 레닌 쓰딸린의 위대한 준비사업의 기초위에서만이 이것이 성공될수있었던것이며「제六차당대회의 파업은 멘쉐위끼의 추방과 새당의 결성 즉 볼쉐위끼당의 결성으로써 이미 준비된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있었던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조선어판 二四三페지)

레닌의 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 세상에 나온지 약四○년을 경과하였다 이기간 인류력사는 변천하였고 레닌—쓰딸린당도 많은 발전과 변천을 가져왔다 즉 로씨야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은 선진적 볼쉐위끼당의 지도하에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고 오늘 사회주의문화건설에 일로 매진하고있으며 또는 그간 세계에는 커다란 두개의 세계대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레닌이 전개한 과학적 혁명적 학리들은 이러한 인류력사의 경험에의하여 날로 그과학성과 정당성이 증명되고있다.

레닌은 지적하기를 현대과학이「위기」로부터 출구를 얻으려면 반드시 변증법적유물론의 토대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쏘련의 선진과학자들은 레닌—쓰딸린의 이 올바른 가르침을 어기지않고 충실히 변증법적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을 원칙적

토대로 쫓아 그 과학을 추진시킴으로써 거대한 성과들을 쟁취할수있었다 그러나 이당연하고 정당한 원칙을 부인하는 부르죠아과학자들은 오늘 그혼돈과 미궁(迷宮)속에서 과학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는것이다。

쓰딸린은 「변증법적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이란 자기저서에서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의 근본적사상과 원칙을 정확히 파악발전시키었고 모든 과학적 재료와 혁명적투쟁의 경험들로써 이를 더 풍부히 하였고 그를 더욱 높은계단에 발전시키었다。

이와같이 레닌의 귀중한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맑쓰—레닌주의당의 리론적기초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혁명적불쉬위끼당과 프로레타리아대중의 위대한 리론적무기로 되고있으며 그정신은 나날이 생생해가며 발전되고있다。

당사업경험에서

평양시당단체의 자습당원 학습지도

평양시당 선전선동부장 리 창 협

오늘 복잡한 국내 정치정세하에서 조국의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에있어서 우리당안에 제시된 가장 엄중한 당면과업의 하나는 사상전선에서 당사업을 더한층 강화하며 모든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상전선에있어서 반동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당간부들과 매개당원들이 자기사업의 전망에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게하기위하여 당중앙은 당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전체당원에게 맑쓰—레닌적 리론으로 무장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치교양사업에있어서 특히 당간부들과 당열성자들을 고상한 정치적 리론수준에서 지도하는 사업은 중요하고 긴급한문제다。

쓰딸린은 「만일 우리인재들이 맑쓰—레닌주의적 교양사업이 쇠약해지거나 만일 그 인재들이 정치적 및 리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대한 우리사업이 약하게되고 이로부터 인재들 그자체가 우리 전향운동(前向運動)의 전망에대하여 주의하지않게되고 우리사업의 정당성을 모르게되며 상부기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장래없는 사무주의자로 변한다면 불피코 우리 국가 및 당사업은 쇠약해질것이다」라고 가르치었다。

이와같이 당간부들과 당열성자들의 리론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 및 당사업을 추진시키며 그의 성과를 발휘케하는데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쓰—레닌주의적 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자체가 더 높아지고 사업의 결과가 성과있을 것이다。

당간부들과 당열성자들을 교양하는 문제에있어서 우리당중앙위원회는 一九四八년도 초기부터 일부 준비된 당간부 및 당열성자들을 당교양망외 기본

원들의 리론수준의 정도 발전속도 또는 학습에대한, 열성여하를 고려하지않고 직위 또는 소속부문에따라 기계적으로 자습망에 망라시키는등 형식적으로 조직하였기때문에 이를 지도하는데 많은지장을 가져오게하였다.

실례로 동구역당에서는 초급중학교 이상의 교원은 일률적으로 자습당원으로 인정하였다 결과로 아직 자습할능력이 없는 당원들을 자습체계에 넘겨버림으로써 도리어 그의발전을 정체시키는 역현상들을 나타나게 하였다.

한편 일부 자습당원들 가운데 비규률적으로 학습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게되었다.

즉 일부당원들 가운데는 그들이 자습당원이 됨으로써 더욱 자습연구에 노력하여 실제적 효과를 발휘할대신에 자체교양에 등한하여지고 당원으로서 자체의 문화교양수준을 부단히 높일데대한 당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현상들을 보게되었다.

그들은 자습당원이라하여 세포학습회에 참가하지않음을 기화로 자습을 등한히하는 옳지못한 작풍을 가지게되었다 또 세포에서는 자습당원들은 당학습체계에서 벗어났다고하여 그들자신에만 맡겨버리고 그리관심을 돌리지않고 자습을 게을리하는 경향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무자비한 비판과 자기비판으로써 과감히 투쟁하는 사업이 미약하였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간부들이 학습을 게을리하는 엄숙한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습당원들의 학습에대한 방법적지도에 있어서도 큰결함이 있었다.

즉 자습당원들을 지도함에있어서 리론적,보충강연회 또는 당도서실 리론강연회를 높은수준에서 조직하여 자습당원들에게 학습장 방조를 줄대신에 매주 一차씩 정기적으로 소위 자습당원 집체연구회를 조직하고 여기에는 일정한 지도책임자가 있어가지고 지명토론을 시킨다음 다른당원들이 보충토론을 하게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하였던것이다 당도서실에서 리론강연회를 조직하는것은 다만 시당도서실 한개소에 국한되어있었다.

자습체계가 수립된 초기에있어서는 이러한 집체연구회를·통하여 자습당원들의 학습의욕을 고무시키며 그들의 학습상황과 리해정도를 검열함으로써 그들의 자습상 직접적 방조를 줄것이며 상당한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기대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실지사업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과 그의 성과는 이와같은 지도방법만으로써는 자습당원 지도에 있어서 충분치않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즉 전체당단체들에서는 자습당원의 집체적 연구에만 중점을 두었을뿐아니라 일부당단체에서는 이미 지정되어있는 보고자만 보고하게되므로 기타 자습

체계로 되어있는 세포학습회로부터 분리하여 자습체계에 넘길것을 폐지하였다.

즉 당중앙위원회는「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리론수준의 자정에따라 현재의 교양망 조직으로써마는 당원들의 학습에대한 충분한 만족을 주지못할것이므로 금후 각급 교양망에서는 이를 한층더 발전된 형식으로 정치 리론적으로 준비된 당원들만은 자습 연구 강연들의 방법으로 진행할것」을 결정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이 당내 정치교양사업에 있어서 자습체계의 수립은 준비된 당열성자들과 당간부들을위한 가장 엄숙한 리론교양의 형식으로 되었다.

평양시당단체는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당중앙의 올바른 지도밑에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사상적으로 결속시키기위한 중요과업의 하나인 당원들을 맑쓰—레닌주의로 무장시키는 당 정치교양사업에 주력하면서 특히 자습체계에 망라된 당간부들과 당열성자들을 높은수준에서 지도하는사업에 심심한 고려를 돌려왔다.

자습당원들을 높은수준에서 조직지도 함에있어서 수시로 제기되는 난관 결함들을 제때에 타개시정하면서 성과적으로 자기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평양시당단체는 자기잔하에 우리당 천체 자습당원수의 거의 반수를 망라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습체계에 망라된당원들 가운데도 그의준비정도 발전정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환경과 직업이 각양 각색이기때문에 이에대한 지도사업은 어느 지방보다도 복잡하며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시·구역당단체들은 이들을 장악지도하며 높은 수준에로,추동하는 사업에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기울이고있다.

평양시당단체는 우선 자습체계를 수립함에있어서 당중앙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세포학습회에 참가하여 학습하는것보다 자체로 자습연구하는것이 더 많은 성과를 얻을수있는 준비된 당원들을 자습당원으로 인정하고 자습체계에 망라시켰던것이다.

이와같은 원칙밑에서 자습체계를 수립하여 놓은 후 평양시당단체는 자습당원들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인도하는 첫사업으로 매개 자습당원들은「소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를 자습 연구하게하였다.

이렇게 자습체계를 수립하여가지고 지도하는과정에서 적지않은 결함들이 발생하게되었다.

즉 세포학습망에 망라되어 학습하는것보다 자습연구함으로써 더욱 큰성과를 얻을수있는 당원들을 자습망에 망라할 대신에 일부 당단체에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원칙밑에서 조직되지못하고 개별적 당

당원들은 자기에게 보고책임이 없다고하여 그들은 재를 변변히 연구하지도않고 참자하게된다 이제여 만성이되어 나종에는 집체연구회에 참가하여 보고만들으면 자기학습은 다된다고하는 피동적 당원들이 적지않게 발생하게되었다。

심지어는 집체연구라하여 개별적 당원들의 개별적 연구체계를 고려함이없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같은문제를 연구시킴으로써 각자의 계통적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준비정도 및 발전정도가 각이한 당원들을 한새끼로 묶어놓는 옳지못한 지도작풍들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게되었다。

그의 전형적실례로써 교통성당부산하 어떤 분세포를 들수있다。

여기에서는 매일아침 비당원까지 참가시킨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회를 가진다 이에는 자습당원들도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된다 따라서 자습당원들은 군중학습회정도에서 가르치는 낮은정도의 당사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지않으면 안되었다 뿐만아니라 일부 자습당원들은 아침학습시간에 당사강의를 들으니까 자기자습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다된다는것같은 생각으로 자각적이며 자발적인 자습연구를 할대신에 피동적립장에서 강의에 참가만하면 만사가 다 되었다는듯이 생각하는 현상들까지 보게되었다。

이와같은 지도방법은 자습체계를 내세운 당중앙의 본의에 어그러지는것이었다。

더우기 자습당원들이 이제는 자습이 궤도에 오르게되었고 학습의욕이 더욱 앙양되어 점차 더높은 리론을 섭취하기를 요구하게된 조건하에서 이러한 지도방법은 당원들의 학습의욕을 감소시키며 그들의 자각적 부단적발전을 조애하는것밖에 되지않는다는것을 실증적으로 말하여주는것이다。

자습당원들을 지도하는데있어서 고정적인 반조적(班組的) 지도방법에 의거하는것은 옳지못하며 리론강연사업의 조직과 당원들을 당출판물리용에 광범히 참가시키도록 조직하는데 주목을 돌려야하겠다는것을 사업과정에서 심각히 느끼게되었다。

一九四八년 六월초에 당중앙으로부터 평양시당단체의. 정치교양사업을 검열한후 「평양시당단체들의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서는 평양시당단체들의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함에 대한 유력한 지침으로 되었으며 자습당원들을 조직지도하는데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되었다。

六월二一일 평양시당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결정을 옳게 접수하고 전반적 시당교양사업과 그의 중요한 한부분으로되는 자습당원 지도에대한 문제를 심각히 토의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하기에 더

욱 큰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자습당원들을 재검토하여 당원들의 개별적 수준과 그의 환경을 엄밀히 조사하여 이를 다시 개편한 기초위에서 자습당원들의 연구 자습범위는 원칙적으로 맑쓰―레닌주의 기본지식의 백과사전인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를 기본으로삼고 「레닌주의의제문제」 및 레닌―쓰딸린의 제 로작들과 맑쓰주의 고전으로서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지도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이 자습당원을 검토, 정리하고 학습범위를 명시한다음 앞으로의 지도사업의 향상을 위하여

첫째로 당도서실 리론강연회를 시당도서실에만 국한할것이아니라 각구역당 및 기타에서까지 광범히 조직하여 전체 자습당원을 도서실강연회에 전부참가케하며

둘째로 대다수의 당원들이 연구하고 있는문제 또는 요구하는문제들에대하여 높은수준에서 보충강연회를 수시로 조직하며

셋째로 당출판물소개를 널리실시하여 당원들을 당출판물 리용에 광범히 참가시킬것

이상의 세가지에 지도사업의 중심방향을 두고 사업을 추진시키기로 하였다。

우선 보충강연회를 조직하기위하여 자습당원들의 자습계획서를 검토한결과 대부분의 자습당원들이 「쏘련공산당(볼쉐위)력사」를 연구하고있는 실정에 비추어 매주일 一차씩 쏘련당사내의 중요문제들을 가지고 당도서실을 심로 정기적으중로보충강연회를 조직하였다。

당도서실 리론강연이라하여 국한된 시、구역당도서실만가지고는 장소、또는 지역상관계로 전체자습당원을 광범히 참가시킬수 없기때문에 평양시내에 시、구역당도서실을 합하여 一七개소에서 당도서실강연 및 보충강연을 조직하였다。

이로부터 시당단체는 리론보충강연에 중점을두고 토론회에만 의거하던 지도방법을 버리고 학습좌담회 개별담화 또는 수시로 필요에 응하여 시구역당 도서실에 륜번적으로 소집하여 정치좌담회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학습정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학습의욕을 고무하여서 그들의 학습을 계통적으로 추동시키면서 세포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학습을 총화하게하고있다。

보충강연회 조직에 있어서 강의제목의 선택과 그의 내용을 미리 검토 하는것은 물론 중요한일이며 시당단체는 여기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왔다 그러나 이밖에도 자습당원의 지리상 분포상황을 검토하여 강연장소를 선택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는것을 사업경험에서 알게되었다。

즉 북구역당부에서는 자습당원들의 지역상 분포상황을 다시하여 수개소에서 보충강연을 조직한데

신에 한곳에서만 가졌기때문에 삼신란황과같이 별리떨어져있는 당원들에게 매우 불편한 감을주게되고 출석률도 좋지못한 결과를 가져왔던것이다。 평양시당단체는 이와같은 결점들을 제때에 시정하면서 보충강연 및 당도서실 리론강연을 높은수준에서 지도하는사업과 병행하여 자습당원들을 당출판물에·광범히 참가시키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당세포를통하여 수시로 서적소개를 하며 중요신간서적들을 제때에 통지하는 한편 당출판사와 긴밀히 련락하여 공동구입하여 배포하는등의 사업을 조직하며 당보 「근로자」기타출판물들의·배포상황을 항상점도하면서 이사업도 기본적으로 체계조직지도 하고있다。

자습당원들을 높은 수준에로 인도하는데 있어서 항상 동반되는 곤난성은 이들이 대개 책임적지위 또는 기타 중요직위에서 일하고있기때문에 본신사업이 누구보다도 바쁜것은 사실이며 또한 빈번한 지방출장이 그들의 학습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는것이다 또 부분적 당원들 가운데는 이것을 구실삼아 학습을 게을리하는 당원들이 없지않아있다。 그렇기때문에 당단체는 항상 이에대한 검열지도사업을 가강히 전개하며 특히 세포에서 그들의 시간상· 조직문제까지도 개별적으로 검토지도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자습연구를 추동시키고있다。

특히 출장시의 학습을 옳게 조직하는 사업은 당간부들과 당열성자들을 학습시키는데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평양시당단체는 여기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 출장하는 동무들에게는 출장중에 연구할 범위를 미리 문의하고 출장에서 돌아온후에 반드시 개별담,화를 통하여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학습상 진전을 보장하고있다。

이제 국가검열성세포의 자습당원들의 자습경형을 본다면 이세포에서는 자습당원이 대다수이기때문에 당교양사업의 주력을 자습당원들의 학습지도에 돌리고있다。

이세포당원들은 계획적으로 자습하기위하여 매개당원들이 자기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자습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특히 이세포는 다른 어느세포보다도 출장이 빈번하기때문에 세포에서는 출장가는 동무들에게 따로 자습계획을 문의하고 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진행정도를 점토한다 또 수명이 한지방에 같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책임자를 정하고 출장지에서도 학습좌담회를 가지면서 호상 학습에 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이하여 자습당원들의 리론수준의 점차적향상과 아울러 한면으로 새로운 결함과 요구를 발견하게되였다 즉 학습과 실천이 긴밀하게 결부되지 못하고있는점과 또한 자습당원들의 계통적 연구부면이 깊어질수록 개별적당원들의 연구계통과 그의 진도에따라 더욱높고 더욱깊은 수준에서 이들을 지도해야할 점들이다。

一九四八년 一一월二七일 제五차 평양시당위원회의에서는 이에대하여 충분히 검토 토의한후 당교양사업을 높은 사상정치성 위에서 실제사업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시키기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무엇보다도 매개당원들에대한 학습지도에 있어서 일체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청산하기에 노력하며 당원들의 자체교양에대한 지도는 개별적 당원들의 실제사업을 통한 사상 정치성에 의하여 비판을 강화하는 사업과 긴밀히 련결시키도록 하고있다 다수자습당원들의 리론수준의 차이가 복잡함을 고려하여 수준높은 자습당원들을 시·구역당부에서 강려히 장악하고 이들을 리론수준이 비교적 낮은 자습당원들과 세포학습회에 망라된 당원들을 위한 보충적 리론강연사업에 종사시키는 사업을 일층 강화 하기에 노력하고있다。

이상과같이 평양시당단체는 전체당정치교양사업과 함께 자습당원들을 더욱높은 수준에서 지도하는데 있어서 경상적으로 자기사업을 총화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결점들을 적발하여 이를 경험교훈삼아 우점을 살리며 결점을 퇴치하면서 점차 사업상 발전을 가져오고있으며 초보적으로 이사업을 궤도에 올려세우고 앞으로의 일층 개선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면서있다。

그러나 아직도 존재하는 결함중에 가장 엄중한것은 당간부들이 학습을 등한히하는 경향과 자습당원들의 리론수준의 차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지도방법을 계속하고있는 점이다 앞으로는 당간부들을 위한 특별 단기강습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광범한 자습당원들의 리론수준의 차이에 따르는 구분적 지도방법을 강화함에 주력할것이다.

당생활보도

평양철도기관구 초급당부의 당장성과 신입당원 교양사업의 몇가지 경험

당장성사업과 신입당원교양사업에 있어서 당적주목이 부족하였던 점에 대하여 一九四八년一一월一九일 도당상무위원회에서 지적받은후 우리당부는 이 사업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얼마전까지만하여도 기관구 당부는 철도운수사업 협조에 있어서 당내부생활을 강화하는 문제와 결부시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다.

이와같은 지도방법의 결과는 당장성사업 및 신입당원교양사업이 락후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다 즉 교착된 로동자들이 허다히 있으며 성분상 으로는 그의 사업상열성으로 보아 능히 우리당대렬에 들어올수있는 선진로동자들이 허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교양하여 당에 받을데대한 대책이 미약하였던 것이다.

그후 본당부에서 이문제를 심각히 토론하였으며 각분세포위원들과 당열성자들에게 당장성사업과 신입당원교양사업의 기본방향에대하여 강습주었다.

뿐만아니라 우리당강령 규약에 대한 학습을 각분세포에서 다시하게하였다.

그리고 특히 『二〇세에달한 남녀는 당원이 될수있으며 당에 가입코자하는 경우에는 당원二명의 보증서를 첨부한 개별적 입당원서를 당세포에 제출할것 보증인은 당년한이 一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피보증인과 적어도 一년이상 함께 사업하면서 서로 아는 사람이라야하며 피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라는 규약 제 조를 구체적으로 해설하여주었다.

그후 당부는 각분세포별로 자기가 처하여있는 환경과 특수성을 따시하면 분석파악하고 당원통계 및 세포주위에 있는 로동자들의 성분 및 로동년한, 사업에대한 열성여하, 정치적의식정도, 입당에 대한 규약상원칙에 적합한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파악하고 당장성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제 신입당원교양사업에 있어서의 몇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운전세포에서는 바로 얼마전에 입당한 리봉옥동무에대하여 특히 규약에서 당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인식하도록 교양주는 한편 자기세포의 특성 및 임무 그리고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을 깊이 배양하도록 일상적 지도를 주고있다.

공장세포에서는 얼마전에 모범로동자 황병구 동무를 입당시키였는데

그에게 가르치는것은 단지 강령 규약만이 아니라 실지사업에있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할 당과 국가에대한 헌신성및 충직성을 깊이 고취시켜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무원칙한 친목주의를 용인하지않을뿐만아니라 고상한 당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동지애를 갖고 그를 교양하고있다.

신입당원들은 그밖에 우리조국의 과거와 현재 로동당의 탄생과 그의 역할에대하여 집체적 또는 개별적 교양을 받는다.

물론 신입당원이라하여 이와같은 교양방법에 국한하는것은 아니다.

그들도 역시 당규약상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정치리론수준을 향상시키기에 부단히 노력하는한편 그를 방조하는 당교양망체계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이와같이 우리당부는 당장성사업과 신입당원교양사업을 경상적으로 조직시도한다.

동기간세포강사를위한一개월간강사강습회실시에서

당정치교양사업을 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에서는 이미 『동기간세포강사를위한 一개월강습』을 정과적으로 실시할것을 지시하였다.

평남도 각시(구역)군당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제강에 의하여 지난 一二월초부터 강사강습회를 실시하였다 벌써 각시군당에서는 제一기 강사강습을 완료하고 제二기 강사강습을 실시하는 계단에 들어섰다.

강동군당에서는 도내 정치교양사업정형과 금후과업에대한 一九四八년一一월二二일 제四차 평남도당 위원회결정서를 접수하고 우선 강사선발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강사는 그세포에서 신망이있고 사상적으로 견고하며 리론적으로 우수할뿐만아니라 장차 세포학습 강사로서 열성적으로 활동할수있는 당원들을 강사강습회에 망라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평양시당 남포시당같은데서는 강사강습회 조직에있어 대상별, 수준별로 조직함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었다 이는 강사강습회를 효과적으로 실시할수있는 근본적 조건의 하나로되었다.

만약 이를 고려치않고 기관 공장 농촌 세포강사들에게 일률적인 강의방법을 취한다면 그들은 정치리론상수준이 부동한것만큼 강사강습회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낄수없을것이었다.

룡강군당에서는 강사강습회들을 흥미있고 유익하게 조직실시하기위하여 학습반을 조직하고 거기에 반장을 정하여 집체적인 조직생활을 시키었다.

그들은 강습기간에 자각적으로되는 학습규률을 준수하였으며 강의받은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며 그들 세포당원에게 책임적으로 전달하기위하여 노ー트정리 토론회 예습 복습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체교양에 주력하였었다.

또한 룡강군당에서는 강사강습의실시기간에있어 유능하고 경험있는 강사를 을 대하여 강의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illegible]

에대한 반영을 청강생들속에서 수시로 수집하여 효과적인 강의방법을 취하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즉 강사들이 랑독식 보고식 강의를 하여 청강생들이 그를 리해하기 어려워하는것은 수시로 고치게끔 지도하였으며 [illegible] 수준과 대상을 명백히 파악하고 상대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一편 각시군당들에서 공통적으로 당건설에 관한 과목은 시(구역)군당간부들이 이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리론상으로 무장하였을뿐만아니라 당사업에서 실제경험을 체득한 당간부들이 강의한 구체적표현의 하나로되나。

토론회지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에대한 계획한 결론을 얻도록 지도하였으며 군당간부 및 리론수준이 높은 강사들을 수시로 동원하여 그들의 학습에 보충적인 자료들을 주도록 지도하였다。

뿐만아니라 세포강사들이 여기간을 통하여 더욱 도서실을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독서열을 높이며 자체의 리론수준을 제고함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각시(구역)군당에서는 강습회가 끝난이후 그들의 이번 강습기간을 통하여 실제 어느정도로 리론수준이 향상되였는가를 검열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들어 금후의 경험교훈으로 삼기에 노력하였다。

대동군에서는 제一기강습생 八六명중 최우등생(五점)이 九명이였고 또한 四점이상은 五四명에 달하였었다 각시군에서도 이와같은 성과에 도달하였었다。

이상에서 보여주는바와같이 강사강습회를 성과있게 실시하기위하여서는 우선 강사선발에 심중한 주의를 돌릴것은 물론 특히 수준별 대상들을 충분히 참작할것과 강의방법에있어 흥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실시케함에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야할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준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강사강습회로 목적한바대로 성과를 거두자면 강사강습외의 강사들이 충분한 준비를 갖고 강의하도록 지도하며 방조하는것이 역시 중요한 점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독자동지들에게

『근로자』는一九四九년一월부터 한달에 두번씩 발행합니다

앞으로 리론문제와 아울러 당생활에대한 론문 경험을 더많이 게재할 작정입니다。

실지당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대한 원고、당사업기사 및 편지、그리고 잡지에 게재된 론문、자료、경험적기사에대한 감상、의견、질문등을 다음주소로 보내주심을 바랍니다。

『근로자』예약은 소관우편국에 하여주심을 바랍니다。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로동신문사내

『근로자』편 집 국

전화三八〇一一五

一九四九년一월二五일 인 쇄
一九四九년一월三一일 발 행
『근로자』제二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성 용
인 쇄 인 최 단 엽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정 정

六페지 상단 一九행 「자기의 존재 三一년간
래년이 없이」는 「자기화 존재 三一년간을
에서 二五년동안 례년이 회신」의 오식
八페지 하단 七행 「[illegible]권」은 「세계재화
권」의 오식이기에 정정함